

韓中經濟協力の 新構圖

세미나자료 94-02

金時中 編

1994. 6



對外經濟政策研究院

韓中經濟協力の 新構圖

金時中 編

1994. 6



對外經濟政策研究院



序 言

1992년 8월 韓中修交 이후 양국간의 經濟交流은 괄목할 만한 增加趨勢를 보여왔다. 이에 따라 兩國經濟의 相互依存度는 급속히 심화되고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 과정에서 각종 문제도 발생하고 있으며, 또한 상호간의 이해도 미흡한 상황이다. 本 研究院은 兩國間 經濟交流의 現況과 問題點을 검토하고, 양국간의 經濟關係가 진일보한 協力關係로 발전할 수 있는지를 타진해 보는 차원에서 “韓中經濟協力の 新構圖”라는 주제로 中國國際信託投資公司(CITIC)와 공동으로 국제세미나를 개최하였다.

金泳三 大統領 訪中에 즈음한 지난 3월 23일 中國 北京에서 개최된 이 세미나에서는 貿易, 投資, 科學技術協力の 세 분야에 걸쳐 양측의 重鎮級 專門家들의 논문발표와 이에 관한 토론이 있었다. 이 세미나에는 양국에서 李賢宰 前 總理(韓國), 黃華 前 副總理(中國)를 비롯한 學界, 官界, 業界의 人士들이 다수 참가하여 활발한 토론이 있었으며, 결과적으로 양국간의 相互理解 增進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本 資料는 이 세미나에서 발표되었던 論文과 討論을 정리하여 모아 놓은 것이다. 본 자료의 편집은 세미나의 개최를 주관하였던 金時中 博士가 담당하였으며, 일부 자료의 번역에 本 研究院 金益謙 中文에디터의 도움이 있었다. 또한 이 기회를 빌어 中國 現地 세미나 開催에 큰 도움을 주었던 本院 北京支院 鄭永緣 博士와 CITIC 國際研究所 皮聲浩 副所長께 감사를 표한다.

1994년 6월

對外經濟政策研究院

院長 柳 莊 熙



目 次

세미나 日程	7
開會辭 (柳莊熙 對外經濟政策研究院 院長, 王軍 CITIC 總經理)	9
祝 辭 (李賢宰 前 總理)	13
제 1 주제 : 韓中 投資協力	
韓中 投資協力の 現況과 課題	19
(金泰弘 東國大 教授)	
中韓 經濟協力の 新構圖 : 投資側面	39
(焦素芬 對外貿易經濟合作部 外國投資管理司 司長)	
제 2 주제 : 韓中貿易	
韓中 交易現況과 向後 展開方向	49
(千辰煥 럭키금성 海外事業推進委 社長)	
中韓 經濟貿易關係의 現況과 展望	58
(鄭敦訓 中國化工進出口總公司 總裁)	

제 3 주제 : 韓中 科學技術協力

韓中 科學技術協力과 새로운 試圖 67

(鄭助英 科學技術團體總聯合會 常任副會長)

中韓 科學技術協力 展望 112

(孔德涌 中國科學技術發展促進中心 主任)

綜合討論 要旨 119

세미나 日程

9:30 開會辭：柳莊熙 韓國 對外經濟政策研究院(KIEP) 院長
王 軍 中國 國際信託投資公司(CITIC) 總經理

9:45 致 辭：李賢宰 前 韓國 國務總理
黃 華 前 中國 外交部長 耿 副總理

10:00 ~ 12:00 오전 회의

司 會：柳莊熙 對外經濟政策研究院長

第1主題 韓中投資協力：

發表者 韓國側 金泰弘 (東國大學校 教授)

中國側 焦素芬 (中國 對外貿易經濟合作部 外國投資司 司長)

第2主題 韓中貿易：

發表者 韓國側 千辰煥 (럭키금성 海外事業推進委 社長)

中國側 鄭敦訓 (中國 化工進出口總公司 總裁)

12:00 ~ 13:30 오찬

14:00 ~ 16:00 오후 회의

司 會 : 皮聲浩 CITIC 國際研究所 副所長

第 3 主題 韓中 科學技術協力 :

發表者 韓國側 鄭助英 (韓國 科學技術團體總聯合會 副會長)

中國側 孔德涌 (中國 科學技術發展促進中心 主任)

綜合討論 : 兩側 參加者 및 記者

開 會 辭

柳 莊 熙 院 長
(對外經濟政策研究院)

저는 오늘 韓國의 對外經濟政策研究院과 中國의 國際信託投資公司가 공동으로 “韓中經濟協力の 新構圖”를 주제로 한 國際세미나를 개최하게 된 것을 대단히 기쁘게 생각하며, 아울러 참석하신 여러분께 本 研究院을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별히 本 세미나에서 主題發表를 해 주실 兩國의 專門家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를 표합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韓中 兩國은 地理的으로 인접해 있을 뿐만 아니라 歷史的·文化的으로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 왔습니다. 지난 1992年 8월의 韓中修交 이후 이러한 특수관계를 바탕으로 兩國間의 經濟交流는 비약적으로 증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한 예로 韓國의 對中輸出은 지난 89年の 4억 4천만 달러에서 93년에는 51억 5천만 달러로 크게 증가하였으며, 對中輸入도 89年の 17억 달러에서 93년에는 39억 3천만 달러로 증가하는 등 兩國間 貿易이 폭발적인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韓國企業의 中國에 대한 投資도 급속한 증가를 나타내어 93年 한 해 동안만도 600여건, 6억 2천만 달러 이상의 新規投資를 기록하는 등 中國은 韓國의 최대 海外投資對象地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兩國間 經濟交流가 급속하게 증대되는 것은 賦存要素 및 經濟成長

段階上の相互補完성에 기인하는 것으로서 향후 兩國間の經濟關係가 더욱 밀접해질 것으로 예견되고 있습니다.

다만 兩國間の 관계단절의 기간이 길었고, 또한 兩國間 經濟交流가 너무 급속하게 증가하는 과정에서 상호간 이해부족에 따른 문제도 일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도 兩國關係가 연륜을 쌓아가고, 相互交流의 증대를 통한 理解增進과 信賴構築을 통하여 개선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本 세미나 開催의 趣旨는 급증하고 있는 兩國間 經濟交流의 現況과 問題點을 검토해 보고, 兩國 經濟關係가 현재의 量的 交流擴大 단계에서 새로운 質的 協力段階로 진전될 수 있는 길을 모색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저는 특별히 兩國 經濟協力の 發展이 東北아시아 지역의 長期的인 平和定着과 共同繁榮의 달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믿습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오늘 3월 26일로 예정된 金泳三 大統領의 中國訪問이 兩國間の 經濟協力を 새로운 단계로 발전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해 봅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兩國의 專門家들을 모시고 兩國 經濟協力の 新構圖를 모색하기 위해 오늘 세미나는 매우 時宜適切하다고 하겠습니다.

특별히 韓國의 李賢宰 前 國務總理께서 本 세미나에 참석하시어 致辭를 해주시는 것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本 세미나가 개최되기까지 협력을 아끼지 않았던 中國 國際信託投資公司 魏鳴一 會長 및 關係者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쪼록 이번 세미나가 韓中 兩國間の 相互理解와 協力の 必要性을 재확인하는 자리가 되기를 바라며, 이에 開會辭에 대하고자 합니다.

開 會 辭

王 軍 總經理
(中國國際信託投資公司)

존경하는 來賓 여러분, 그리고 紳士 淑女 여러분!

韓國 金泳三 大統領의 訪中을 즈음하여 中國國際信託投資公司와 韓國對外經濟政策研究院이 北京에서 “中韓 經濟協力 新構圖” 세미나를 공동으로 개최하게 된 것은 대단히 의미깊은 일이라 하겠습니다. 본인은 中國國際信託投資公司를 대표하여 이번 세미나에 참석해 주신 李賢宰 前 總理와 柳莊熙 院長이 인솔하고 오신 韓國 代表團, 黃秉泰 大使, 黃華 同志와 來賓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歡迎의 뜻을 표하는 바입니다.

최근 몇 년 동안 中韓 經濟協力は 매우 빠른 속도로 發展되고 있으며, 각계 人士의 往來와 協力도 더욱 빈번하고 광범위하게 進行되고 있습니다. 中韓 經濟는 相互補完性を 갖고 있고 協力の 潛在力도 매우 커 전망이 대단히 밝다고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協力の 基礎를 잘 다져 나가야 하겠습니다. 이러한 基礎 위에 相互間의 理解增進, 國際的 關心事에 대한 共同認識의 提高, 兩國間 政策協助 및 相互間의 誠實性和 互惠平等 原則의 견지를 통하여 經濟, 科學技術, 文化面에서의 協力は 더 많은 發展과 成果를 거둘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中國國際信託投資公司는 中國의 對外開放 窓口로서 일찍부터 韓國의 經濟界와 往來를 시작하여 中韓 經濟協力 推進을 위한 많은 공헌을 한 바 있으며, 향후에도 韓國 經濟界와의 往來 및 協力を 계속 擴大해 나가고자 합니다.

본인은 이번 세미나가 中韓 經濟協力을 새로운 發展段階로 진입시키기 위한 유익한 高見 제공의 場이 될 것을 믿어 의심치 않으며, 이번 세미나의 成功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祝 辭〉

韓中 經濟協力の 새로운 構圖

李 賢 宰 前 總 理

本人은 오늘 韓中 兩國의 여러 學者·專門家들이 참가하는 이 세미나에서 致辭를 하게 된 것을 큰 榮光으로 생각합니다. 이 세미나의 主題는 “韓中 經濟協力の 새로운 構圖”입니다. 오늘날 나타나고 있는 國際經濟秩序의 變化와 韓國과 中國 兩國經濟의 現況을 考慮할 때, 이 主題에 대한 論議는 매우 時宜適切한 것 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날의 世界는 冷戰의 終熄과 더불어 經濟를 爲主로 하는 새로운 秩序를 形成해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새로운 國際經濟秩序 속에서 世界化와 地域主義가 共存하는 兩面性을 發見할 수 있습니다. 우루과이라운드 妥結로 特徵지워지는 世界化 現象은 國家間의 境界가 점차 낮아지면서 商品·資本·人力의 自由로운 移動이 增大되는 現象으로서 把握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世界化의 進展은 곧 國家間·企業間의 競爭의 深化를 意味한다고 할 수 있으며, 이를 無限競爭의 時代라고 表現하고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 유럽·北美 등 世界 여러 地域에서는 地域統合이 進展되는 現象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地域經濟統合의 進展이 바로 排他的인 經濟블럭의 形成을 意味하는 것은 아닐지 모르나, 域外國家들에게 새로운 挑戰을 던져주고 있는 것은 否認할 수 없는 事實입니다. 또한 先進國들의 技術保護主義 現象도 深化되어 經濟成長을 위한 開發途上國들의 技術確保가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國際環境下에서는 한편으로 競爭의 激化가

不可避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國境을 超越한 協力の 必要性도 增大될 것입니다.

한편, 中國은 改革·開放政策의 實施를 통하여 이러한 國際經濟秩序의 變化에 슬기롭게 對備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中國은 지난 15年間 年平均 9% 以上の 高速經濟成長을 이룩해 왔습니다. 이러한 中國의 經濟成長은 무엇보다도 過去의 中央執權의·閉鎖的 統制經濟를 改革하여 市場機能의 導入을 擴大하고 對外貿易과 外國人投資를 獎勵하는 등 改革·開放政策을 꾸준히 實施한 結果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現在 中國이 國有企業의 非效率, 金融機關 및 財政構造의 歪曲과 같은 問題를 안고 있지만, 이러한 問題들도 改革·開放의 深化를 통하여 능히 克服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確信합니다. 특히 오늘날과 같이 世界化가 進展되는 狀況下에서 中國은 對外開放의 擴大를 통하여 持續的인 經濟成長을 위한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한편, 韓國經濟는 지난 30餘年間的 高度經濟成長을 통하여 1人當 GNP 約 7,000 달러의 中進國 水準에 到達하였습니다. 그러나 現在 韓國經濟는 過去와 같은 方式의 量的 成長에서 脫皮하여 質的 成長을 圖謀해야 하는 時點에 到達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날 韓國에서는 規制緩和와 國際化·開放化를 통한 産業構造의 高度化를 追求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努力의 一環으로 韓國經濟는 國內市場의 對外開放 擴大와 더불어 새로운 海外市場의 開拓, 企業의 積極的인 海外投資, 國際的인 科學技術 協力 등을 推進하고 있습니다.

以上에서 살펴 본 여러 狀況들을 考慮할 때, 韓中 兩國間的 協力は 不可避할 뿐 아니라 매우 바람직스러운 것이라 하겠습니다. 元來 韓中 兩國은 歷史的, 地理的, 文化的으로 緊密한 紐帶關係를 갖고 있었습니다. 지난 한 때 兩國 關係가 暫時 斷絶된 적이 있었지만, 1980年代 들어 經濟交流를 中心으로 諸般關係가 回復되기 시작하였고, 1992年 8月の 修交 以後에는 政治, 經濟, 社會, 文化의 모든 면에서 活潑한 交流가 進展되고 있습니다. 특히 經濟面에서 볼 때 兩國은 修交 以前부터 상당한 規模의 交易과 投資를 實施하고 있었고, 修交 以後에는 交易·

投資·科學技術 등 여러 側面에서의 交流와 協力이 急激한 增加趨勢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미 昨年(1993年)에 兩國間의 交易規模는 90億 달러를 넘어섰으며, 韓國企業의 中國投資도 1000餘件, 10億 달러에 이르는 狀況입니다. 이러한 現象은 모두 兩國經濟의 높은 相互補完性을 示唆해 주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兩國經濟의 成長展望과 賦存要素의 補完性 및 地理的 隣接性 등을 考慮할 때, 이러한 經濟交流의 擴大趨勢는 앞으로도 持續될 것으로 確信합니다.

그러나 急增하고 있는 兩國間 經濟交流에 隋伴하여 一部 問題點도 나타나고 있을 것입니다. 또한 長期的인 經濟協力の 擴大에 障礙가 되는 要素도 存在하고 있을 것입니다. 特別히 이제는 兩國 經濟關係가 지난 數年間 나타난 經濟交流의 量的 成長을 基礎로 하여, 質的인 成長을 이루어야 할 時機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는 長期的인 視角에서 兩國經濟에 모두 도움이 되는 보다 深化된 形態의 協力이 推進되어야 할 것입니다. 本人은 兩國의 學者·專門家들이 이러한 問題點을 찾아내고 또한 長期的인 協力方案을 提示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이러한 成果를 얻기 위해서는 兩國間 相互理解의 增進과 이를 통한 信賴의 形成이 重要な 課題라고 믿습니다. 本人은 金번 세미나가 兩國 學者·專門家들의 論文 發表와 活潑한 討論을 통하여 이러한 課題를 解決하기 위해서 필요한 方向과 方案을 提示해 주시기를 기대해 마지 않습니다. 또한 特別히 韓國의 金泳三 大統領의 中國 訪問을 며칠 앞두고 開催되는 本 세미나가 兩國 國民間의 理解와 信賴를 더욱 增進시키는 成果도 거두기를 아울러 바랍니다. 다시 한번 本 세미나를 開催하는 데에 勞苦가 많으셨던 中國의 國際信託投資公司와 韓國의 對外經濟政策研究院의 關係者 여러분들에게 致賀의 말씀을 傳하고 싶습니다.

感謝합니다.



第 1 主題

韓中 投資協力

韓國側：金 泰 弘

韓中 投資協力の 現況과 課題

中國側：焦 素 芬

中韓 經濟協力の 新構圖：投資側面



韓中 投資協力の 現況과 課題

金 泰 弘

(東國大學校 貿易學科 教授)

I. 序 論

最近의 國際關係는 政治·安保의 側面보다는 經濟的 側面을 重要시하는 方向으로 變化하고 있다. 특히 美國을 비롯한 先進國간의 貿易不均衡이 擴大되면서 地域主義傾向과 新保護主義의 확산으로 國際經濟環境이 더욱 不透明해 지는 가운데 世界經濟秩序의 再編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對外經濟與件의 變化 속에서 韓國과 中國은 지난 92년 8월 國交를 樹立한 이후 약 1년 반이 지난 지금까지 貿易과 投資面에서 괄목할 만한 經濟協力關係를 發展시켜 왔다. 이제 이 시점에서 韓中 兩國의 對內外的 環境과 與件의 變化를 展望해 볼 때 兩國간의 보다 緊密한 經濟協力, 특히 投資協力の 必要性和 相互補完性이 새로운 發展的 次元에서 要求되고 있다.

특히 韓國의 立場에서 보면, 中國經濟의 浮上은 韓國經濟에 있어 새로운 競爭關係와 補完的 協力關係라는 兩面性を 提示해 주고 있다. 低廉한 賃金を 바탕으로 先進外國企業의 技術을 이용하여 生産한 中國의 輸出商品은 世界市場에서 韓國의 強力한 競爭者로 登場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世界經濟의 地域主義와 新保護主義의 擴散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韓國經濟에 있어 中國은 새로이 浮上하고 있는 거대한 市場일 뿐만 아니라, 國內 賃金上昇과 産業構造調整에

따른 가장 주목받는 投資進出의 대상으로 浮上하고 있는 것도 틀림없는 事實이다.

이같은 前提下에 한국의 對中國 投資環境의 變遷過程을 살펴 보고, 韓中 投資協力の 必要性을 中國經濟와 韓國經濟의 兩側面에서 檢討해 보며, 世界經濟秩序의 再編과 東北亞地域의 環境變化와 關聯하여 眺望해 보고자 한다. 또한 韓中投資協力の 現況과 特性을 分析해 보고 앞으로 投資規模의 大型化, 投資業種의 多樣化, 投資地域의 多變化 展望을 提示하고자 한다. 그리고 이같은 投資協力の 增進을 위해 解決해 가야 할 課題는 무엇이며, 韓中 兩國은 어떤 자세로 協力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스러운가 하는 方向을 提示하고자 한다.

지금까지 韓國에서 研究된 韓中 投資協力에 대한 論文들이 대부분 中國에 對한 投資環境의 問題點을 分析하고 韓國企業의 進出戰略을 摸索하는 데 力點이 두어 졌다. 그러나 本 論文에서는 韓中 投資協力の 增進을 위하여 兩國이 共同으로 解決해 나가야 할 課題는 무엇이며, 어떻게 互惠的 協力關係를 發展시켜 나가는 것이 바람직스러운가 하는 側面에 보다 關心을 두고 접근하고자 한다.

II. 投資環境의 變化와 協力の 必要性

一般的으로 國家間의 投資協力は 經濟的 必要性和 政治·外交的 關係의 變化가 複合적으로 作用하는 가운데 發展한다. 대체로 兩國間에 要素賦存性和 産業構造의 差異가 存在하고, 이에 相應하는 對內外 經濟政策의 展開過程이 投資協力を 必要로 하는 경우 자연스럽게 投資가 이루어질 수 있다. 또한 兩國間의 政治·外交的 關係發展과 國際 經濟·政治的 環境變化가 投資協力を 促進해 주는 役割을 한다.

韓中間의 投資協력도 이러한 經濟的 必要性和 政治·外交的 關係의 發展이 相互作用을 하면서 兩國이 共同利益을 追求하는 過程에서 擴大發展 되어 왔다. 다

시 말해, 兩國은 주변 國際環境의 變化와 政治·外交의 關係發展이 投資協力の 突破口를 열어 주었다면, 投資協力の 必要性이 關係發展의 牽引車 役割을 해 온 것으로 評價할 수 있다.

韓中關係는 第2次 世界大戰의 終熄과 더불어 韓半島가 南北韓으로 分斷됨에 따라 40여년 以上の 斷折狀態를 持續했다. 그러나 80年代 以後 世界情勢가 冷戰 時代의 對決狀態로부터 벗어나 脫冷戰時代의 和解와 協力秩序로 再編되기 시작 하면서 兩國關係도 새로운 轉機를 맞이했다. 以後 韓國은 社會主義圈과의 오랜 斷折狀態를 清算하고 南北韓 關係의 突破口를 열기 위한 積極的인 北方政策을 推進했으며, 中國은 이미 可視的인 成果가 나타나기 시작한 改革·開放政策을 더욱 加速化함으로서 韓中 兩國은 歷史的인 友好協力關係로 發展할 수 있는 轉機를 잡았던 것이다.

中國이 1978년부터 推進하기 시작한 改革·開放政策은 經濟發展에 필요한 資本과 技術을 外國으로부터 導入하여 國內의 豊富한 勞動力과 資源에 結合시키는 한편, 이러한 發展要素의 合理的 結合에 障礙가 되는 制度와 法令을 市場機能에 맞게 段階的으로 改革함으로써 經濟現代化를 實現하는 데 目的이 있었다. 다만 社會主義體制의 維持를 基本前提로 하면서 外部의 衝擊을 最小化하기 위해 初期 段階의 開放을 香港·마카오·臺灣에 隣接한 深圳 등 4개 經濟特區로 制限하는 發展戰略이었다. 따라서 당시의 韓中交流는 中國 華僑商을 통한 民間次元의 間接貿易으로 시작될 수 밖에 없었다.

이같이 시작된 韓中間의 間接貿易이 한 段階 더 成熟되고 投資協力の 길이 트이게 된 時點은 中國이 1988년 山東省과 遼寧省등 渤海灣地域을 韓國과 日本등을 겨냥하여 開放하게 된 時期라 할 수 있다. 當時 中國은 1984年 開放한 14개 沿海都市의 開發成果를 보다 넓은 隣接地域으로 擴大하기 위한 開發戰略을 加速化하기 始作했던 時期였다. 한편, 韓國은 賃金の 急激한 上昇과 先進國의 通商壓力 등으로 經濟的 어려움이 加重되기 始作하였으며 때마침 韓國政府가 北方政策과 西海岸開發戰略 등을 採擇한 時期와 一致하여 韓中間에는 經濟協力の 공감대

가 形成되어 갔다.

이 時期의 韓中間 貿易은 間接交易에 直接交易이 加味되는 狀態였으며, 投資는 試驗的이고 制限的인 小規模形態로 始作되었으며, 政府間的 經濟協力を 위한 論議도 山東省과 遼寧省의 地方政府를 相對로 始作되었다. 이는 當時 中國이 北韓과의 關係와 臺灣에 대한 統一政策 등을 考慮하여 韓國을 政治的으로 認定하기 어렵다는 立場에서 取한 政·經分離政策의 結果였다.¹⁾

그러나 中國은 1990년 北京 아시안게임을 契機로 從來의 韓半島政策에 伸縮的인 變化의 조짐을 보이기 시작하였다. 그 結果로 1990년 韓中間에는 貿易代表部가 設置되었으며, 연이어 南北韓의 UN 同時加入이 實現되었으며, 1992년 8월 28일 歷史的인 國交正常화로 發展하였다. 韓中修交를 契機로 兩國間에는 貿易協定·投資保障協定·科學技術協定 등이 締結됨으로서 經濟協力は 政府間的 協力段階로 進入하였다. 이 때부터 貿易規模의 伸張은 물론, 直接的인 投資協력도 急速히 增加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이제 韓中修交 以後 약 1년 반이 經過한 지금, 兩國間的 對內外的인 政治環境과 經濟與件의 變化는 보다 緊密한 經濟協力, 특히 投資協력의 必要性和 相互補完性を 새로운 發展的 次元에서 再評價해 주고 있다.

中國은 1992년 10월 第14期 全國人民代表大會에서 社會主義市場經濟體制를 導入하고, 穩建한 改革路線을 追求하는 黨指導部の 立地가 強化됨으로써 改革·開放政策의 深化와 經濟成長의 加速化를 追求하고 있다. 中國은 市場機能의 導入을 明示的으로 提示하면서 國營企業의 經營定常화와 效率性 提高에 焦點을 맞춘 自主經營權을 許容하고 株式會社化하는 改革이 現實化되고 있다. 또한 價格自律化를 全面的으로 實施하는 한편, 外資導入, 租稅, 財政, 金融面의 制度改革과 分權措置를 持續함으로써 市場經濟體制基盤을 공고히 하고 있다.

對外開放의 側面에서는 對象地域과 部門을 대폭 擴大하는 이른바 「全方位開放

1) 金斗鉉, “韓·中經濟協力の 實際와 우리의 對應”, 서울. 經濟企劃院, 1993. p.4.

戰略」을 積極 實行하고 있다. 對外開放地域을 沿海港口都市에서 內陸과 邊境地域으로 점차 擴大하여 全國의 主要 據點都市를 外國企業에게 全面 開放하고 있다. 産業部門에서도 貿易業·流通業·金融業·不動産業 등의 開放으로 連結되는 3次産業의 開放도 推進되고 있다. 한편, 中國은 GATT 加入을 거냥하여 貿易管理制度와 外換制度를 改善하고 分權化하였으며, 先進技術과 經營技法의 導入이 可能的한 外國人 直接投資의 誘致에 力點을 두고 地方政府의 權限을 大폭 強化시켜 주고 있다.²⁾

이같은 政策推進의 結果로 中國經濟는 지난 2년간 年平均 13%의 高度成長을 記錄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높은 水準의 經濟成長을 持續해 나갈 展望이다. 公式的인 1인당 國民所得은 4백달러 未滿의 낮은 水準이지만, 國民總生産規模는 1992년의 4,350억달러, 貿易規模는 1993년에 1,957억달러에 이르는 經濟大國으로 成長하였다. 또한 購買力基準에 의해 評價된 1인당 國民所得은 1,300 내지 2,000달러 수준으로 多樣하게 推定되고 있으며, 沿海地域의 경우는 2,000 ~ 3,000달러에 이를 만큼 高所得의 購買階層이 形成되고 있다는 評價이다.³⁾

이같은 中國政府의 政策推進方向과 擘劃할 만한 開發成果는 對中投資協力の 安定的이고 開放的인 環境과 霧圍氣를 造成해 주고 있다. 또한 全方位 開放政策의 實施와 分權化措置의 持續으로 地方政府와의 協力 必要性을 增大시켜 주고 있으며, 投資協力 對象地域의 多變化를 促進시켜 주는 役割을 하고 있다. 나아가 中國經濟의 高度成長에 따른 購買力の 增加와 內需市場 및 서비스産業의 開放擴大趨勢는 外國投資企業의 內需市場 進出可能性을 增大시켜 줌으로써 投資協力の 動機誘發에 촉진제가 되고 있다.

한편, 韓國의 立場에서 보면 지난 1993년 2월 文民政府의 出帆 이후 國內으로는 變化와 改革政策을 積極的으로 推進하고 있으며, 對外的으로는 國際競爭力

2) 金泰弘, “14全人大會前後의 中國經濟現況과 政策課題”, 서울. 經濟企劃院 WORKSHOP 資料集, 1993. pp.17-19.

3) 金時中, “中國經濟의 過去·現在·未來”, 서울. 對外經濟政策研究院, 1994. p.6.

強化를 위한 國際化와 開放化의 政策基調를 견지하고 있다. 新經濟政策을 推進한지 1년이 經過한 지금 經濟는 活力을 되찾고 있으며, 國際收支는 黑字를 實現함으로써 今年度 經濟成長率은 7% 수준에 이를 것으로 展望되고 있다. 이에 따라 韓國經濟는 競爭力弱화 業種의 高附加價值産業으로의 再編과 輸出市場및 資源導入線의 擴大가 絶實히 要求되고 있으며, 基礎科學및 尖端産業關聯 技術開發의 必要性이 增大하고 있다.

이처럼 새로운 轉換期에 처한 韓國經濟는 새로운 生産基地를 海外로 移轉할 必要性이 增大하고 있다. 勞動集約的인 輕工業分野는 最近에 開放된 中國의 內陸地方이 相對的으로 有利하고, 보다 規模가 큰 重化學工業의 경우는 工業基盤이 發展한 沿海開放都市로 進出할 수 있는 與件이 成熟되고 있다. 韓國企業의 生産基地 移轉은 短期的으로는 國內雇傭및 産業空洞化의 憂慮가 있으나, 長期的으로는 國際競爭力 提高와 産業構造의 高度化에 寄與할 수 있으며, 地理的으로 가깝고 內需市場이 큰 中國과의 投資協力は 相互補完性이 강하다는 인식이 점차 共感帶를 形成하고 있다.

나아가 最近 國際政勢의 脫冷戰秩序가 進展됨에 따라 政治·軍事的 側面보다는 經濟的 側面이 더욱 重要視되는 方向으로 變化하고 있다는 점도 韓中 投資協力の 環境과 霧圍氣를 改善시켜 주고 있다. 특히 美國과 日本을 中心으로 한 先進國간의 貿易不均衡이 深化되면서 地域主義와 新保護主義 傾向이 擴散되고 있다. EC 統合에 이어 北美自由貿易協定이 締結되었으며, 지난 해 末 우루과이라운드協商이 終結됨에 따라 世界經濟秩序가 새로운 貿易機構體制로 再編되어 갈 展望이어서 東北亞의 國際經濟環境도 매우 不安定한 樣相을 보이고 있다. 그런가 하면, 北韓의 核問題가 解決되고 美國과 北韓의 關係改善를 통한 南北韓 交叉承認 構造가 構築되는 경우, 東北亞地域의 새로운 國際秩序 形成을 加速化시킬 展望이다. 이같은 轉換期的 周邊環境의 變化를 考慮할 때 韓中間의 投資協력을 中心으로 한 緊密한 經協關係의 構築은 兩國間의 共同發展은 물론, 東北亞地域의 安定과 多者間 協力體制를 摸索해 나가는 데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役割을

할 것으로 期待되고 있다.

Ⅲ. 投資協力の 現況과 展望

韓中間의 投資協力は 兩國間의 要素賦存性과 産業構造 및 經濟發展段階 등의 差異로 韓國의 中國에 對한 投資가 一方通行의 形態로 推進되었으며, 이같은 趨勢는 相當期間 持續될 展望이다.⁴⁾

韓國企業의 對中國 投資는 1988년부터 從來의 迂廻投資가 直接投資로 轉換되기 시작했으며, 1990년까지는 總 投資件數가 許可基準으로 모두 52件에 不過하였다. 그러나 1991년부터 中國에 對한 投資는 增加하기 始作하여 같은 해에 112件에 5,450萬 달러가 許可되었으며, 韓中修交가 이루어진 1992년에는 269件에 2億 2190萬 달러로 增加하였고, 1993년에는 629件에 6億 2240萬 달러로 急激히 增加하였다.

韓國企業의 對中國 投資는 1993年 末까지 許可基準 累計로 1,042件에 9億 6千萬달러, 實行基準 646件에 4億 7千萬 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여기에는 홍콩 등 第3國을 經由한 迂廻投資가 包含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韓國政府의 許可를 받지 않은 非公式的 投資도 存在하기 때문에 實際 投資는 더 많다고 할 수 있다. 물론, 中國의 立場에서 보면 韓國의 投資件數와 規模는 全體 外國人 投資에서 點하는 比重이 미미한 實情이다. 지난 93年度 中國에 對한 外國人 投資總額은 契約額 基準으로 무려 1,108億 5千萬 달러에 달해 韓國企業의 投資金額은 全體의 0.6%에 不過하다. 그러나 1992년부터 中國은 韓國의 最大 海外投資對象國으로 浮上하고 있다. 지난해 韓國의 對中國 投資가 總 海外投資에서 點하는 比重은 實行件數로는 55%, 實行金額 基準 21%인데 비해, 日本의 對中國 投資는

4) 韓國企業의 對中國 投資推移, 業種別 分布, 地域別 分布 등에 關한 資料는 金時中, “韓·中經濟關係의 現況과 展望”, 서울. 對外經濟政策研究院, 1994 參考.

〈表 1〉 韓國企業의 對中國 直接投資* 推移

(單位 : 件, 百萬달러)

區分	1988-89	1990	1991	1992	1993	累積殘高**
許可基準						
件數	14 (2.3)	38 (7.4)	112 (20.8)	269 (42.6)	629 (59.9)	1,042 (29.9)
金額	13.2 (0.9)	54.5 (3.4)	84.7 (5.3)	221.9 (18.3)	622.4 (33.2)	960.0 (13.5)
件當平均規模	0.9	1.4	0.8	0.8	1.0	0.9
實際投資基準						
件數	7 (1.6)	23 (6.8)	69 (15.2)	171 (34.2)	377 (55.3)	646 (23.7)
金額	6.4 (0.8)	16.0 (1.7)	42.5 (3.8)	141.2 (11.3)	262.4 (20.9)	465.0 (8.6)

註 : ()은 우리나라全體 海外直接投資에 對한 比重(%)을 나타냄.

* 第3國을 거쳐 이루어진 迂迴投資는 除外되어 있음. 이러한 投資는 92年末까지 약 40件이 存在하였음.

** 累積殘高는 減少, 迂迴, 清算 등을 除外한 것임.

資料 : 韓國銀行

金額基準으로全體 海外投資의 1.4%에 不過하다. 이처럼 韓國의 對中國 投資는 規模와 比重面에서 매우 重要한 位置를 點하고 있으며, 앞으로 더욱 急速히 增大될 展望이다. 今年 1月中만 하더라도 韓國의 對中國 投資는 許可基準 64件에 4,170萬달러로 前年同期 對比 件數로 146%, 金額으로 95% 增加하고 있다.

한편, 中國企業의 韓國에 對한 直接投資는 지난 89年 항조우 TV사가 大宇그룹과 오리온 電氣 部品社를 合作設立한 이래 1994年 1月末 現在 總 42件에 1千 109萬달러를 投資하였다. 年度別로 보면 89年과 90년에는 各 1件씩 投資되었으며, 91년에 3件, 92년에 6件이었으나, 지난 해인 93년에는 29件으로 增加했으며, 今年 1月中에도 2件의 合作進出이 있었다. 業種別로는 貿易業이 27個社로 가장 많고, 飲食店은 8件이며, 製造業은 3件에 不過하다.

韓國企業의 對中國 投資業種은 現在까지 勞動集約的인 製造業이 中心이 되고 있지만, 점차 資本, 技術集約業種의 投資도 增加하고 있다. <表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製造業分野에서는 纖維, 衣類, 玩具, 신발, 皮革製品, 電氣·電子部品, 組

<表 2> 中國投資의 業種別 分布*

	件數	比重 (%)	金額 (百萬달러)	比重 (%)
製造業	644	95.4	622.0	94.5
飲食料品	47	7.0	21.5	3.3
纖維·衣類	155	22.9	103.0	15.7
신발·皮革	70	10.4	75.1	11.4
木材·家具	29	4.3	7.9	1.2
종이·印刷	10	1.5	4.6	0.7
石油·化學	37	5.5	30.5	4.6
非金屬鑛物	23	3.4	121.7	18.5
1次金屬	19	2.8	13.9	2.1
組立金屬	73	10.8	93.9	14.3
機械·裝備	21	3.1	25.6	3.9
其他 製造業	155	22.9	119.4	18.1
非製造業	31	4.6	36.1	5.5
鑛業	5	0.7	1.6	0.2
農畜産物	2	0.3	5.2	0.8
貿易業	5	0.7	2.0	0.3
水産業	10	1.5	2.9	0.4
運輸保管業	1	0.2	0.5	0.1
飲食·宿泊業	7	1.0	23.5	3.6
林業	1	0.2	0.6	0.1
總計	675	100.0	658.1	100.0

註：* 1993年 6月末 現在 許可·申告受理 基準

資料：韓國銀行

立金屬業種 등 勞動集約業種에 集中되고 있으며, 그외 化學, 시멘트 등 非金屬鑛物, 機械裝備 등 資本集約業種의 投資도 나타나고 있다. 非製造業에서는 飲食·宿泊業 등에 限定되어 있다.

韓國企業의 對中國 投資는 中國의 內需市場을 겨냥한 投資라기 보다는 現地の 低廉한 勞動力을 利用하여 價格競爭力을 提高시킴으로써 第3國으로의 輸出이나 國內로의 逆輸入을 目的으로 한 投資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特徵으로 인해 國內外에서 輸出競爭力이 急激히 弱화되자 서둘러 中國으로 生産立地를 移轉한 勞動集約의인 小規模 投資에 集中되고 있다.

그러나 最近에는 中國의 投資環境과 與件이 크게 改善되고 있으며, 韓國의 大企業들도 對中國 投資에 積極 나서고 있어 投資規模의 大型화와 投資業種의 多樣化가 期待되고 있다. 中國은 8.5計劃과 10個年 計劃期間中 經濟開發의 隘路部門인 에너지, 交通, 通信 등 社會間接資本과 鐵鋼, 建築資材, 化學, 石油化學 등 國家 基幹産業에 對한 投資를 擴大하고 있다. 中國은 製造業 가운데서도 自動車部品, 플랜트 등 器械部門과 VTR, 音響器機 등 家電産業, 半導體, 컴퓨터 周邊機器, 通信機器 및 航空·宇宙産業 등에 對한 外國人投資와 技術協力を 促進하고 있다.

대체로 이같은 重化學工業分野에서 韓國의 大企業들은 相對的인 比較優位성과 生産技術을 蓄積하고 있으며, 韓中 投資協力에도 關心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VCR, 電子交換器, 오디오 등 電子通信産業, 시멘트, 自動車, 鐵鋼, 精油 및 石油化學産業과 各種 建設事業分野의 投資가 急速히 增加하면서 規模도 大型化 될 展望이다. 또한 中國의 內需市場과 서비스産業 分野도 점차 開放이 擴大되는 趨勢에 있기 때문에 大型流通業, 運輸業, 보관業, 金融, 保險業, 不動産開發 등 分野의 投資로 多樣化될 것으로 豫想되고 있다.

韓國企業의 地域別 分布를 보면, 대체로 中國에 投資한 外國人企業의 70%가 華南地域과 華中地域에 集中되고 있는 것과는 對照的으로 韓國企業의 경우는 渤海灣地域과 東北 3省에 偏重되고 있다. 山東省이 總投資의 약 40% 이상을 차지

하는 最大 投資地域으로 登場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遼寧省, 天津市, 北京市, 黑龍江省 등의 順序로 重要な 投資地域이 되고 있다. 다만 廣東省의 경우 迂迴投資가 集中되어 있기 때문에 實際는 統計보다 많은 投資가 이루어졌을 것으로 推定되며, 華中지역에 대한 投資는 相對적으로 미미하나 江蘇省을 中心으로 늘어나고 있는 趨勢이다.

이처럼 韓國企業이 山東省과 東北 3省에 集中되어 있는 데는 그만한 理由가 있다. 1988年 中國政府가 地理적으로 隣接한 韓國을 對象으로 山東省을 開放하면서 韓國과의 交流에 特惠를 附與하였으며, 山東省 政府도 韓國企業의 誘致에 相當히 積極적이었던 點이다. 특히 1990年 仁川과 威海를 잇는 貨客航路와 仁川과 天津間의 海運航路가 最初로 開設됨으로서 投資가 加速化되었다. 한편, 經濟特區를 中心으로 한 南部地域의 경우는 이미 香港·臺灣·日本企業들이 先占하고 있어 進入障壁이 相對적으로 컸다고 할 수 있다. 東北 3省의 경우는 朝鮮族이 많이 居住하고 있어 意思疏通과 情報收集이 비교적 容易한 점도 作用했을 것이다. 또한 대부분의 韓國 投資企業들이 主要 原副資材를 韓國에서 輸入하여 組立, 加工한 後 다시 逆輸入하거나 第3國에 輸出하는 形態를 띠고 있어 地理적으로 隣接한 地域을 選好하였다고 볼 수 있다.⁵⁾

그러나 韓國企業이 集中的으로 進出した 地域이나 沿海開放地域은 賃金上昇 등으로 生産費가 增加하고 있고, 中國의 全方位 開放政策과 內需市場 開放의 擴大 등에 힘입어 韓國企業의 進出對象地域도 多變化해 갈 展望이다. 특히 中國은 全國을 10大 經濟區로 묶어 各 經濟圈域別로 賦存資源 및 地方特性에 맞는 産業을 誘致, 育成함으로써 沿海地域에 偏重된 地域開發과 産業構造의 劃一化를 是正하기 위한 國土의 均衡發展을 도모하고 있다. 이같은 中國의 政策方向과 韓國投資企業의 進出動機가 第3國 輸出形, 內需指向形, 資源開發形으로 多元化, 大型化됨에 따라 投資對象 地域도 多變化될 展望이다.

5) 對外經濟政策研究院, “中國 便覽”, 1993. pp.541-543.

〈表 3〉 中國投資의 地域別 分布*

	件數	比重 (%)	金額 (百萬달러)	比重 (%)
渤海湾地域	328	48.6	411.9	62.6
山東省	207	30.7	289.0	43.9
天津市	65	9.6	62.5	9.5
北京市	40	5.9	49.4	7.5
河北省	16	2.4	11.0	1.7
東北3省	260	38.5	156.0	23.7
遼寧省	154	22.8	93.7	14.2
吉林省	63	9.3	25.7	3.9
黑龍江省	43	6.4	36.6	5.6
華中地域	38	5.6	47.4	7.2
上海市	9	1.3	13.2	2.0
江蘇省	23	3.4	30.4	4.6
浙江省	6	0.9	3.8	0.6
華南地域	37	5.5	40.0	6.1
廣東省	26	3.9	26.9	4.1
福建省	9	1.3	12.3	1.9
海南省	2	0.3	0.8	0.1
其他地域	12	1.8	2.8	0.4
總計	675	100.0	658.1	100.0

註：* 1993年 6月末 現在 許可·申告受理 基準

資料：韓國銀行

韓國企業이 中國에 進出한 投資形態에 있어서는 다른 나라들에 비해 獨自企業의 比重이 높다는 特徵을 지니고 있다. 1993년 6月末 現在 獨自企業은 모두 302 個 企業으로 44.7%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대부분의 韓國企業이 原資材를 輸入

하고 生産製品을 輸出에 依存하는 形態의 企業運營을 하고 있어 獨自企業을 選好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韓國企業의 中國投資가 規模化, 多樣化하고 現地 原資材 調達과 內需販賣를 겨냥하는 경우, 中國側 投資者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合資企業 形態의 投資를 選好하는 方向으로 轉換될 가능성이 클 것으로 豫想되고 있다.

IV. 投資協力の 課題와 對應方向

韓中 兩國間의 經濟關係는 補完·協力的인 側面과 競合的인 側面이 共存하고 있는 狀況이라 할 수 있다. 第3國 市場에서는 競合的인 性格이 漸增하고 있는 반면, 雙務的 關係에서는 要素賦存性和 經濟發展段階의 差異, 地理的·文化的·隣接性 등으로 相互補完的인 側面이 높다고 볼 수 있다. 특히 韓國의 立場에서는 中國의 高度成長이 隣接한 新市場의 提供과 投資機會의 擴大라는 面에서 韓國經濟의 活力維持에 크게 寄與하고 있다. 그러므로 中國은 韓國企業의 海外投資對象地로서 보다 重要な 位置를 더욱 確固히 해 갈 展望이다.

그러나 韓中間에는 投資協力の 促進과 共同利益의 極大化를 爲하여 相互間에 解決해야 할 問題點과 課題가 적지 않다. 우선 兩國 企業人和 國民間의 올바른 理解와 認識의 幅을 넓혀 가는 것이 무엇보다 緊要하다. 韓中間의 修交를 契機로 各 分野의 交流와 協력이 擴大되고 있으나 그 過程에서 예기치 못했던 많은 問題點들이 露出되고 있는 것도 事實이다. 韓中 合作企業 가운데는 이미 상당한 成果를 올리고 있는 成功企業도 적지 않으나, 經營摩擦, 勞使問題 등 合作經營上의 豫想치 못한 施行錯誤를 經驗하고 있는 企業도 없지 않다. 이는 根本的으로 相對에 대한 理解와 知識이 不足한 데 基因한다고 볼 수 있다. 韓中 양국은 오랜 期間 斷折狀態에 있었고, 政治·經濟體制가 여전히 相異한 점이 많은 데다 傳統的인 價値觀은 물론, 生活態도와 慣習 등에 많은 變化가 있었다. 그러므로

兩國國民과 企業人들은 서로의 民族的 特性, 文化的 傳統, 經濟活動의 行態, 人生觀과 價値觀을 理解하고 協助하려는 努力이 持續되어야 한다.⁶⁾

특히 韓國企業의 경우 아직 中國에 對한 全般的인 理解가 不足할 뿐만 아니라 特히 投資協力の 經驗蓄積이 充分치 못하여 必要的 情報을 必要的 時期에 入手하지 못하고 있는 實情이다. 그나마 提供되고 있는 資料나 情報가 總論이거나 概括적인 內容의 範圍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進出計劃에 實質的인 參考가 되지 못하는 實情이다. 더욱이 中國은 國土의 面積이 넓고 地方分權化가 發達해 있으며 産業別 特性과 變化가 두드러진 편이다. 그러므로 相互間에 必要的 情報와 知識을 交換하고 意見을 조정할 수 있도록 韓中 兩國政府間의 多樣的 協助體制의 構築은 물론, 産業別·地域別 經濟協議會등을 構成하여 運營하는 것도 하나의 解決方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韓中 兩國은 相對國의 經濟 및 制度를 深度있게 研究하는 專門研究機關과 專門家를 積極 養成하여 活用하는 努力이 必要하다.

韓中 兩國은 投資協力を 阻害하고 있는 制度와 慣行을 改善하는 데 더욱 共同 努力할 必要가 있다.⁷⁾ 첫째로 中國企業의 경우 外國投資企業에 對한 收益率에 比해 投資나 投入을 過多하게 要求하는 傾向이 있는가 하면, 韓國企業의 경우는 中國投資를 一擴千金의 機會로 錯覺하는 경우가 있다. 이 모두 바람직스럽지 못한 投資協力の 자세로서 是正되어야 한다. 둘째로 中國政府는 外資企業을 內需市場 保護와 輸出促進이란 中國의 政策意圖대로 이끌어 가기 위해 嚴格한 統制를 實施하고 있다. 여기에 動員된 制度로는 事業許可制度를 통한 事業範圍 管理와 外換管理制度 등이 있다. 韓國政府의 경우도 對中國 投資企業에 對한 事前審査制

6) 文正九, “韓·中經濟 交流現況과 對應方案”, 서울. 韓國北方經濟學會 第8會 學術發表大會 論文集, 1992. pp.14-15.

7) 韓·中 投資協力を 阻害하는 制度와 慣行 등은 白權鎬, “韓國企業의 對中國進出方式 決定要因에 關한 研究”, 韓國北方經濟學會 第10回 學術發表大會 論文集, 1993. pp. 8-13에서 提起한 問題點을 中心으로 韓國과 比較하여 檢討했음.

도와 海外投資에 대한 外換管理上の 制限政策을 適用해 온 것이 事實이다. 그러나 最近 中國政府가 外資企業에 對한 統制方式을 直接的인 方式에서 보다 間接的인 方式으로 轉換하고, 先進技術企業에 對해서는 內需市場進出을 보다 緩和하는 方向으로 推進하고 있고, 韓國政府도 海外投資의 事前許可範圍를 大幅 緩和한 것은 바람직스러운 現狀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現在 韓國企業들은 市場潛在性이 큰 自動車, 電子交換器(TDX) 등의 中國進出을 推進하고 있고, 中國側은 大型 칼라TV 및 브라운管, 半導體, HDTV 등 電子産業과 自動車部品産業 등의 投資進出 및 技術移轉을 希望하고 있으나, 兩側 모두 産業政策上の 理由로 合意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셋째로 中國에 投資하는 外國企業들은 一次的으로 中國 內需市場을 考慮하기 마련이나, 實際로 부딪치는 現實은 內需市場의 保護次元에서 要求되는 輸出義務가 過多하며, 輸出을 하는 경우도 外換決濟가 원활치 못하다든가 輸出金融制度가 未備되어 있는 實情이다. 또한 知的財産權保護의 實質的 不在, 國營企業과의 差別的 待遇와 內需市場 障壁 및 營業範圍制限 등 公正한 市場競爭 與件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것이 中國市場에서 부딪치는 現實的인 障壁이다. 中國이 基本的으로는 外資企業에 對해 매우 友好的인 것이 事實이지만, 이런 問題들은 早速히 解決되거나 改善되어야 한다. 韓國측의 경우도 中國의 社會間接資本 및 資源開發事業, 대형플랜트 등의 合作에 韓國의 大企業이 積極 參與할 수 있도록 政府次元의 長期低利金融을 提供한다든가 大企業, 金融機關, 先進國企業 등과 擘畫을 構成하여 進出할 수 있도록 支援하는 것이 必要하다.

넷째로 中國政府의 外國投資企業에 對한 直接的인 干與는 相對的으로 減少하고 있는 趨勢이나, 中央政府의 分權化措置로 地方政府의 干與가 持續되는 部分도 存在하고 있으며, 地方政府가 獨斷的으로 加하는 壓力이나 準租稅的 經費의 徵收가 흔히 問題로 提起되고 있다. 이는 外國投資企業에게만 該當되는 것이 아니라 國營企業의 경우에도 深刻히 提起되고 있는 問題點이다. 이점에 關해서 中國政府는 韓國의 新政府가 推進하고 있는 政府規制의 緩和措置와 政經癒着과 非

理를 根絶하기 위한 改革政策을 參考로 할 必要가 있다.

韓中 投資協力の 中長期的인 樣相은 中國經濟의 改革·開放과 安定成長의 持續的인 推進과 韓國經濟의 技術 및 產業構造의 高度化政策의 成果에 따라 큰 差異를 보일 것으로 展望된다. 向後 中國經濟가 持續的인 高度成長을 達成하여 産業化된 經濟大國으로 成長하는 것은 窮極的으로 韓國經濟에도 活力을 불어 넣을 수 있는 有利한 與件의 變化이다. 만약 中國經濟가 改革·開放에 失敗하거나 高度成長에 따른 過熱과 인플레이를 適切히 수습하지 못하고 極甚한 不安定과 混亂을 惹起하는 경우, 韓國經濟도 심대한 打擊을 받지 않을 수 없다. 그러므로 中國經濟의 安定成長은 韓中 投資協力の 基本前提가 된다.

한편, 韓國經濟가 앞으로 技術, 產業構造의 高度化를 成功的으로 達成하여 主要한 業種에서 持續的인 比較優位를 創出해 갈 경우, 韓中經濟는 높은 補完性和 相互依存性을 가지며 共同繁榮을 구가할 수 있을 것이다. 現在 韓國이 優位를 保有한 標準化된 製品의 大量生産에 있어서 中國은 빠른 速度로 追擊해 올 것으로 展望된다. 따라서 韓國經濟의 경우 이러한 部門의 技術優位는 오래 持續될 수 없을 뿐 아니라 産業空洞化의 危險性이 나타날 수 있다. 그러나 韓國이 電子, 通信, 自動車, 石油化學 및 主要 서비스業 등에 있어서 持續的으로 技術을 高度化하고 產業構造를 高度化하는데 成功할 경우, 韓中 兩國間에는 持續的인 相互補完的 分業關係가 創出될 수 있다. 이 경우 韓中 兩國의 經濟는 相對方의 成長에서 自國經濟成長의 動力을 提供받는 形式으로 共同의 成長이 可能할 것이다.

끝으로 유럽聯合(EU)의 結成 및 北美自由貿易協定(NAFTA)의 締結 등 地域主義化 傾向과 世界貿易機構(WTO) 體制의 出帆 등 世界經濟秩序의 再編 움직임과 南北韓 關係를 包含한 東北亞政勢의 變化 등이 韓中 投資協力關係의 發展에 重要한 變數로 作用할 것이다. 貿易을 통한 國際競爭이 날로 深化되고 있고, 先進國의 技術保護主義 現狀으로 産業發展을 위한 核心技術의 確保가 점차 어려워지고 있다. 이처럼 어려워지고 있는 國際經濟環境에 能動的으로 對處하기 위해서는 東北亞國家間의 協力이 필요하며, 특히 韓國과 中國의 協力和 主導的 役

劃이 要求되고 있다.

東北亞國家間에는 賦存資源, 産業構造面에서 相互보완성이 크고, 貿易·投資面에서도 相互依存도가 높아 經濟協力を 위한 潛在力이 매우 크다. 그러나 東北아시아에는 公式的인 經濟協力機構가 없을 뿐만 아니라, 아직까지 政府次元에서 이를 위한 實現性 있는 具體的 論議도 進行되지 않고 있다.⁸⁾ 다만 UNDP의 主管下에 論議되고 있는 豆滿江地域開發事業은 政治·經濟體制가 相異한 東北亞國家間에 多者間 經濟協력이 可能한지의 與否를 가늠할 수 있는 試金石이 되고 있다. 그러므로 比較的 中間者的 位置에 있는 韓國과 東北亞經濟協力 및 豆滿江地域開發에 比較的 積極的인 中國이 協力하여 UNDP의 豆滿江地域開發計劃에 積極 參與하고 豆滿江 接境國間에 進行되고 있는 雙務的 開發事業에도 共同參與하는 것이 東北亞經濟協力の 與件과 霧圍氣를 造成하는 데 寄與할 것이다. 또한 東北亞地域의 多者間 協力體制의 構築과 共同繁榮은 韓·中投資協力の 長期的이고 安定的 發展을 爲해서도 바람직스러운 것이다.

특히 東北亞地域의 多者間 協力體制의 構築을 爲해서는 이 地域의 中心部에 位置해 있는 韓半島의 南北韓關係가 早速히 平和와 安定을 回復하는 것이 先決條件이다. 韓半島에는 아직도 冷戰構造가 殘存해 있으며, 美國, 日本, 中國 등 強大國들의 政治的·軍事的 利害關係가 世界에서 가장 複雜하게 얽혀있는 地域이다. 最近 北韓의 核査察問題는 韓半島를 둘러싼 葛藤構造의 複雜性을 그대로 보여 주고 있다. 그러므로 韓半島의 安定과 平和定着은 韓中 投資協力の 增進은 물론, 東北亞地域의 多者間 經濟協力關係의 發展을 위해서 반드시 先決되어야 할 重要한 變數가 아닐 수 없다.

8) 吳勇錫, “東北亞의 新國際秩序와 韓國의 選擇”, 東北亞 經濟圈과 韓半島 發展戰略, 서울. 나라 政策研究會, 1994 p.60.

V. 結論

韓中 兩國間的 投資協力は 韓中修交 以後 政治的·制度的 障礙要因의 改善과 相互經濟的 必要性에 힘입어 急激히 增加하고 있다. 이미 中國은 韓國의 最大 海外投資對象地域으로 浮上하고 있다. 從來 韓國의 對中國 投資가 勞動集約形 小規模投資가 山東省 및 東北 3省 등에 集中되어 있었다면, 앞으로는 大企業과 中小企業의 投資가 同時에 增加하는 規模化가 이루어지고, 重化學工業, 建設業, 서비스業 등 業種의 多樣化와 進出地域의 多變化가 이루어질 展望이다.

이제 韓中 投資協力は 量的으로나 質的으로 한 段階 더 높은 水準으로 發展할 수 있는 轉期를 맞이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 무엇보다도 必要的 것은 兩國의 企業人들이나 一般國民들이 서로에 대한 올바른 認識과 必要的 情報와 知識을 共有하도록 努力하는 일이다. 또한 韓中 兩國의 政府는 投資에 關聯된 法的·制度的 環境이나 霧圍氣를 政策的으로 改善하는 데 더욱 主力할 必要가 있다. 現在 中國에 投資하고 있는 많은 企業들은 勞務管理, 原資材 및 動力確保, 國內金融調達, 內需販賣 등 여러 分野에서 經營上의 隘路를 指摘하고 있으며, 現地 地方政府와의 協助關係에서도 어려움을 呼訴하고 있다. 이런 점들을 早速히 解決하기 위한 共同努力이 必要하며, 아울러 韓國이 自動車, 電子 등 特定産業分野의 投資 進出을 어렵게 하고 있는 政策도 改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韓中 投資協力の 中長期的 展望은 中國經濟의 改革·開放 및 安定成長의 持續的인 推進과 韓國經濟의 技術 및 産業構造의 高度化를 어떻게 成就해 나가느냐에 따라 크게 左右될 것이다. 兩國經濟의 持續的인 安定成長을 위해 共同的 技術開發과 合作投資 등을 통한 長期的이고 相互補完的인 産業協力體制를 構築해 나가야 한다.

中國의 優秀한 人的 資源과 豊富한 物的 資源, 그리고 高度의 科學技術이 韓國의 資本과 産業技術, 그리고 經濟發展 經驗과 적절히 結合되도록 努力하는 것이 必要하다. 또한 兩國은 産業間의 分業體制를 공고히 하면서 産業內의 有機的

인 分業體制도 더욱 擴大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렇게 하는 경우 韓中 兩國의 經濟는 相對國의 成長에서 自國의 經濟成長을 위한 動力을 提供받는 形式으로 共同의 成長과 發展을 追求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끝으로 韓中 投資協力は 東北亞國家間의 域內經濟協力を 促進하는 下部基盤이 될 可能性이 높음으로 地域內 經濟協力構想에 對한 各國의 立場과 戰略을 예의 注視하여 東北亞地域의 國際分業構造에 適合하도록 推進해 나갈 必要가 있다. 最近 東北亞國家間에는 交易과 投資가 急增하고 있으며, 「豆滿江地域開發計劃」 등 地域內 多者間 協力事業도 進展을 보이고 있다. 그러므로 韓中間의 雙務的 投資協力は 물론, 域內의 第3地域에 對한 共同投資進出 등은 東北亞經濟協力の 增進은 물론, 이 地域의 平和定着에도 크게 寄與하게 될 것이다.

參 考 文 獻

- 金斗鉉, “韓·中經濟協力の 實際와 우리의 對應”, 서울: 經濟企劃院(未發表論文), 1993.
- 金成勳, 金泰弘, 沈義燮, 東北亞經濟圈, 서울: 比峰出版社, 1992.
- 金時中, “中國의 外國人直接投資 誘致와 韓國의 進出展望”, 서울: 對外經濟政策研究院, 1991.
- , “韓·中經濟關係의 現況과 展望”, 서울: 對外經濟政策研究院(未發表資料), 1994.
- 金益洙, 對內外 與件變化와 韓·中經濟協力の 新構圖, 서울: 對外經濟政策研究院, 1992.
- 金泰弘, “14全大會 前後의 中國經濟 現況과 主要 政策課題”, 서울: 經濟企劃院(WORKSHOP자료집), 1993. pp.15 - 26.

——, “東北亞經濟協力の 試金石 : 豆滿江開發”, 東北亞經濟圏과 韓半島發展戰略, 서울 : 나라政策研究會, 1994. pp.207 - 244.

對外經濟政策研究院, 中國便覽, 1993.

白權鎬, 投資事例로 본 對中國 投資戰略, 서울 : 對外經濟政策研究院, 1992.

——, “韓國企業의 對中國進入方式 決定要因에 관한 研究”, 서울 : 韓國北方經濟學會 第10回 學術大會 論文集. 1993. pp.2 - 33.

楊平燮·安鐘石, 中國 外國人直接投資 誘致政策의 變化와 韓國의 對中投資, 서울 : 對外經濟政策研究院, 1992.

安鐘石, 韓國企業의 對中投資 實態와 向後 課題, 서울 : 對外經濟政策研究院, 1993.

吳勇錫, “東北亞의 新國際秩序와 韓國의 選擇”, 東北亞經濟圏과 韓半島發展戰略, 서울 : 나라政策研究會, 1994. pp.15 - 98.

千辰換, “中國投資의 得과 失”, 서울 : 經濟企劃院(WORKSHOP 資料集), 1993. pp.55 - 70.

中韓 經濟協力の 新構圖 : 投資側面

蕉 素 芬 司長

(對外貿易經濟合作部 外國投資管理司)

議長님, 紳士 淑女 여러분!

오늘 “中韓 經濟協力 新構圖” 세미나에 참가하여 中韓 양국의 政府機關, 工商 企業界, 學術界 및 저명한 人士와 함께 中韓 양국간 經濟協力の 진일보한 發展을 논의하게 된 것을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본인은 이러한 高次元의 세미나는 매우 의미가 있는 것으로 생각하며 이번 세미나의 成功을 기원합니다.

주지하다시피 中國은 對外開放政策을 실시한 지난 15년 동안 각 분야에서 괄목할 만한 進展을 이룩하였습니다. 특히 최근 몇 년 동안 中國은 鄧小平 동지의 “中國의 特色을 지닌 社會主義 建設”이라는 이념적 지도하에서 中國 共產黨 제 14기 全國代表大會가 “社會主義 市場經濟體制” 建設을 결정하였으며, 8기 全國人民代表大會에서는 이를 憲法에 명기하여 中國의 改革·開放은 새로운 역사적 시기로 진입하게 되었습니다. 작년 10월에 개최되었던 中國 共產黨 제14기 3中全會에서는 또 “社會主義 市場經濟 建設에 있어서의 몇 가지 問題에 관한 決定”을 채택함으로써 中國은 社會主義 市場經濟體制 改革 실시에 대한 중요하고도 구체적인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外資導入은 中國 對外開放政策의 중요한 분야로서 세인이 주목하는 成果를 거두었습니다. 특히 1992년 鄧小平의 南巡講話 이후 中國은 開放擴大 및 外資導入에 관한 일련의 중요한 改革措置를 시행함으로써 外資導入이 크게 늘어나게 되

었습니다. 1992년 한 해 동안 전국적으로 비준한 外資프로젝트 수는 과거 13년간의 누계를 초과하게 되었으며, 實際 外國人投資도 과거 13년의 절반에 달하였습니다. 1993년의 증가 속도는 또 두 배로 늘어나 전국적으로 비준한 프로젝트 수는 83,000건에 달하였고, 協議 기준의 外國人投資額은 1,100억 달러를 넘어섰으며, 實際 外資使用額도 258억 달러에 달하게 되어 위 세 가지 측면에서 공히 1992년에 비하여 두 배로 늘어난 결과를 가져 왔습니다. 이 결과 작년 말까지 전국적으로 비준된 外資프로젝트 누계는 17만 4천건에 實際 外國人投資額은 600억 달러 이상에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外國人投資 導入線은 126개 국가와 지역에 달하여 주로 아시아지역, 특히 홍콩, 마카오지역이 60% 이상을 점하고 있으며, 두번째가 美國, 세번째가 日本, 네번째가 臺灣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外國人投資 規模도 끊임없이 확대되어 작년에는 프로젝트 건당 평균 133만 달러의 外資를 도입하였으며, 특히 美國, 유럽, 日本 등 先進國의 大企業·多國籍企業이 대규모로 中國에 投資를 하였습니다.

外國人投資의 領域 또한 끊임없이 확대되어 특히 3次産業(서비스業, 貿易業)이 크게 늘어났으며, 가장 두드러진 것으로서 不動産 분야는 작년 外國人投資 協議額의 30% 이상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밖에 小賣業, 銀行, 각종 諮問 서비스기구에 대한 外國人投資 또한 빠른 속도로 늘어났습니다.

이미 개업한 8만여 企業 중에서 대부분은 經營狀況이 양호하여 높은 經濟的 效率性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1992년 三資企業의 工業生産額은 2,066億元으로서 전년대비 두 배가 신장되었으며, 就業人數 또한 900만명 이상에 이른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外國人 投資企業의 輸出入도 빠르게 신장되어 1993년의 輸出入總額은 671억 달러로서 全體 輸出入 總額의 34%를 점유하여 中國 對外貿易의 3大 主力의 하나로 성장하였습니다. 특별히 제기하고 싶은 것은 外國人 投資企業은 과거 6~7년 동안 줄곧 外換收支의 均衡 내지 黑字를 나타내어 이들의 對銀行 外換貯蓄

및 外換調節市場에서의 外換處理額이 매년 增加하였습니다. 물론, 이는 일부 外國人投資 資金 流入의 增加에 따라 실현된 것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外國人投資企業의 총체적인 外換收支의 均衡 내지 黑字 유지는 中國으로 하여금 外國人投資企業에 대하여 비교적 자유로운 外換管理政策을 실시함으로써 최근 몇 년 동안의 外國人投資의 급속한 增加를 촉진시킬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中國의 外資導入이 신속히 擴大되어 가는 과정에서 일부 問題點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즉, 일부 지역에서 나타나는 開發區 設立熱氣나 일부 지역에 실시하고 있는 自體的인 優待政策, 相互比較, 越權에 의한 審査·批准, 實際需要의 未考慮, 奢侈스러운 不動産 建築 등이 바로 그 것입니다. 또 일부 기업은 自體資本 不足 또는 運營資金의 不足 등 不合理的로 인하여 企業의 정상적인 生産과 經營에 직접적인 문제를 가져 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발생의 주요 원인은 中央機關의 政策이 적시에 호응하지 못한다에 기인한 것으로서 바로 이러한 점이 外國人投資의 건전한 發展에 不利한 현상일 것입니다. 外國人投資의 더욱 신속하고 건전한 發展을 위하여 우리는 현재 이러한 問題를 성실하게 研究 및 解決해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금년에 들어와 中國은 財政·稅制, 金融, 外換, 投資 등 일련의 중요한 분야에서 중요한 體制改革 措置를 추진하기 시작했습니다. 총체적으로 말하면 이러한 改革은 우리나라의 진일보한 開放擴大 및 社會主義 市場經濟體制의 建設에 매우 중요하고도 적극적이며 깊은 영향을 가져올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상술한 분야의 改革은 반드시 外資政策의 完備 및 改革과 연계되어 나갈 것입니다. 총체적으로 말하면 우리나라의 外資利用에 관한 일련의 法律, 法規 및 政策은 15년의 검증을 거친 것으로서 外資의 대대적인 導入에 있어 성공적이며 효과적인 促進作用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國內外 環境의 變化와 國內 經濟政策의 改革이라는 새로운 추세에 직면하여 과거 십여년 동안의 外資導入 業務에 대한 전면적이고 시의적절한 검토를 거쳐 이번의 經濟體制改革 방침과 外資導入의 진일보한 擴大 요청에 따라 기존의 政策 및 法規상의 개선을 추진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원칙은 첫째로, 外國人投資 誘致의 地域政策과 産業政策을 어떻게 國民經濟發展의 요구와 합치시켜 나갈 것인가에 대해 연구하는 것입니다. 둘째로는 外資導入政策 및 法規를 社會主義市場經濟의 수립과 經濟體制改革의 속도와 어떻게 相互連繫시키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셋째는 각종 제도를 GATT의 관련 規則에 접근시켜 나감으로써 世界經濟와 相互連繫를 강화하고, 外國人 投資企業에 대하여 점진적으로 內國民待遇를 실시할 수 있는 조건을 창조해 나가는 문제입니다. 넷째는 外國人投資에 대한 政策指導와 監督管理를 강화함으로써 일련의 문제점을 제거해 나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정책의 전반적인 목표는 각종 外資政策의 完備를 통하여 外國投資의 지속적이며 빠르고 건강한 發展을 촉진하여 새로운 수준에 도달하도록 모색하고, 外國人投資 産業構造의 合理化와 産業政策 方向의 明確性을 기함으로써 國家의 총체적인 經濟發展 需要에 부응하며, 동시에 外國人 投資企業에 대하여 적법한 監督 및 管理의 進行을 통하여 中外 投資 兩側의 합리적인 權益을 保護하며, 더욱 완벽한 社會利益을 創造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經濟體制의 轉換期에 당면하여 外資政策의 개선이 점진적인 과정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政策의 持續性과 安定性 유지에 유의하며, 投資環境을 더욱 자유롭고 완벽하게 조성해 나가야 함에 주의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최근 國內外的으로 中國의 外換體制改革이 外國人投資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 것인가, 특히 이것이 政策의 後退인가 아니면 環境의 開放인가에 대하여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분명히 말하건데 單一換率制度 채택 및 “外換許可制度”의 “外換賣却制度”로의 改革은 市場經濟를 향하여 큰 발걸음을 내디딘 것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이는 國內의 對外貿易企業에도 유리할 뿐 아니라 外國人 投資企業에 대해서도 유리한 것입니다. 單一換率制度의 실시로 外國人 投資者는 國家告示換率에 따른 換算을 할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外換管理에 있어 外國人 投資企業에게 現金口座를 보유할 수 있게 함으로써 外換收入을 자체적으로 장악할 수 있게 되어 國內의 對外貿易企業에 비하여 여전히 더 많은 優

待政策을 향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稅收體制改革에 있어 內國企業에 대한 企業所得稅를 外資系企業의 所得稅制와 같은 방향으로 改革하였습니다. 外國人投資企業 所得稅는 不變이며, 流通稅 부문에서 50년대에 제정된 工商統一稅가 閉止되고 통일적으로 增置稅(附加價值稅), 消費稅 및 營業稅를 부과하게 되어 稅法의 統一化 및 稅制의 規範化를 실현하여 重複徵收를 피하게 한 것으로서, 이번 改革의 방향은 완전히 정확한 것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이미 비준된 外國人 投資企業의 保護를 위하여 신규 稅制의 실시 후에 納稅負擔이 增加한 企業에 대해서는 신청 및 비준을 거쳐 원래의 稅金을 5년 동안 不變狀態로 유지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다만 기타 몇 가지 분야에서의 改革도 모두 이러한 原則을 지키고 있으나, 일부 實施細則이 아직 나오지 않은 관계로 일부 不安을 갖고 있는 점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본인은 이번 改革이 새로운 것으로서 경험은 부족하나 영향을 미치는 범위가 넓고 정책적인 면이 강하며 매우 민감한 문제라는 점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일련의 완벽하고도 실현 가능한 구체적인 방안의 생산도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中國政府 내의 關聯機關은 조속한 시일내에 완벽하고도 합리적인 實施細則을 제정하여 더욱 완벽한 投資環境과 政策의 開放을 실현하고 投資者의 걱정을 덜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韓國企業의 對中國投資 실태와 관련하여 본인은 몇 가지 統計를 제시하고자 합니다. 韓國企業의 對中投資는 1985년에는 겨우 프로젝트 한 건에 投資額이 14.5만 달러였던 것이 1993년 9월 말까지 계약기준 누계로 2,153건에 投資契約額이 14.66억 달러에 도달하였습니다. 韓國企業의 對中投資는 이미 韓國企業의 海外投資에서 수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中國에서의 위치는 싱가포르에 이어 프로젝트 數로는 6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특징은 中韓修交 후에 投資件數가 배로 늘어났고, 投資業種과 投資地域도 진일보하여 擴張되었으며, 投資規模 또한 擴大되었습니다. 投資額이 수억 달러 또는 수십억 달러에 달하는 大型 프로젝트 및

하이테크, 뉴테크 프로젝트도 현재 상담 또는 건설중에 있습니다.

물론, 이처럼 빠른 발전 속에 일련의 부족한 점도 존재하고 있는 바, 많은 韓國企業이 中國의 投資法規에 대한 이해가 충분치 못한 데다가 投資規模의 矮小, 低次元, 地域偏重 등이 나타나고 있으며, 일부기업의 勞動條件의 劣惡, 勞動力 使用契約의 未締結, 企業 經營管理의 落後로 인하여 勤勞者의 權益을 침범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으며, 또한 企業의 生産經營과 投資效率에 나쁜 영향을 가져 오고 있기도 합니다.

韓國企業의 對中國投資의 미래를 전망해 보면, 확실히 시작은 늦게 하였으나 發展은 빨라 매우 좋은 展望을 갖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中韓 양국의 經濟는 일정수준의 巨視的 基礎 위에 매우 강력한 相互補完性을 갖고 있어 韓國企業의 對中投資가 확대될 수 있는 여지를 갖고 있습니다. 韓國企業의 對中投資의 빠른 발전을 위해 다음과 같은 몇 가지 건의를 하고자 합니다.

첫째, 中韓 양국 政府는 韓國企業의 對中投資를 더욱 중시하고 많은 지원을 하여야 하며, 필요시 상응하는 投資促進機構를 설치하여 착실한 업무추진을 전개하고, 韓國企業의 對中投資에서 직면하는 문제에 대한 共同 調查研究 및 解決을 모색하여 그들의 經濟效率과 管理水準의 向上을 적절히 지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 産業 및 技術 분야에 대한 特別優待政策을 시행하여 韓國企業의 투자를 先進技術 및 商品輸出型 프로젝트와 老朽企業 改造 및 大·中型 인프라 프로젝트 그리고 관련 原·副資材 및 部品生産과 農業開發 프로젝트에 유도하고, 大型 企業으로 하여금 中國이 시급히 필요로 하고 있는 에너지, 交通, 化工, 自動車, 電子, 航空 및 電子交換機 등의 영역에 투자토록 장려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 양국 高位級 指導者의 相互訪問을 적극 추진하고, 工商界, 企業界, 金融界, 學術界 등 분야의 高次元의 人士交流를 추진하여 양자간 經濟協力 理論과 實踐課題를 共同으로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넷째, 情報交換과 工商界, 企業界 人士의 往來 및 業務研修 강화를 위한 환경

을 조성하여 각종 情報, 諮問 및 서비스를 제공토록 해야 합니다.

현재 中國은 活力이 넘치고 競爭力으로 충만한 市場을 갖고 있으므로 세계적으로 投資가 집중되는 곳의 하나로서, 中韓 양국 政府와 工商界, 企業界 및 자리를 함께 해 주신 여러분의 共同努力이 뒷받침 된다면, 韓國企業의 對中投資는 後發進出國으로서의 弱點을 극복하고 中國의 改革開放의 물결 속에서 훌륭한 成果를 거둘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第 2 主題

韓中貿易

韓國側：千 辰 煥

韓中 交易現況과 向後 展開方向

中國側：鄭 敦 訓

中韓 經濟貿易關係의 現況과 展望



韓中 交易現況과 向後 展開方向

千 辰 煥 社 長
(럭키금성 海外事業推進委員會)

I. 序 論

韓國과 中國 頂上이 이곳 北京에서 회담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는 역사적인 韓 中國交 正常化 이후 19개월만에 이룬 또 하나의 쾌거라 할 수 있겠습니다. 돌이켜 보건대, 양국이 이처럼 긴밀한 관계를 맺게 된 데는 무엇보다 지난 '88년을 전후로 활발해지기 시작한 경제교류가 크게 작용했다고 생각합니다. 예컨대, 작년 한 해 동안 韓中 교역량은 90억 8천만 달러(직교역 기준)를 기록하여 中國은 韓國의 3대 교역국, 韓國은 中國의 6대 교역국에 이를 정도로 양국의 교역관계는 급속히 진전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양국은 이제 서로의 경제발전을 위해 뗄 수 없는 관계가 되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더욱이 韓中 양국은 지리적 인접성, 경제발전 단계상의 협력 필요성, 東北亞 經濟圈의 가시화 등 여러 이유에 의해 향후 가장 중요한 경제 파트너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그간 양국의 교역현황을 재점검하고, 향후 경제협력의 전개 방향을 간략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II. 韓中交易 現況

1. 교역량 추이 (<表 1> 참조)

70년대까지 韓中交易은 극도로 미미했습니다. 정치적 이유로 인해 양국이 홍콩 등 제3국을 통한 소규모의 간접교역을 하는데 그쳤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中國이 改革·開放政策을 공표한 '79년부터 본격적인 교역의 길이 열리기 시작하여 '85년 이후 양국 교역이 크게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편의상 '85년 이후 양국 교역발전을 3단계로 나누어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단계는 中國의 對外開放政策이 본격적으로 전개된 '85년부터 '88년 서울올림픽 기간 前後까지의 시기입니다. '85년으로 접어들면서 中國은 급격한 개방에 따라 固定資産 投資가 과열되고, 所得增加에 의한 消費需要가 대폭 증가했습니다. 이에 中國은 수입선 확보 차원에서 인접한 韓國과 교역을 대폭 확대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수치상으로 보더라도 '85년 양국의 교역량은 '79 - '84년까지의 6년간 총 교역량에 상당하는 11억 6천만 달러를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 이 시기는 양국의 교역이 크게 증가하게 되는 진입단계라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2단계는 '88 서울올림픽 前後로부터 '92년 兩國 國交가 정상화된 시기까지입니다. 서울올림픽을 계기로 '88년 양국의 交易規模는 그 전해보다 무려 84% 증가한 30억 8천만 달러를 기록하면서 양국은 서로의 10대 교역 대상국으로 부상했습니다. 또한 '91년에는 양국 무역대표부 개설로 인해 산만했던 협상창구가 일원화되고 직교역 방식이 급증하는 등 교역환경이 대폭 개선됨으로써 한 해 동안 58억 1천만 달러라는 놀라운 교역실적을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바야흐로 이 시기는 양국 交易이 直交易 중심으로 전환되면서 量·質的으로 발전한 단계라 볼 수 있겠습니다.

3단계는 '92년 兩國 國交가 정상화된 시기 이후입니다. '92년 2월에 체결된 韓中 貿易協定에 의해 차별관세가 철폐되고, 그 해 8월 역사적인 韓中修交가 수립

됨으로써 양국 무역은 폭발적인 확대 국면을 맞게 되었습니다. '92년중 양국의 교역량은 간접교역을 포함하여 82억 2천만 달러를 기록했으며, 작년에는 직교역만 90억 8천만 달러를 달성했습니다. 이 수치를 기준으로 할 때, 이제 中國은 미국, 일본에 이어 韓國의 제3위 교역대상국이 되었으며, 韓國은 일본, 홍콩, 미국, 대만, 독일에 이어 中國의 제6위 교역대상국으로 올라서게 된 것입니다. 곧 二重課稅 防止協定이 정식 체결되면 교역량은 한층 증가되리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 시기는 양국의 교역이 수직 상승에 이르는 단계라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교역확대를 무역수지 측면에서 보면, 직교역 기준으로 '88년부터 中國이

<表 1>

韓國의 對中國 交易推移

(단위 : 백만달러)

	총교역규모		수 출		수 입		무역수지	
	간접교역 포 함	직교역	간접교역 포 함	직교역	간접교역 포 함	직교역	간접교역 포 함	직교역
1979	19	6	4	0	15	6	-11	-6
1980	188	41	115	15	73	26	42	-11
1981	280	75	205	5	75	70	130	-65
1982	139	97	48	6	91	91	-43	-85
1983	120	74	51	5	69	69	-18	-64
1984	434	222	229	17	205	205	24	-188
1985	1,161	518	683	40	478	478	205	-438
1986	1,289	744	668	123	621	621	47	-498
1987	1,679	1,077	813	211	866	866	-53	-655
1988	3,087	1,759	1,700	372	1,387	1,387	313	-1,015
1989	3,143	2,142	1,438	437	1,705	1,705	-267	-1,268
1990	3,821	2,853	1,553	585	2,268	2,268	-715	-1,683
1991	5,812	4,444	2,371	1,003	3,441	3,441	-1,070	-2,438
1992	8,218	6,379	4,493	2,654	3,725	3,725	768	-1,071
1993	-	9,080	-	5,151	-	3,929	-	1,222

註 : 간접교역을 포함한 한중 교역액은 국세청 통계와 홍콩정청 통계를 합한 금액임.

매년 10억~24억 달러의 흑자를 보이다가 지난 해에만 12억 2천만 달러의 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93년중 韓國이 中國에 대해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한 이유는 크게 中國측의 요인과 韓國측의 요인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습니다. 中國側의 요인으로는 경제가 급성장함에 따라 대외 수입수요가 급증했으며, 韓國商品에 대한 차별관세 등이 철폐되어 교역환경이 대폭 개선되었기 때문입니다.

韓國側의 요인으로는 中國과는 달리 경제가 침체되어 대외 수입수요가 감소하였으며, 농산물 등 일부 對中 주종수입품에 대한 수입여력이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 韓國경제가 다시 회복기로 들어서고 있고, UR 타결로 시장개방 폭이 확대될 경우, 양국간의 무역수지는 다시 균형을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결국 한중간의 무역수지는 양국의 정치·경제적 상황에 따라 소폭의 흑자와 적자를 되풀이하는 양상을 보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2. 교역품목 추이 (<表 2> 참조)

韓中교역은 國交가 수립된 '92년부터 그 물량이 급증했을 뿐만 아니라, 품목에도 변화를 보이고 있습니다. 예컨대, 韓國의 '91년 對中 輸出品目은 섬유류, 화학공업 제품, 철강·금속제품 順이었으나, '92년에는 철강·금속제품, 화학공업제품, 섬유류 順으로 역전된 것입니다. 특히 '93년에는 기계 및 자동차의 수출이 前년대비 473%나 증가하여 철강·금속제품에 이어 2위 품목으로 급상승하는 등 중공업 제품의 비중이 전체 對中 輸出品目的 3/4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韓國이 中國으로부터 輸入하는 농수산물, 섬유류, 광산물 등 제1차 혹은 경공업제품은 전체 對中 수입품목중 60%대 정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韓國과 中國이 經濟發展 段階上의 相異로 인해 양국 교역에 관한 한 비교우위와 상호보완 관계를 강하게 보이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즉, 韓國의 對中 輸出品目은 주로 자본기술적 상품이며, 對中 輸入品目은 노동집약적 상품이

〈表 2〉 韓國의 對中國 品目別 수출입 현황

* 對中輸出

(단위: 백만달러, %)

품 목 명	1992		1993		비 중
	금 액	증가율	금 액	증가율	
철강·금속제품	858	455.0	1,125	31.1	21.8
기계류·운반기기	185	142.1	1,058	472.8	20.5
섬유류	458	63.0	801	74.9	15.6
화학공업제품	520	165.5	731	40.6	14.2
비금속광물제품	182	231.7	470	158.0	9.1
전자 및 전기	209	69.5	468	124.2	9.1
플라스틱·고무	179	115.3	350	95.9	6.8
생활용품	33	142.4	71	117.8	1.4
일차산품	16	19.0	43	166.0	0.8
잡제품	15	119.5	35	127.0	0.7
계	2,654	164.7	5,151	94.1	100.0

註 : KOTRA 자료, '94. 1

* 對中輸入

(단위: 백만달러, %)

품 목 명	1992		1993		비 중
	금 액	증가율	금 액	증가율	
농림수산물	1,239	17.6	1,223	-1.2	31.1
섬유류	813	21.6	989	21.7	25.2
광산물	519	32.9	536	3.3	13.7
화학공업생산물	567	-24.9	447	-21.2	11.4
전자·전기	133	123.6	257	93.7	6.5
철강·금속제품	272	-28.5	238	-12.5	6.1
기타제품	111	66.7	172	55.2	4.4
기계류·운반기기	71	6.0	65	-8.6	1.7
기타	0.4	96.4	0.4	-1.2	-
계	3,725	8.3	3,929	5.5	100.0

註 : KOTRA 자료, '94. 1

주종을 이루고 있어서 비교우위에 입각한 교역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한 섬유류 및 화학공업 제품의 수출과 수입이 동시에 활발히 이루어지기도 하는데, 이 현상은 양국 교역이 수직 뿐만 아니라 수평적으로도 상호보완적인 면을 지니고 있음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3. 교역형태 추이

앞에서도 언급한 바 있지만, '91년에 韓中 양국이 무역대표부를 설치하고 '92년에 貿易協定으로 인해 차별관세가 철폐되면서 직교역이 급증했습니다. 특히 韓國의 對中 輸出面에서 직교역 추이를 보면, '90년도에 5억 8천만 달러에 불과했던 것이 '91년도에는 거의 두 배에 가까운 10억 달러를 기록하고, 이후 매년 두 배 이상씩 급증, '93년에는 51억 5천만 달러의 對中 直輸出 실적을 달성했습니다. 이로써 양국은 間接交易時 추가되는 營業外 費用 등이 절감되어 상품의 경쟁력을 높이는 긍정적 효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는 결국 양국의 경제발전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리라 생각합니다.

Ⅲ. 향후 韓中交易의 展開方向

이상 韓中交易의 현황을 실적, 품목, 형태별로 살펴 보았습니다. 그러나 兩國交易에는 아직 관세 및 비관세 장벽 등 극복해야 될 몇 가지 사항이 가로놓여 있습니다. 이에 양국 교역의 문제점과 향후 협력 전개방향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1. 韓中交易의 문제점

우선 中國의 관세 및 비관세 장벽으로 인해 中國시장 접근時 어려움이 많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무역협정으로 차별관세가 철폐되기는 했지만, 대부분의 완제품 소비재에 高率의 수입관세를 부과하고 있어 시장확대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예컨대, 자동차는 180%, 냉장고 및 TV는 100%라는 고율의 관세가 적용되는 실정입니다. 또한 자동차, 컴퓨터 등 37개 품목에 대해서는 엄격한 수출허가증 발급제도를 운영하고, 대부분의 소비재 수입이 국무원의 내부지침에 의해 엄격히 통제되고 있는 등 비관세 장벽도 심각합니다. 따라서 中國이 自國産業 보호를 위해 필수불가결한 예외조치를 제외하고는 이러한 장벽을 완화 내지 철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韓·中間 輸出入 標準契約書가 미비하여 교역에 장애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양국 교역시 中國측에 유리한 조항(선적수속, 품질보증, 중재 등)을 담고 있는 中國측 계약서를 사용하고 있어서 韓國측에 상대적으로 불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양국 정부간 협상을 통해 표준계약 조항집을 마련해 공정한 계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 中國의 작은 경제정책 변경과 법규정의 모호한 적용으로 인해 교역확대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와 아울러 통관행정이 신속하지 못하고 운송 일정이 불확실해 물품 인도가 지연되는 등 각종 문제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물론, 韓國측에도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 중에서도 농수산물과 잡제품 등 20여개 품목에 대해 調整關稅를 부과한 것은 양국의 교역확대라는 거시적인 안목에서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韓國 정부가 일부 제품에 대해 조정관세를 부과한 것은 中國산 제품의 유입으로 많은 중소기업과 농민들이 도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韓國은 지금 산업구조조정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아마도 산업구조조정이 마무리될 무렵에는 調整關稅도 철폐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2. 韓中交易의 전개방향

이러한 韓中 교역상의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양국은 경제발전 단계의 차이로 인해 경제적 상호의존도가 높으므로 교역이 무한히 확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지리적 인접성과 향후 東北亞 經濟圈의 가시화 등을 고려할 때, 交易擴大는 필연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韓國으로서는 中國의 공업화 계획에 참여, 사회간접자본 기자재 및 플랜트 수출에 역점을 둬으로써 자본재 공급국으로서의 지위를 확립하고, 세계 자원시장의 불안정에 대비한 자원조달 대상국의 다변화라는 측면에서 中國과의 교역확대가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수출 드라이브의 경제개발 전략을 추진하고 있는 中國 입장에서도 韓國市場 진출은 해외시장 확보 측면에서 중요하다고 봅니다. 특히 中國은 노동집약 상품이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데다, 우루과이라운드 타결에 따라 對韓 農産物 輸出 市場이 확대되면 韓國에 대한 수출이 크게 늘 전망입니다.

다시 말해, 韓國으로서는 産業의 構造 高度化와 高附加價値 商品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中國으로서는 高度 成長과 輸出市場 擴大라는 측면에서 양국이 서로 교역을 늘려야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향후 韓國은 中國에 대해 사회간접자본 기자재, 기계, 전자 부품(반도체 등) 분야를 중심으로 수출을 확대하는 한편, 中國은 韓國에 대해 농수산물, 광산물, 전자제품의 수출을 늘림으로써 산업발전 단계상의 협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물론, 韓中の 교역확대가 韓國측으로서는 부메랑 효과를 당할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미 양국은 주요 선진국 시장에서 노동집약적 분야 뿐만 아니라, 家電 등 기술집약 업종에 이르기까지 경쟁관계가 심화되고 있는데다, 韓國이 투자한 업체 제품의 상당수가 韓國에 역수출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종합적으로 판단해 볼 때, 양국의 교역확대는 긍정적인 國際分業 體制를 구축하면서 양국의 經濟를 발전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므로 향후 양국의 교역관계는 상호 필요성과 발전전략의 여하에 따라 동반

자 혹은 경쟁자적 측면이라는 양립형태로 나아갈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이제 양국은 절대적인 협력과 신뢰의 구축을 통하여 상호 발전을 도모해야 할 것입니다.

IV. 結 語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韓國과 中國은 최근 交易이 量과 質的인 측면에서 급속히 확대되고 있으며, 이는 양국의 경제발전 단계를 고려해 볼 때 共存·公營의 차원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특히 양국은 거리적인접성과 東北亞 경제권의 주요 국가라는 점에서 교역확대가 필수적으로 전개될 수 밖에 없습니다. 물론, 각종 경제관련 협정과 수교가 실현된 후에도 관세 및 비관세 장벽 등이 제거된 것은 아니지만, 양국의 교역추이와 경제 목표 및 성장 속도 등 여러 정황을 볼 때 국제분업체제를 형성하면서 교역확대를 가속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양국은 韓中 頂上會談을 계기로 교역확대의 중요성을 재인식하고 이에 걸림돌이 되는 사항들을 함께 개선함으로써, 상호 신뢰와 협력을 도모해야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中韓 經濟貿易關係의 現況과 展望

鄭 敦 訓 總裁
(中國化工進出口總公司)

I. 序 論

議長님, 紳士 淑女 여러분!

韓國 對外經濟政策研究院과 中國 國際信託投資公司가 공동으로 주최한 “中韓 經濟協力 新構圖” 세미나에 참가하여 中國 貿易業體를 대표하여 “中韓 經濟貿易關係의 現況과 展望”이라는 주제로 발표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본인의 발표는 1) 中韓 經濟貿易關係 發展의 堅실한 基礎가 되는 中國經濟의 지속적인 高度成長, 2) 中韓 經濟貿易關係의 相互補完性和 發展過程에 존재하는 問題, 3) 中韓 經濟貿易關係 發展의 展望의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 中韓 經濟貿易關係 發展의 基礎가 되는 中國經濟의 지속적인 高度成長

中韓 經濟貿易關係 發展의 중요한 추진력은 中韓 두 나라 自國經濟의 發展입니다. 中國에 社會主義 市場經濟라는 새로운 체제의 확립이 목표로 설정된 이래 巨視的 經濟調節體制와 微視的 企業制度의 개혁이 연계된 종합적 改革을 통하여 市場經濟의 기본틀은 이미 형성되어 中國經濟는 持續的인 고도성장의 궤도에 진입하였습니다.

1993년 중국의 國內總生產値는 31,380억원에 달하여 전년대비 13.4%가 성장하였는 바, 그중에서 工業은 21.1%, 農業 및 食糧 부문은 3.1%씩 성장하였습니다. 中國의 經濟成長에 따라 對外經濟貿易도 신속히 發展하였습니다. 1993년의 輸出 入 總額은 1,958억 달러로서 전년대비 18.2%가 늘어났습니다. 또한 外資誘致도 더욱 급속히 늘어나 1년간 實際利用外資額은 367.7억 달러로서 전년대비 91.5%가 늘어났으며, 그중에서 外國人의 實際直接投資額이 257.6억 달러로서 130%가 늘어났습니다. 1993년의 經濟成長의 기초 위에서 1994년의 中國經濟는 여전히 비교적 높은 成長速度를 유지할 것으로 보여 國民總生產値는 9%의 成長을 이룰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對外貿易額도 2,000억 달러에 달하여 國民經濟 成長速度보다는 약간 높은 9.8%의 成長이 전망됩니다. 中國經濟의 高速成長은 반드시 中韓 經濟貿易關係 發展의 堅실한 基礎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2. 中韓 經濟貿易關係의 相互補完性和 發展過程에 존재하는 問題

中韓 양국은 모두 東方文化의 범주에 속하고 있습니다. 두 나라 공히 儒家思想의 영향을 받았고 悠久한 歷史를 보유하고 있으며, 두 나라 모두 강렬한 民族精神과 불굴의 鬪志를 갖고 있으며, 民族經濟를 發展시키고자 하는 강렬한 희망과 결심을 갖고 있습니다. 韓國은 經濟의 高速成長 時期가 있었고, 中國經濟도 이미 高速成長의 時期로 진입하였습니다. 게다가 양국은 바다를 사이에 둔 이웃입니다. 이러한 요소는 양국간 經濟貿易關係의 發展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입니다.

中韓 양국 企業은 비교적 좋은 관계를 갖고 있는 바, 中韓修交 前 양국의 經濟貿易關係는 양국 企業間의 貿易을 시발로 하여 民間貿易 方式을 통하여 相互間 接觸을 시작하였습니다. 1992년 8월 24일 中韓 양국이 公式的인 外交關係를 수립한 이후에는 양국간의 直接貿易關係는 안정적으로 발전하였습니다. 中國 稅關 統計에 따르면 1992년 中韓 양국간 貿易額은 50.28억 달러로서 전년대비 55%

가 신장되었고, 1993년에는 82.2억 달러로서 전년대비 63.5%가 신장되었으며, 中國側이 25억 달러의 貿易逆潮를 기록하였습니다. 그 결과 中國은 이미 韓國의 3大 交易國이 되었으며, 韓國은 中國의 對外貿易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4위(홍콩과 臺灣지역을 제외할 경우)를 기록하여 양측은 이미 상호간에 중요한 交易파트너 관계를 구축하였습니다.

中韓 經濟貿易關係의 發展 과정에서 양국 企業의 공로는 결코 잊을 수 없습니다. 현재 中國企業이 韓國에 설치한 機構는 36개소에 달하고 있으며, 韓國企業이 中國에 설치한 기구도 100여개소에 달하고 있습니다. 1992년 초에 ‘中國化工進出口總公司’는 韓國에 ‘中化韓國支社’를 설치하여 가장 빨리 中韓 經濟貿易關係를 發展시킨 企業의 하나가 되었습니다.

中韓 經濟貿易關係의 發展 과정에서 韓國의 對中國 投資는 매우 중요한 지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韓國企業의 對中投資는 1985년부터 시작되어 1992년중에 빠른 發展을 보였는 바, 1993년 9월 말 현재 中國이 비준한 韓國의 對中投資 프로젝트는 2,153건에 달하고 있으며, 계약기준의 韓國側 投資額도 14.98억 달러에 이르고 있습니다. 中國의 對韓國 투자프로젝트는 11건으로 주로 輸送, 貿易 및 서비스업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中韓 經濟貿易關係의 신속한 發展은 양국 經濟의 相互補完性을 극명하게 보여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相互補完性은 대체로 다음의 두 가지 분야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첫째, 양국 經濟的 利益의 相互補完性입니다. 中韓 經濟貿易關係의 신속한 發展의 근본원인은 양국 경제발전 과정에서 나타나는 經濟的 利益의 相互補完性입니다. 中國은 國土가 넓고 人口가 많으며 資源이 풍부하여 일찌기 비교적 완결된 工業體系를 구축하였으나, 經濟發展의 전체적 수준은 아직 落後되어 있습니다. 韓國은 國土面積이 좁고 資源과 勞動力이 비교적 缺乏되었으나 經濟가 비교적 發展하였고 技術水準도 비교적 先進化되어 있는 바, 이 점이 양국의 經濟發展에 있어 相互補完的인 관계를 갖게 해 주고 있습니다. 中國經濟의 입장에서 본

다면, 빠른 成長과 확대된 中國市場은 外國企業의 發展에 있어 광활한 空間을 제공하고 있으며, 12억 人口는 外國企業의 中國內 活動에 있어 상대적으로 低廉한 勞動力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中國經濟는 外國의 資本과 技術을 필요로 하고 있으며 韓國의 自動車, 造船, 電子 등 분야의 技術은 비교적 先進化되어 있어 이 분야에서 中國市場을 開拓할 수 있을 것입니다. 韓國經濟 發展의 입장에서 본다면, 經濟發展과 産業構造의 改編에 따라 新素材, 新에너지, 情報, 遺傳工學, 電子, 航空技術 및 産業을 우선 發展시키하고자 하는 바, 이 분야에서 中國은 技術과 人力面에서 韓國과 協力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양국 經濟發展 과정에서의 이러한 相互補完性은 中韓 양국 企業間의 經濟貿易關係에 중요한 基礎를 제공하고 있으며, 더우기 양국 經濟의 發展에 대해서도 강력한 推進力을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 양국의 交易商品의 구조가 相互補完性을 갖고 있습니다. 韓國의 경우 輸入面에서는 原資材, 機械設備, 原油 및 穀物이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으며, 輸出面에서는 電子, 纖維, 鐵鋼, 自動車, 船舶 등의 완성품이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中國의 경우에는 주로 機械設備, 工業用 原料, 農業用 物資를 輸入하고 있으며, 輸出 품목은 原料, 燃料, 化工, 紡織 및 輕工業 製品, 農産物 등이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러한 양국의 貿易構造는 서로간에 相互補完性을 갖고 있음을 충분히 보여 주고 있습니다.

中韓 經濟貿易關係는 총체적으로 迅速히 그리고 健康한 發展을 보여 주고 있으나, 양국은 經濟貿易關係의 發展 과정에서 일련의 극복해야 할 문제도 갖고 있습니다.

우선, 韓國은 中國이 수출하는 일부 상품에 대하여 調整關稅를 부과하고 있으며, 동시에 中國의 일부 상품에 대하여 反덤핑關稅를 부과하고 反덤핑調查를 실시하고 있는 바, 이는 中韓 經濟貿易關係에 좋지 않은 영향을 주고 있을 뿐 아니라 양국의 貿易規模와 貿易領域의 擴大에도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또한 韓國의 일부 貿易商社는 양국간 貿易에 있어 長期的인 經濟貿易關係의 發展을 소홀

히 하고 短期的인 投機를 조성하며, 어느 商社는 계약 집행시에 信用을 저버려 비교적 많은 貿易紛糾를 조성하고 있는 바, 이 또한 양국간 經濟貿易關係의 發展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韓國의 對中投資規模는 대부분이 中·小型 프로젝트가 주종을 이루고 있는 바, 향후 大型 프로젝트로 發展되기를 희망합니다.

다음으로 中國의 對外貿易企業도 韓國과의 交易 과정에서 극복해야 할 문제가 있는 바, 예를 들면 輸出商品의 水準을 높인다거나 品質을 改善하는 문제 그리고 企業의 業務 效率性 落後, 政府機構의 商業行爲, 企業經營體制의 國際化 등 문제의 해결을 통하여 國際慣例에 따른 經濟貿易關係의 發展에 기여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3. 中韓 經濟貿易關係 發展의 展望

中韓 양국의 經濟發展에 있어서의 相互補完性은 中韓 經濟貿易關係 發展의 必要性을 결정적으로 대변하고 있습니다. 금년 中國은 財政·稅制, 金融, 投資, 對外貿易體制 등 분야에서 일련의 改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中國의 市場經濟體制는 더욱 성숙되어 中韓 經濟貿易關係의 發展에 있어 유리한 環境을 제공하고 있는 바, 향후 두 나라간의 經濟貿易關係 發展은 매우 밝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양국간 經濟協力 분야에서 韓國企業의 對中投資는 현재의 中·小型 프로젝트에서 에너지, 交通, 通信, 原資材, 石油化學, 機械, 電子 분야의 大型 프로젝트로 發展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분야에서 投資協力이 전개되어야만 中韓 經濟協力的 중요한 방향을 開拓할 수 있을 것입니다.

貿易 분야에서 양국은 현재의 基礎 위에서 電子製品, 自動車, 造船, 石油, 化學 등 분야의 교역으로 擴大시킬 수 있을 것이며, 특히 컴퓨터, 核에너지, 遺傳工學 등의 하이테크 영역으로 협력을 진일보하게 深化시켜야 할 것입니다. 양국간 貿

易關係는 반드시 長期的인 協力을 지향하여 長期的이고 安定的인 協力關係의 形成 및 長期的인 市場開拓을 추진해야 할 것이며, 단기적인 투기행위를 지양해야 합니다.

貿易逆潮의 改善을 위하여 韓國은 中國企業에 대하여 市場開放을 확대함으로써 中國으로부터의 輸入을 증대시켜야 할 것입니다. 즉, 互惠平等, 相互協力, 長期的 發展이 양국간 貿易의 기본 출발점이 되어야 합니다.

地域經濟協力 분야에서 양국은 바다를 공유하고 있는 地理的인 長點을 이용하여 經濟貿易, 科學技術, 文化 등 각종 영역에서 全方位 協力を 發展시켜야 하며, 특히 東北亞 地域經濟協力 분야에서 中韓 양국은 積極的인 推進作用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企業協力 분야에서 中國은 綜合商社와 같은 國際貿易 분야에서 유리한 企業組織 형태를 研究중에 있으며, 綜合商社型 多國籍企業의 設立을 준비중에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韓國이 日本 綜合商社의 經驗을 研究하고 自身의 特徵을 결합하여 韓國型 綜合商社를 設立함으로써 韓國經濟 發展과 輸出擴大를 촉진한 성공적인 사례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韓國의 綜合商社가 中國化工進出口總公司를 포함하여 실험중에 있는 中國 綜合商社型 會社와 交流를 강화하고 經驗을 교환하여 광범위하고 효율적인 協力を 전개해 나가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紳士 淑女 여러분, 中韓 양국은 바다를 사이에 둔 友好協力の 이웃으로서 공히 世界에서 가장 신속하게 發展하고 있는 東아시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양국이 協力を 통하여 中韓 양국의 經濟貿易의 새로운 繁榮을 창조하고 21세기 아시아·太平洋 지역의 經濟貿易의 새로운 繁榮을 창조합시다.

감사합니다.



第 3 主題

韓中 科學技術協力

韓國側：鄭 助 英

韓中 科學技術協力과 새로운 試圖

中國側：孔 德 涌

中韓 科學技術協力 展望



韓中 科學技術協力과 새로운 試圖

鄭 助 英

(科學技術團體總聯合會 常任副會長)

I. 新國際秩序의 틀과 Paradigm

세계는 지금 國際秩序의 틀이 바뀌면서 새로운 “技術과 관련된 國際規範”이 형성되고 있다. 다시 말해서 기술에 대한 所有權 개념이 강조되면서 국제간의 기술에 대한 소유권 분쟁, 즉 特許紛爭이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국가 자체의 존립을 위한 기술이 필요하게 되었고, 기초연구와 응용연구가 잘 구분되지 않는 상태에서 과학과 기술간의 상호연계성이 밀접해 지고 있다. 이에 따라 R&D투자에 대한 정부지원도 새로운 국제규범을 따라야 하며, 유해물질 배출, 유해물질 사용제품이나 생산공정을 규제하는 국제적 地球環境保存 움직임도 간과할 수 없는 현실이다.

이와 같은 新國際技術秩序가 대두되면서 특히 技術革新이나 기술변화에서 나타나는 “技術經濟 Paradigm”과 “國家技術革新體制”가 무엇보다도 중요시되면서 OECD와 GATT의 입장 또 지난 해 타결된 UR협정과 관련된 여러 가지 제약과 포괄적 규범이 마련되고 있다.

또한 韓中 양국은 이와 같은 “技術革新”을 과학기술 측면 뿐만 아니라 經濟社會的 측면과 동시에 고려하면서 혁신과 관련된 여러 가지 요소들을 유기적으로 연계시켜야 할 것이며, 각기 자기나라만의 문제로 접근할 것이 아니라 국제적 범

주내에서의 양국의 협력을 새롭게 의논해야 할 것이다.

II. 技術協力과 實利 극대화

원래 “科學技術協力”이란 과학적 지식과 기술을 국제간에 이전하는 것을 말하고 있으나, 어디까지나 기술주체간의 人爲的 努力이 수반되는 행위라고 하겠다. 특히 과학기술협력은 그 방향과 전략에 있어서 국제적인 외부환경변화에 따른 대응과 조정을 바탕으로 신속하게 효과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다시 말해서 技術霸權主義(Techno-hegemony)와 技術地域主義(Techno-regionalism), 技術保護主義(Techno-Protectionism), 기술경제활동의 世界化(Techno-globalism)와 같은 국제기술환경의 변화가 韓中 科學技術協力の 방향과 구도를 결정짓는 중요한 시각으로 작용하고 있다.

한편, 중국은 한국에게 새로운 可能性과 機會를 제공한 반면에 “挑戰과 競爭”이라는 과제를 안겨주었다. 앞으로 중국이 7-10% 수준의 경제성장을 유지하고 미국이 중국의 절반 성장을 유지할 경우, 오는 2003년까지 중국은 세계최대 經濟大國이 될 수 있다고 “The Wall Street Journal”(‘93. 2)誌는 평가하고 있다. 中國은 12억 인구에 밀려 1인당 GNP 430\$ 정도에 불과하지만, 지금도 경제규모면에서 보면 세계 6위의 강국이다.

앞으로 한국은 이와 같은 엄청난 中國의 潛在力을 주시하면서 양국의 협력을 새롭게 구상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러한 구상에 있어서의 기본 전제로서 다음과 같은 인식을 기초로 해야 할 것이다.

첫째, 相互補完的 同伴者이다. 韓中交流는 1973년 한국이 6·23宣言의 사회주의국가에 대한 門戶開放政策을 표방하면서 시작되었다. 초기에는 間接交易이 대부분이었고, 중국의 개방이 가속화되는 1980년대의 무역규모는 3억 5천만\$(1981) 수준에 불과했다. 그 후 1989년부터 투자가 활발히 진행되어 한국의 투자는 1,042

국제기술환경의 변화와 韓中 科學技術협력의 필요성

국제 기술환경 변화	韓中 科學技術협력의 필요성
기술패권주의	미·일·EC 등 기술선진국의 패권주의에 대응하기 위한 공동전략이 필요함(한국측, 중국측 공동수요).
기술보호주의	선진국의 첨단기술에 대한 접근이 어려운 상황에서 첨단기술에 대한 상호보완 및 공동연구 필요(한국측 수요가 강함).
기술지역주의	타지역의 블록화에 대비한 環黃海圈(環渤海圈) 협력체제가 요구됨(한국측, 중국측 공동수요).
기술세계화	상호 필요기술에 대한 보완전략이 필요. 특히 기업차원에서 새로운 형태의 '전략적 동맹'이 요구됨(중국측 수요가 강함).

건에 9억 6천만\$(1993. 12 한국은행 허가기준)에 이르고, 양국 교역량은 90억 8천만\$(1993)로 중국이 한국의 제3의 交易相對國이 되었다. 1990년 10월 韓中 貿易代表部 설치, 1992년 2월 韓中 貿易協定 체결, 1992년 5월 韓中 投資保障協定 체결, 1992년 8월 24일 韓中 修交 調印, 1992년 9월 韓中 科學技術協力協定 체결, 1992년 11월 韓中 科學技術協力센터(서울) 설립, 1993년 11월 韓中 科學技術共同委員會 개최·中韓 科學技術협력센터(北京) 설립, 1994년 2월 韓中 科學技術協力實務委員會(北京) 개최 등 상호 협력을 위한 공식적인 절차가 진행됨에 따라 韓中 協力關係는 새로운 轉機를 맞고 있다. 중국은 1992년 10월 제14차 黨代表者會議 및 1993년 3월 제8기 全人大會議에서 「右經濟」「左政治」 지도노선을 확정한 바 있다. 정치적 측면에서 보면, 중국은 세계 신질서의 구축과 동북아 재편과정에서 北韓과의 관계를 의식하면서 臺灣에 외교적 타격을 가하고, 베트남·인도네시아와의 관계개선을 꾀함으로써, 중국의 영향력을 확대해 가려는 계산인 것 같다. 이에 반하여 한국의 입장은 對外北方外交를 러시아에 이어 완결진행하고, 북한관계에서 중국카드를 적절히 활용하겠다는 생각이다. 특히 양국은 최근 일본의 “新大東亞共榮圈戰略”에 공동 대처한다는 상호인식을 갖고 있다.

경제적으로는 중국은 “大中華經濟戰略”의 일환으로 東北 3省(遼寧, 吉林, 黑龍

江)의 활성화를 위하여 한국의 자본과 기술을 절실히 요구하고 있다. 특히 “豆滿江開發計劃”은 참여국인 일본·러시아·북한보다도 한국이 중국에게 큰 혜택을 줄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한편, 한국도 오랜 동안의 수출부진·내수경기 침체·대외경쟁력 약화 등을 타개할 새로운 돌파구가 필요한 입장에 있다. 한국은 지리적 근접 및 문화적 유사성, 양국 상품의 상호보완성, 저렴한 수송비용, 水平的 分業의 확대와 산업구조의 보완, 資源配分의 效率性 提高라는 측면에서 긴밀한 양국 교류를 바라고 있다. 특히 과학기술적 측면에서 보아도 중국은 軍需 産業 중심의 국방기술 및 거대기술과 막강한 기초 과학력을 갖고 있다. 그러나 중국의 약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산업기술력과 기술의 상업화 능력면에서 한국의 도움을 요구하고 있다. 앞서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한국은 技術保護主義의 돌파구로서 중국의 첨단기술을 이용하려는 속셈을 갖고 있다고 하겠다. 이런 관점만 보더라도 韓中交流와 協力は 절대적이라고 하겠다.

둘째, 相互牽制的 競爭者이다. 실질적으로 중국은 한국의 국내시장과 국외시장에서 이미 강력한 경쟁국으로 부상하고 있다. 지난 1993년 한국수출은 822억 3천 6백만\$인 반면에 중국은 918억\$로 역전되었다. 미·일·EC 등 주요시장에서도 양국 점유율은 갈수록 격차를 벌이고 있다. 미국시장에서의 경쟁력 현황을 보면, 한국의 對美輸出 주력상품 41개중 의류, 신발, 전자레인지, RD, 전자계산기 등 15개 품목이 점유율면에서 중국에게 밀리고 있고, 한국의 1993년도 對日輸出은 115억 5천 4백만\$이고, 중국은 157억\$이다. 품목면에서도 섬유원료와 제품, 금속원료, 화학제품, 철강, 비철금속 등 8대 품목이 앞섰고, 철강과 기계류만 한국이 조금 앞서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EC시장에서는 섬유, 신발류 등 경공업제품의 수출은 물론, 전자전기제품시장에서 중국의 추격을 받고 있다. 한편, 한국시장에 쏟아져 들어오는 중국상품은 약 3,300가지(국제상품분류방식)로 집계되고 있으며, 이외의 심각성은 경공업제품만이 아니라 고부가가치제품인 전기전자, 기계 등 공산완제품의 비중도 크게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종합적으로 보면, 韓中交易의 확대 내지 逆潮現像은 결국 한국에게 새로운 機

會와 可能性을 제공하고 있다고 하겠다. 이와 같은 양국간의 교류는 일방적인 위협이나 일방적인 기회일 수는 없으며, 적절한 조화와 實利 極大化가 당면과제라고 보겠다. 줄 것은 과감하게 주고, 받을 것은 철저하게 받아 내는 전략이 필요하다. 앞으로 한국은 기술부머랭 효과를 고려하면서 생산기술 또는 중간기술을 설비수출과 연계시켜 먼저 중국에게 팔고, 이의 대가로 중국의 첨단기술을 얻을 수 있는 묘안을 짜야 한다. 그리고 總論 수준의 일반적인 접근보다는 各論 수준의 다양한 접근방법을 개발해야 할 것이다. 예를 들면, 중국의 정밀한 지역특성을 분석하여 지역에 맞는 기술목록과 활용가능성에 대한 事前調査가 이루어져야 하겠다. 특별히 韓中交流는 신기술경제 Paradigm 속에서 거시적인 관점을 갖고 폭넓게 추진되어야 한다. 環太平洋時代의 주도자가 될 가능성이 큰 중국과 중간위치에서 적극적인 役割者의 위치에 있는 한국은 미국과 일본의 관심 속에 “兄弟關係 나라”로서의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면서 상호 기술격차를 시급히 해소하는 데 주력해야 할 것이다.

Ⅲ. 科學技術 協力現況

1. 政府次元 協力現況

1) 科學技術部處間 協力現況

양국의 科學技術部處間 協力은 1992년 3월 9일 北京에서 개최된 한국의 과학기술처 장관(金鎮炫)과 중국의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주임(宋健)과의 회담에서 시발된다. 이 때 韓國科學財團과 中國科學技術協力協會간에 6개항에 걸친 諒解覺書가 체결되었다.

그 후 양국 장관회담을 통해 협력을 구체화시킨 결과, 1992년 9월 30일 北京

에서 “韓中 科學技術協力에 관한 協定(발효 '92. 10. 30)”이 정식으로 체결되었다. 또 협력사업을 구체화하기 위해 서울에서 제3차 韓中科學技術長官會談('92. 11. 25-12. 2)을 갖고 정부간 양해각서를 교환하였으며,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제1차 韓中 科學技術共同委員會('93. 11. 3-11. 7)를 북경에서 개최한 바 있다.

1992년 8월 24일 韓中修交 이후 1992년 9월 韓中 傳統東洋藥物協力研究센터가 韓國 서울大學校에 개소되고, 1992년 11월 서울 KIST에 韓中 科學技術協力센터가 설립되었으며, 이와 때를 같이하여 韓中 經濟貿易 및 技術協力 共同委員會가 1992년 12월 12일에서 17일까지 北京에서 개최되었다. 그 후 1993년 10월 韓中 大氣科學研究센터가 韓國 淸州 教員大學校에 설치되었으며, 1993년 11월 韓中 科學技術協力센터 北京사무소와 中韓 大氣科學研究센터가 中國 北京大學校에 개소되었다. 그리고 최근 1994년 2월 北京에서 “韓中 科學技術協力 實務委員會”를 가진 바 있다.

2) 기술조사단 교류현황

중국측은 ① 朱傳栢 국가과학기술위원회 부국장 등 5명의 技術政策調查團('92. 6. 15-28), ② 王秀亭 航天科學技術交流中心 부주임 등 3명의 航空技術協力團('92. 6. 16-22), ③ 范銘義 등 2명의 국가과학기술위원회 實務協議團('92. 6. 24-7. 1), ④ 張小瑞 국가중의약관리국 외사사장 등 5명의 중국전통의약실무협의단('92. 9. 13-23) 등이 한국을 방문하였다.

政府次元의 科學機術協力 내용

구 분	합 의 내 용
<p>제1차 韓中科技長官 회담 (1992. 3. 9. 北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양국의 첨단기술개발계획(중국 : 863계획, 火炬計劃/한국 : G-7계획)에 공동참여 협력 추진 ② 중국의 우주항공·물리·재료 등 분야와 한국의 전자통신·원자력 등 양국 강점분야와 상호보완적 협력 및 공동연구 추진(38개 공동연구과제 상호 제의) ③ 황해지역의 환경 자원공동조사 및 동양의학문화재 연구를 통한 첨단관련기술 공동개발 ④ 두만강 유역개발 등 동북아지역의 협력확대를 위한 공동노력 ⑤ 동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양국 정부차원의 기술조사단을 '92 하반기부터 상호 교환하여 구체적 협력사업 발굴·협의 확대 추진 ⑥ 추진절차는 정부간 협정체결전까지는 한국의 과학재단과 중국의 국가과기협력협회가 추진 주체가 되어, 서울·北京의 양국 무역대표부를 통해 상호 연락기로 함.
<p>韓中科學 및 技術에 관한 협력협정 (1992. 9. 30. 北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상호 호혜평등의 기초하에서 양국간 과학기술협력을 확대 증진 ② 과학기술인력, 정보교류, 공동연구 등 협력사업 수행 ③ 양국간 과학기술협력 촉진을 위해 연구소, 대학 및 기업체간 협력확대 지원 ④ 과학기술장관회의(과학기술공동위) 정례화(매년 교대 개최)

〈계속〉

구 분	합 의 내 용
韓中科學技術協力에 관한 양해각서 (1992.11.26. 서울)	① 과학자교류 및 공동연구개발 강화·증진 - 기초분야(의학, 기상, 지구과학, 해양과학, 천문, 물리, 화학, 고에너지 등) - 응용기술분야(우주과학, 신물질, 생명공학, 전자, 자동화, 정보, 기계 등) ② 과학기술분야의 연구기관, 대학 및 민간기업간 협력 강화·증진 ③ 연구성과의 상업화 및 과학기술연구단지간 협력 강화·증진 ④ 과학기술분야의 개인대 개인, 기관대 기관간 협력 강화·증진 ⑤ 1993년 협력계획 사업 합의 - 38개 공동연구 합의과제중 10개 과제 착수 - 기술조사단 20명 계속 교환 - 공동연구, 기술훈련, 세미나 등을 위해 총 100명 규모의 과학기술자 교류 - 한국의 G7계획과 중국의 863계획, 화거계획 등 첨단기술개발계획 공동참여 협력 - 양측 지원하에 한국측의 北京사무소와 중국측의 서울사무소 상호설치
제1차 韓中科學技術 共同委員會 (1993.11.5. 北京)	① 5개 공동과제 착수(항공기, 인공위성, 컴퓨터, 레이저, 생산성 제고방안) ② 인력교류(Post-Doc) ③ 조사단교류(계속) ④ 협력센터지원 ⑤ 정보교류 ⑥ 기초과학·항공우주·농업기술협력 ⑦ 산업기술협력(TDX, 자동차 등)

한국측 조사단의 訪中 현황은 다음과 같다.

한국측 기술조사단의 訪中 현황

분야	기간	조사단 구성	방문 기관
동양의학	'92.6.18-30	장일무(서울대)의 5명	국가중의약관리국, 동인당, 약용식물자원(연), 상해약물(연)
소재기술	'92.10.12-22	은광용(KIST)의 3명	유색금속연구총원, 건축재료(연), 항공재료(연), 상해규산염(연)
표준측정 및 레이저 응용	'92.12. 5-15	이용수(과기처)의 4명	北京광전기술(연), 국립도량형(연), 상해광학정밀(연), 상해레이저기술(연)
전통기술	'92.12.17-25	오세균(화학연)의 6명	국가문물국, 중국문물(연), 역사박물관, 상해박물관

3) 政府 각 부처 및 分野別 교류현황

1992년 6월 23일 韓國 中小企業振興公團과 中國 中小企業國際合作協會는 “韓中 中小企業協力約定”을 체결하고 합작투자 및 기술제휴 파트너 알선, 조사업무 지원, 투자설명회 등을 공동추진기로 합의하였다. 1992년 11월 한국 特許廳과 중국 專利局간에 特許情報 및 人的 交流 등에 관한 合意意思錄(ROD)이 서명됨으로써 양국의 특허협력시대가 시작되었다. 그 후 1992년 8월 현재 중국기업의 한국특허 출원은 216건이며, 한국기업의 중국특허 출원은 177건의 실적을 나타냈다. 그 후 1992년 12월 15일 北京에서는 한국의 大韓商事仲裁院과 중국 國際經濟貿易仲裁委員會측이 “韓中商事仲裁協定”을 체결하여 무역분쟁을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또 1993년 2월 15일 - 17일 北京에서 “韓中通信實務委員會”도 개최되어 해저케이블 건설, 중국통신망 현대화사업 등을 논의하였다. 한국 土地開發公司와 중국 天津 開發區總公司 사이에 1993년 2월 18일 계약

이 체결되어 한국은 약 39만평의 공단부지를 50년간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한편, 한국기업의 중국진출을 실효화하기 위해 한국 외무부에서는 駐中대사관과 무역협회 北京지사를 중심으로 중국의 주요 省 및 市와 “經濟通商定例協議會”를 개최토록 추진중에 있다. 이렇게 되면 관련법규가 서로 다른 중국의 각 성 및 시와의 기업활동은 원활히 진행될 것이다.

2. 대학 및 연구기관차원 협력현황

한국측 기관	중국측 기관	협력내용
시스템공학센터, 도핑센터, 중앙기상청	BAGOC	<ul style="list-style-type: none"> • '90 北京 아주대회 전산·도핑·기상기술 지원 ('88-'90)
포항공대	고능물리연구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60MeV급 선형가속기 관련기술 및 장비 도입('89.2-'92.2) • 2,000MeV급 가속기의 국내제조를 위한 가속관 구매 및 설계기술 중국자문 협의중('91.10-'94.6)
인하대	해양(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황해관련 기존자료 분석 및 실험역 탐사결과의 종합화를 통한 해양환경도 작성('90-'94)
원자력(연)	핵공업총공사(CNNC)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국대아만(Daya Bay)원전 1,2호기의 비파괴검사 기술 자문('91.3-'93.10)
원자력(연)	핵동력원(NPIC)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진산원전 대형냉각제 사고예방 기술자문('92.11-5년간) • 중국의 원자로 안전성에 대한 기술지원계약 체결
과학재단	국가과기위, 중국과학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양해각서 체결('91. 5) • 과학기술인력 교류 및 세미나 개최('91-'92)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중국조선족과학가협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제과학기술학술대회 개최('91. 8)
서울대천연물과학(연)	중의연구원, 중약(연)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중약물연구협력센터 설치 • 한국 신동의약개발기획단 발족(G7프로젝트 일환)
해양(연)	아·태(연)(API)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북아시아 해양과학국제회의 서울 개최('92. 10)
전기(연)	서안고압전기(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술협력협정체결(인적교류, 공동연구, 연구장비 공동활용)
한전, 해양(연)	국가과기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충남 가로림만 조력발전 타당성 조사

3. 企業體次元 協力現況

기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서로 다른 수준과 내용의 두 국가간의 기술이전이나 기술협력은 필연적으로 야기된다.

그리고 국가의 기술주체 즉 연구기관, 기업체, 대학 또는 이에 속한 개인들의 이해도에 따라 기술이전이나 기술협력이 진행된다고 하겠다. 특히 기술이전 경로를 보면 다음과 같다.

기술이전 경로의 분류

구분	상업적 이전	비상업적 이전
非體化型	기술도입 계약, 외국인 특허	출판물
人間體化型	기술용역 도입, 외국기술자 고용 교육·훈련	기술자의 이민, 국제회의 교육·훈련
物質體化型	기술집약적 제품 수입	
多媒體體化型	외국인직접투자(FDI) 외국 R&D, turnkey 플랜트 도입	기술협력

그동안 중국에 대한 한국기업의 직접투자는 600만\$(진웅, 삼양식품)이었으나 최근들어 기계 및 전자제품에 대한 투자가 활발하게 나타나고 있다.

한편, 중국에 대한 기술수출 현황을 살펴 보면, 1989년 한국의 고려합섬이 워터제트 직조기술을 수출한 것을 시작으로 점차 늘어가는 추세를 보였는데, 1992년 들어 35건으로 급증하였다. 1992년 이후 對中國 技術輸出 現況을 보면 다음과 같다.

결국 중국과의 기술협력은 1993년 들어서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예시하면, 전자식 안정기(한국 우명음파전자와 중국 吉林전력과기발전공사), 승용차용 에어컨(한국 두원공조와 중국 장춘라디에이터공사), 선박해체기술, PLC 등 자동화설비기술, 공업용 열처리설비기술, 제분기술 등이다.

韓國企業의 中國投資 現況

	1988	1989	1990	1991	1992(6월말 현재)
합 계	2건	9건	37건	110건	108건
수산업				1	4
농축산업				1	
광업 (제조업)		2	2	1	1
음식료	1		5	6	4
섬유·의복	1	4	6	28	35
종이·인쇄				2	2
목재·가구			1	4	4
신발·가죽			2	13	14
석유화학		1	3		2
비금속광물			1	3	1
1차금속				1	
조립금속		1	4	13	11
기계장비			1	3	5
운수장비			2		
기타제조		1	7	33	24
음식숙박			1	1	1
무역			1		
기타서비스				1	

한국이 중국으로부터의 技術輸入은 아직 초기단계이나, 앞으로 군수산업기술, 소재기술, 화공기술, 발전기술 등 중국의 선진기술을 적극 도입할 계획이다. 한국도 삼성그룹, 대우그룹 등 많은 기업체들이 항공, 의학, 생명공학, 자동차 등의 관련기술을 常用化하기 위한 조사단을 활발히 파견하고 있다.

對中國 주요 機術輸出 현황

기술제공사	기술도입자	기술내용
SKC	Indesen Magnetics Co.	비디오카세트 성형조립
한국고압용기	상해고압용기창	가스용기봉합기 제조
상진정공	심양삼태자병접공장	정밀프레스금형 제작
유진금속공업	심양화광주조가공창	서머감지기, 초경애자용용기술
부광사	吉林지수공창	다두자동지수기계에 의한 지수품 생산
대흥기업	심양축가단조창	청동게이트밸브 및 라디에이터 앵글밸브 제조
태창기업	청도동산섬유유한공사	방직 및 직조기술, 가공염색
동명공업사	심양진상수니구건창	양수기 제조 및 수도용밸브 제조
서광공작	심양진상단조창	초저온 버터플라이밸브 제조
대히중합밸브	심양진상강창부건창	전동 및 공압식밸브 제조
고성산업사	심양진상건축공정대	각형 주문 및 역수방지밸브 제조
동이화학	심양기술개발공사	플라스틱 사출성형 및 도금 제조
경기공업사	심양전기대표창	1회용주사기부품 제조
금성정공	광주중흥액압기창	플라스틱금형 및 사출성형(전자부품)
대공기계	심양길생기계공창	플라스틱 및 고급스티로폴 정밀사출
대성정밀공업사	심양성경기계공창	플라스틱 정밀사출금형
동성섬유	천진천진모건창	편직 pre setting, 염색 full setting기술
일지산업	심양진상별문창	승용차부품의 정밀프레스기술
오리엔탈정공	北京건외기압기분창	CO2용접기술(선박)
대한제쇄공업	심양심양유리동풍기창	선박용 닻줄 및 닻 생산
신한다이아몬드	심양진상소제창	다이아몬드 연삭 및 절삭공구 제조
한국중합밸브	北京제일기상창	고압가스밸브 제조
영동금속	北京영생기계가공창	청동밸브, LPG용 볼밸브 몸통 및 밸브대 전용기
풍무기업	장춘등포창	전동기용 주요 부품, 경고속 금형사출기술
금강금속	건화도금창	니켈크롬 도금기술, 온도금 석도금기술
화성공업사	심양수요전산창	전기아연 도금기술
신일기계	산둥성유방시유방백사득 기계총창	회전식 세정집진기에 대한 특허기술
부덕실업	北京화평전자기계배건창	수도용 분수전 및 천공기 제조
명광금속	광주제6기계가공창	Flange 가공정밀기술
쉐르담	심양교전총공사	여성용 하이패션 의류 제조
동해화학사	천진팔리대기계창	강화플라스틱 제조
한국브레이크공업	吉林화룡장백산브레이크 유한공사	자동차용 브레이크라이닝 및 디스크패드 제조
대한전선	北京대경통신전람유한공사	플라스틱 절연통신케이블 및 광통신케이블 제조

IV. 科學技術 水準과 特徵

1. 中國의 수준

中國의 과학기술은 二重性을 갖고 있다. 중국은 세계적인 우월성을 과시하는 국방력에서 야기되는 우주항공기술, 국방관련 기술, 기초과학 등 강점기술이 돋보이는가 하면, 도시와 농촌, 중심지역과 주변지역의 극심한 격차는 물론, 낙후된 생산기술 등이 그 현주소라고 하겠다.

중국의 연구개발상황을 보면 1991년 현재 R&D는 약 142억원으로 國民總生産(GNP)과 대비하면 약 0.72%를 나타내고 있다. 또한 1992년 현재 科學技術人力은 약 1,700만명, 연구개발인력은 약 120만명, 특히 高級頭腦인 과학자와 研究士만 60만명이다. 연구개발주체도 정부연구기구 약 8,000개, 기업체 약 8,800개, 대학 약 1,700개를 보유하고 있다. 현재 중국의 과학기술정책은 15個年 科學技術政策('85-2000), 國民經濟와 社會發展 10個年計劃('91-2000), 8次 5個年計劃('91-'95) 등의 세 가지 큰 틀 속에서 6大 國家科學技術프로그램이라는 장기발전계획에 따라 수행되고 있다. 일견 여러 정책이 중복되어 비합리적일 것으로 보이지만 오히려 그물망처럼 정교하게 상호보완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6大 國家科學技術프로그램은 3가지 전략으로 나누어 추진되고 있는 3층 구조로서 기존산업과 국민의 실생활에 전체 과학기술인력의 60-70%를 투입시키는 攻關計劃(Key Technical Problem Tackling Program)·科技成果推廣計劃(S&T Achievement Promotion Program)·星火計劃(Spark Program), 세계무대를 상정하고 추진되는 高度技術研究開發計劃(High-Technology Research & Development Program, 일명 863계획)·火炬計劃(Torch Program) 등의 첨단기술전략, 과학기술의 기반을 확충시키기 위한 基礎研究計劃(Basic Research Program)으로 나누어진다. 이같은 정책의 틀 속에서 한정된 자원을 결집시켜 과학기술능력을 극대화하기 위한 도전들이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바, 국방기술 부문의 民需轉

換, 산학연 협동체제(기술발전센터·중국과학원의 Open Laboratory 등)의 강화, 技術開發公司 運營 등이 그 대표적인 예로서 손꼽히고 있다.

중국의 과학기술발달 성공사례

연 도	성 과
1952	국산 1호 기관차 제작
1954	젯트기 시험제작
1958	실험용 원자로운전
1959	디지털 전자계산기 완성
1960	레이저광선 개발
1960	게르마늄 IC 시제품 완성
1963	대형 포경선 '원룡호' 건조
1964	원폭실험 성공
1965	20만배 대형 현미경 완성
1966	핵탄두 미사일 제조 성공
1966	인슐린 합성 성공
1967	국산 1만톤급 화물선 진수
1967	수폭실험 성공
1969	중국 최초의 지하 핵실험
1970	중국 최초의 인공위성 발사
1973	매초 100만회의 컴퓨터 완성
1980	레이더 유도설비 개발
1982	MOS 메모리 4KS칩 생산
1982	tRNA 합성 성공
1984	마이크로 컴퓨터 '장성' 및 '자금Ⅱ'개발
1986	64KD램 개발
1990	방사광 가속기 완성

1954년 비행기 제작에 이어 1956년 제트기 개발과 1964년 원자탄 실험을 성공한 후, 1970년 “東方紅 1호”라는 인공위성을 쏘아올린 중국이다. 특히 노벨상을 수상한 나라며, 기초과학 등에 세계적인 碩學을 많이 보유한 나라로서 꾸준한 연

구활동을 지속하고 있다.

최근 추진되고 있는 8차 5개년계획('91-'95)에서 추구하고 있는 과학기술분야의 기본방향을 살펴 보면 첫째, 擴散指向的 政策(Diffusion-oriented Policy)의 추구를 들 수 있다. 이는 과학기술정책의 주안점이 과학기술과 경제와의 연계, 연구성과의 상업화 문제 등에 집중되고 있다는 의미로서 이와 같은 내용들이 앞에서 지적된 국가과학기술프로그램에서 구체적으로 실현되고 있다. 둘째, 국제수준의 新技術開發을 위한 지원 강화이다. 중국은 2000년까지 선진국 수준에 근접 또는 추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8차 5개년계획 기간동안 중점 지원할 분야로는 생명공학(종자개량·신의약개발)·정보기술(人工知能·광전자산업·광통신)·인공위성모니터링시스템 자동화기술(CIM)·新素材(光通信材料) 등이 있다. 셋째, 과학기술체제에 경쟁메카니즘을 도입하고 있다. 그동안 중국을 지탱해 왔던 이른바 鐵飯碗(평생직장보장), 鐵交椅(직위보장), 鐵工賃(월급보장) 등의 3원칙이 타파되고, 새로운 경쟁시스템이 강조되고 있다. 넷째, 적극적인 國防技術民需轉換(Conversion)이 시도되고 있다. 소위 '제3선' 산업으로 불리우는 국방산업에 대한 집중투자 때문에 민수산업은 지극히 수준이 낮고 국방기술은 첨단을 달리는 이중구조가 심화되어 왔으나, '84년 鄧小平이 국방기술의 경제건설 참여를 역설한 뒤 민수전환이 급속히 이루어짐으로써 전체 국방관련 산업의 民需品 생산비율이 '85년 47%, '88년 58%, '89년 66%로 증가하고 있으며, 1,200개 기업의 3백여만명이 이에 종사하고 있다. 이러한 점유비율은 더욱 증가될 전망이고, 국방관련 산업중 가장 활발히 민수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는 분야는 우주기술과 항공분야이다.

한편, 주요 부문별 수준과 특징을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 1) 기초과학(수치해석학, 고온초전도체, 반도체, 기상예측이론, DNA변성구조, 효소, 수정연구, 방사성가속기 등은 강함)
- 2) 핵기술(원자탄, 수소탄, 원자력잠수함, 미사일 등은 강함)

중국 공업기술 수준

국 제 선 진 수 준	膠磷鑛浮選 耐火煉瓦	難溶金屬精製·加工 치탄합금 Surfing Yacht Jet 추진선	전자출판 음성인식·합성 고에너지 이온주입기 형상기억합금 광학결정(봉산Li) 인슐린 합성 Ripo핵산 합성	Rocket·위성 Solar 시뮬레이션 원자력발전소 전자가속기 미열량계 방사선탐상기 전자동위체분리기 동위체원소
선 진 국 의 80 년 대 수 준	석유굴삭설비 디젤기관차 선박 인쇄기 공사기계 건설기계	경형가스터빈 발전기펌프 변압기 압축기 시험기 카메라 가전제품 복사기 공작기계, NC공작기계	레이다 지하관 관측 CAD, ICCAD 驛總승관리시스템 항공기 IC 전자측량기 레이다 YAG Laser 진공열처리로	중국어 워드프로세서 수퍼미니컴퓨터 워크스테이션 미니컴퓨터
도 입 기 술 수 준	플랜트 : 에틸렌, 비료, 사료 화학섬유, 농약, 염화비닐 표시소자 PoriPro, 고무, 유리 전자부품 시멘트, 세제, 철강 등 농업기계			

- 3) 우주기술(인공위성(통신, 기상 포함) 제작 및 발사기술 강함 - '92 현재 31개)
- 4) 정보통신기술(일반컴퓨터·반도체·통신기술 낙후, 광통신기술과 슈퍼컴퓨터 제조기술은 강함)
- 5) 생명공학(B타입 간염백신, 인간세포의 생식이식, 간암미사일, 한의학과 양의학의 접목, 농업기술 등은 강함)
- 6) 공업기술수준 (다음과 같음)

세계 주요 핵보유국과 핵실험 시기

국 가	최초의 원폭 실험	최초의 수폭 실험	최초의 지하 핵실험
미 국	1945. 6.16	1952.10.31	1951.11.29
소 련	1949. 8.29	1953. 8.12	1961.10.11
영 국	1952.10. 3	1957. 5.15	1962. 5. 1
프 랑 스	1960. 2.13	1968. 8.24	1961.11. 7
중 국	1964.10.16	1966.12.28	1969. 9.23
인 도	1974. 5.18		1974. 5.18

2. 韓國의 수준

한국은 1960년을 시발점으로 1970년까지 10년간 투자한 과학기술 부문은 1980년대 이후부터 활성화되어 각 분야가 크게 발전되고 있으나, 핵심기술은 아직도 상당부분이 낙후되어 있는 실정이다.

우리나라의 연구개발활동을 보면, 1992년 말 현재 研究開發投資가 약 4조 9천 8백90억원, 연구개발인력이 8만 8천명으로 인구 만명당 연구원수가 20.3명으로 선진국(미국 : 38.4명, 일본 : 41.7명 등)에 비해 연구능력이 부족하며, 따라서 전반적인 기술수준은 선진국에 비해 8-10년 뒤지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基礎

科學 및 公共福祉 技術분야에서는 국제학술지에 발표한 논문이 1993년도 세계 27위로 1992년도 30위에 비해 다소 성장하였으나, 주변 신흥공업국가인 대만에 비해서는 뒤지는 수준이며, 환경-보건-의약-교통시스템 등 公共福祉技術은 아직 초기단계이다. 산업기술분야에서는 전반적으로 조립·가공 등 일부 산업기술은 선진국 수준에 거의 접근하고 있으나, 설계·소재·소프트웨어 등 기반기술과 주요 핵심기술은 크게 취약한 실정이다.

이와 같은 한국의 기술수준을 제고시키기 위해 국가역량을 결집하여 核心·源泉技術과 尖端技術 중심으로 과학기술투자의 획기적 증대와 G7프로젝트 등 국가적인 연구개발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한국의 기술수준은 전체적으로 볼 때, 조립·가공 등의 일부 單純生産技術은 선진국 수준에 거의 접근하였으나, 설계·소재·소프트웨어 등 高級 基盤技術과

機術自立度 比較

(단위 : 백만\$)

구 분	한 국 ('92)	일 본 ('92)	미 국 ('92)	독 일 ('91)	영 국 ('89)	프랑스 ('91)
• 기술 수출비	32.5	3,053	20,283	1,457.5	1,973.5	1,537.0
• 기술 도입비	850.6	7,189	4,986	3,208.3	2,058.8	2,222.8
• 수지비	0.04	0.43	4.06	0.45	0.96	0.69

註 : 기술자립도 : 기술수출비용 / 기술도입비용

SCI 論文發表 比較

	년도	한 국	대 만	중 국	일 본
발표논문수	1991	1,818(32)	2,815(26)	6,630(13)	44,521(3)
	1992	2,461(30)	4,199(24)	8,481(15)	51,772(3)
	1993	2,977(27)	4,553(21)	8,527(15)	51,199(3)

註 : ()내는 국별 순위임.

資料 : 1993년도 SCI D/B에서 조사한 결과임.

단계별 기술수준

	과학적 지식	기초기술	산업 기술		
			제품설계	가공	조립
미국	○	○	○	△	△
일본	×	△	○	○	○
한국	×	×	×	×	○

註 : ○ ; 앞섬, △ ; 보통, × ; 뒤짐

특許 등록현황

(1991년 기준)

국 별	한국	일본	미국	독일	영국	소련
건 수	8,690	36,100	96,514	43,190	34,074	4,122
배 율	1	4.1	11.1	4.9	3.9	0.4

특 허 출 원

(1991년 기준)

일본	미국	독일	영국	프랑스	한국	중국
380,453	177,388	109,187	95,533	79,075	28,132	11,423

핵심기술은 한결같이 크게 뒤떨어져 있는 실정이다.

- 1) 반도체에 있어서는 세계 제2의 수출국으로 부상하면서 반도체시장을 주도해나가고 있으나, 記憶素子 부문에서만 선진국 수준에 접근했을 뿐 半導體 産業의 기반이 되는 재료 및 장비분야는 아직 초기단계임.
- 2) 컴퓨터기술은 대체로 선진국의 30-40% 수준에 이르렀으나, 小型 컴퓨터와 주변기기는 3년, 中大型 컴퓨터는 선진국과 10년의 격차를 보이고 있으며, 본체의 핵심부품과 주요 설계기술·시스템소프트웨어기술이 특히 낙후되어 있음.
- 3) 情報通信技術에 있어서 全전자교환기술은 이제 선진국과의 기술격차가 3년

으로 크게 단축되었으나, 부가가치통신망(VAN)·종합정보통신망(ISDN)· 위성통신기술 등은 선진국과 7-8년의 격차를 나타내고 있는데, ASIC 반도체·고주파신호처리부품·CCD 등이 주요 취약기술로 나타나고 있음.

- 4) 가전제품기술에 있어서 조립생산기술은 선진국의 80% 수준이지만, 설계기술, 高鮮明(HD) TV와 같은 次世代製品의 기반기술은 아직 미약한 수준이며, 최적 프로세서 활용기술·신호처리기술 등의 源泉技術이 특히 뒤떨어져 있음.
- 5) 자동차기술에서는 생산기술보다는 제품기술이 낙후되어 있음. 생산기술부문에서 단순기기 가공과 조립기술은 선진국 수준에 접근하였으나, 철단조·금형제작·운영관리기술 등이 약간 미흡하며, 열처리·표면처리·시험검사 기술 등은 상당한 격차를 보이고 있음. 제품기술부문에서 신제품 생산기술이 5년 정도로 일본의 3.5년에 비해 지체되고 있으며, 신차종기술과 엔진·미션·샤시장치 등 核心機能部品技術은 도입기술에 의존하고 있음. 특히 전장화 기술은 미국보다 4년 정도 뒤떨어져 있고, 신소재 및 차체 경량화 기술은 도입적용 초기단계임.
- 6) 航空機技術은 선진국에 비해 10년 이상 뒤떨어져 있는데, 미국을 기준으로 할 때 정비기술 80%, 설계기술 20%, 제작조립기술 60%, 부품생산기술 50%, 시험평가기술 50% 수준임.
- 7) 工作機械技術은 수치제어(NC) 비율이 43%로서 선진국의 85% 수준에 비하여 5년 정도의 격차를 보이고 있는데, 설계기술은 시스템엔지니어링기술·자동차기술·핵심부품설계기술 등이 취약하여 3년 정도의 격차가 있고, 가공조립기술은 기술이 취약하며, 검사·측정기술은 초정밀단계에서 미흡함.
- 8) 造船技術은 세계 조선 2위국으로서 일본과 함께 세계 조선산업을 주도해 왔으며, 1993년에는 수출실적이 일본을 추월하였으나 생산성은 아직도 일본과 1:2 정도이며, 기자재 國產化率은 약 85%, 고부가가치인 LNG 및 LPG

운반선 등은 약 50%임.

- 9) 정밀화학공업은 전체 화학공업에 대한 생산액 구성비가 44.5%로 선진국 수준에 접근하고 있으나, 기술면에서는 의약품, 농업 등 新物質合成技術은 선진국 수준에 근접하였고, 색소기능물질분야와 계면활성제분야의 기술은 상당히 낙후되었으며, 공업화공정기술은 초기단계임.
- 10) 석유화학기술은 에틸렌 생산능력면에서 1992년 325만톤, 수요량은 218만톤으로 연간 41만톤의 供給過剩을 보이고 있음. 석유화학제품의 需給現況은 1992년 내수 599만톤, 생산 679만톤, 수출 215만톤으로 부상하고 있으나, 에너지절약 공정개선, 부산물 및 폐기물 처리·이용 기술, 촉매기술 등 신제품 및 신공정기술이 취약함.
- 11) 철강기술은 전체적으로 미국·일본 등 선진국과 6년 정도의 격차를 보이고 있음. 고급강 생산비중은 29.8%로 일본의 42.3%에 비해 낮으며, 操業技術은 선진국과 대등하나 제품의 고부가가치를 위한 기술개발력은 다소 劣位에 있음.
- 12) 섬유기술은 봉제 3년, 염색가공 4년, 직편물 4년, 방적사 4년의 격차를 나타내고 있으며, 신소재 의복분야의 技術隔差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더욱 커지고 있음.
- 13) 신발기술은 소재프레싱기술과 정밀도면기술은 세계최고 수준이나, 소재개발기술, 자동제조기술, 디자인, 高機能化技術은 이태리·일본 등 선진국보다 낮은 실정임.

V. 協力對象과 對應戰略

1. 戰略決定時 고려할 사항

- 1) Needs - 어떤 기술이 그 시점에서 필요한가를 파악하고,
- 2) Resources - 도입된 기술의 消化·維持·發展에 필요한 자원은 무엇인가,
- 3) System - 국가차원에서 기술협력정책을 수립·조직화·이용·발전시키는 구조적 장치의 설계가 전략적 차원에서 고려되어야 한다.

韓中 과학기술협력전략 결정시 고려할 사항

주요요인	내용
협력수행주체 [WHO]	<ul style="list-style-type: none"> • 韓中 과학기술협력에서 정부와 민간의 역할은 어떻게 분담할 것인가 • 상대국의 어느 기관과 협력할 것인가
협력대상[WHAT]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점 협력대상기술군은 무엇인가
협력방법[HOW]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협력방법의 포트폴리오(협력의 유형)는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
협력시점[WHEN]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술수명주기상 어느 단계의 기술개발활동에 협력할 것인가
협력장소[WHER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술협력을 어느 곳에서 수행할 것인가
협력이유[WHY]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술협력을 통해 기대하는 결과는 무엇인가

2. 협력대상 선정

과학기술의 유형(기초과학, 응용, 산업)과 상대적 능력(기술보유)에 따라 협력 대상이 결정된다. 한편, ① 韓國과 中國이 보유하고 있는 경우, ② 韓國만 보유하고 있는 경우, ③ 中國만 보유하고 있는 경우, ④ 兩國 모두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경우로 나누어 기술협력 전략들을 구상해 보면 다음과 같다.

1) 韓國과 中國이 다같이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이 경우는 한국기업들이 중국에 투자하고 있는 섬유, 완구, 신발 등 勞動集約的 産業과 관련된 분야로서 製品壽命週期로 보면 成熟期의 技術로 치열한 경쟁과 더불어 한국이 추월당하는 부분이 갈수록 확대되고 있는 분야이다.

예를 들어, 한국의 41개 對美輸出 주력상품중 중국에 밀리고 있는 의류, 신발, 전기다리미, 전자레인지, 라디오, 전자계산기 등 15개 품목이나, 일본시장에서 중국이 위협하고 있는 염료착색제 등 화학제품, 금속제품, 기계, 통신기기, 전기기기, 수송장비, 의류, 신발, 과학기구, 시계, 고무제품 관련기술 등을 들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경쟁관계가 노동집약적인 경공업제품에만 국한되지 않고 최근에는 기계, 전기, 전자 등과 같은 高附加價值商品의 比重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실제로 컴퓨터부품, 직류전동기, 주철방열기는 대만을 제치고 한국 수입품의 주력 국가로 등장하고 있다.

2) 中國이 필요한 기술을 韓國이 보유한 경우

韓中修交 이후 중국으로부터의 공식적인 기술협력 제의가 증가추세에 있으며, 활발한 교류가 예상되는 부분이다. 1990년 이후 山東省, 福建省, 海南省, 大連市, 威海市, 瀋陽市, 陽江市, 廈門經濟特區 등에서 발표한 외자유치 희망분야(제조업) 1,789건을 분류해 보면, 기계, 전기기기, 화학부문에 집중되어 있어(72.2%) 중국 産業構造調整政策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상위 10개의 산업 비중을 보면 기계공업(12.3%), 비금속광물제품 제조(9.7%), 식품제조업(8.8%), 화학공업(8.6%), 전기기계 제조(6.9%), 금속제품 제조(5.1%), 전자 및 통신장비 제조(5.0%), 운송장비 제조(4.9%), 플라스틱제품 제조(5.1%), 목재가공(3.6%), 음료제조(3.1%) 순이다. 업종별 중점 분야를 구체화해 보면 다음과 같다.

한편, 韓中修交 이후 중국측에서 공식적으로 협력을 요청하고 있는 분야를 정

중국의 외자유치 희망분야

산업 별 분류	중점 희망 분야
기계공업	일반목적용 기계부품 제조, 특수목적용 기계 제조, 일반목적용 기계 제조, 일용 기계 제조
비금속광물 제조업	벽돌·타일·석회·기타 경질건축재료 제조, 유리 및 유리 제품 제조, 도기 제조
식품 제조업	빵·과자 제조, 통조림식품 제조, 수산물 가공, 식품첨가물 제조
화학공업	유기화학제품 제조, 기본 화학원료 제조, 일용 화학제품 제조, 합성재료 제조
전기기기 제조업	전기공급 및 제어장치 제조, 전기기기 제조, 일용 전기기기 제조, 조명기기 제조
금속제품 제조업	일용금속제품 제조, 공구 제조, 철선 및 철선제품 제조, 금속표면 처리
운송장비 제조업	자동차 제조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플라스틱필름 제조
목재 가공업	파이버보드 제조
음료 제조업	주정 제조

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① 중국 8차 5개년계획

총 3천억 달러의 대규모 투자가 예상되는 中國의 8次 5個年計劃에 대한 한국의 공식참여 요청이 1992년 말 입찰계획이 중국측으로 통보되면서 공식적으로 제의되었다. 주요 내용은 1993년에 추진될 사업중 7개 분야 19개 프로젝트로, 제철(1개), 석유화학(7개), 비료공장 등 농업(2개), 통신(3개), 에너지(2개), 환경 설비(2개), 건설(2개) 등이다. 이들 신규사업 가운데 제철, 석유화학, 건설, 농업 분야는 주로 山東지역을 중심으로 중국 동북부지역에 밀집해 있고, 통신, 에너지, 환경 등의 분야는 吉林, 廣東, 天津 등에 분포되어 있다. 사업별 단위규모는

5천만 달러에서 3억 달러이며, 석유화학분야의 에틸렌공장은 연산 14만톤 규모인 것으로 판단된다.

② 揚子江 종합개발계획

중국은 揚子江 연안의 28개 도시, 8개 지구를 한데 묶은 “揚子江 경제권” 형성을 위해 2000년까지 국내자본 1조원과 1백억 달러의 외자를 투입할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른바 “揚子江 전략”이라는 이 구상은 上海의 浦東에서부터 四川省 重慶까지의 광범위한 지역을 포괄하고 있다. 중국 정부는 1993년 3월 유엔 工業開發機構(UNIDO)를 통해 한국정부와 기업의 참여를 공식적으로 요청하였다. 중국 對外經濟貿易部가 제의한 프로젝트는 총 238건, 57억 3백만 달러로 지역별로 살펴 보면, ㉠ 四川省 104건, 45억 3천 9백만 달러, ㉡ 湖南省 32건, 3억 9천 6백만 달러, ㉢ 上海 32건, 3억 7천 3백만 달러, ㉣ 湖北省 31건, 1억 8천 1백만 달러, ㉤ 江蘇省 19건, 1억 5백만 달러, ㉥ 江西省 13건, 4천 4백만 달러, ㉦ 安徽省 7건, 6천 4백만 달러 등이다.

③ 對韓 기계합작분야

韓國機械工業振興會는 1992년 11월 北京을 방문, 중국측 창구인 중국 國際商會 機械電子行業分會로부터 94개의 협력 프로젝트를 제의받았다. 중국측이 제시한 프로젝트는 瀋陽, 大連, 威海, 하얼빈市와 山東省, 安徽省 등 6개 지역에 걸쳐 진행될 각종 설비투자 계획이 포함되어 있다. 주요 분야를 보면, 자동차 및 냉장고 부품, 열처리 생산라인, 공압장치, 산업용 보일러, 에어컨, 수평머시닝센터, 공작기계 등이다.

한편, 遼寧省 기계공업위원회는 수직 원형테이블 연삭기, 공작기계, 온도감지기, 중소형전력변압기, 컨덴서, 광학기기, 디젤엔진 등 80개의 프로젝트를 제의했는데 대부분 관련제품 개발과 생산을 위한 기술도입 및 생산장비의 수입건이었다. 중국 동해 연안에 자리잡고 있는 安徽省의 機械工業廳도 냉장고, 전기다리

미, 온도조절기,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등 신소재 및 가전관련 기술, 그리고 전선, 전원공급장부품, 완전유압식, 굴착기 등 56개 프로젝트를 제의해 왔다. 그밖에 하얼빈市 機械工業局은 정밀 목재공구 등 26개 프로젝트를, 瀋陽市 計劃經濟委員會는 기계, 자동차, 컴퓨터 등 370건의 협력 프로젝트를 제시하고, 국내기업의 참여를 타진해 왔다. 1992년 이후 중국측으로부터 협력 요청은 모두 636건으로 집계되고 있다.

④ 석유화학분야

賀國強 中國 化工部 차관 등 대표단 8명은 1993년 2월 10일 방한, 한국측에 12개 품목의 기술협력을 제의하였다. 주요 협력 희망분야는 옥탄올, 폴리아세탈수지, 폴리메탈메타아크릴레이트, PVC 페이스트레진, PVC 가공, BTX(방향족), 카본블랙, 발포폴리스티렌, 농업용 필름, ABS(아크릴로니트릴부타디엔스티렌) 가공, NCC(나프타 분해공장) 등이다.

⑤ 자동차부품분야

중국의 지역별 자동차공업 시찰단들은 지속적인 방한과 함께, 기술제휴 및 합작투자를 통한 韓中 부품업체간의 협력을 적극적으로 요청해 오고 있다. 北京 자동차공업 시찰단은 자동차용 리프스프링, 프로펠러 샤프트 등 31개 부품에 대한 자동차산업 대외협력프로젝트에 한국측의 참가를 희망했고, 遼寧省과 安徽省에서도 中小企業振興公團을 통해 20개의 자동차관련 프로젝트에 대한 한국측 중소 자동차부품업체의 참여를 요청하였다. 遼寧省에서는 디젤엔진 제조 및 설계 기술, 대중형 버스 차체 및 프레임 에어서스펜션, 자동차기구패널 제조기술 등 8개 프로젝트를, 安徽省에서는 자동차 전자분사기 및 자동차용 스타팅모터, 경자동차용 기어박스, 자동차엔진 피스톤링 등 12개 프로젝트를 제안하였다.

⑥ 철강분야

1992년 11월 7일 방한한 중국 철강 사절단(단장 : 리밍 中國冶金工業部 차관 겸 寶山강철연합공사 회장)은 寶山강철연합공사가 廣州 및 浙江省 寧波에 추진 중인 제철소 건설에 한국업체의 투자 및 기술협력을 요청하였다.

⑦ 중소기업분야

1992년 5월 19일 중소기업진흥공단을 방문한 중국의 中國工業經濟協會 대표단(단장 夏志武 비서장)은 한국의 중소기업과 협력하기를 희망하는 282개 품목을 제시하였다. 특히 자동차플라스틱연료탱크, 심장보조기, 정밀볼스크류 등 경쟁력 있는 국내보유기술이 많아 기술협력이 활기를 띠 것으로 보인다.

⑧ 중국 河北省 제의

河北省은 「발해만 발전계획」을 주도하면서 한국과의 긴밀한 투자 및 기술교류를 제의하고 있다. 특히 石家莊, 唐山, 秦皇島 등을 “河北省 경제개발특구”로 설정, 이곳을 발전거점으로 삼고 있다. 최근 河北省 경제사절단이 방한하여 66억 달러 규모의 812개 프로젝트에 대한 한국측 참여를 요청하였다. 이 가운데 1백개는 대기업과 나머지 712개는 중소기업과의 교류를 희망하고 있는데, 주요 기술협력 분야를 보면, 機械, 化學, 電子, 醫藥, 冶金, 建築資材 등이다.

⑨ 北京市 제의

1993년 2월 22일부터 28일까지 방한한 張百發 北京市 常務 부시장 등 44명의 「北京市 투자촉진단」은 9억 5천만 달러 규모의 33개 프로젝트를 제시하였다. 주요 분야를 보면, 北京 지하철 남북新線 개발, 지하철차량 제조, 자동차 부품, 장식재 제조 등이다. 현재 北京市는 기간시설 건설에 20억 달러 규모의 200여개 프로젝트를 추진중에 있다.

⑩ 吉林省 제의

吉林省 劉希林 副省長을 대표로 하는 141명의 「吉林省 경제대표단」이 1992년 9월 28일 방한하여 자동차, 유화, 식품가공, 목재, 고무, 제지(특히 담배필터 제조), 철강(냉압연방식) 등 200여개 프로젝트를 제시하면서 투자 및 기술협력을 요청한 바 있다. 吉林省은 운수공업, 석유화학공업 등에서 강점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長春 第一自動車工場을 비롯 여객차, 트랙터, 오토바이 공장은 중국 최대규모이다. 트럭은 중국 전체 생산의 2분의 1, 자동차는 5분의 1, 객차는 4분의 1을 점유하고 있다.

⑪ 연구과제

1992년 3월 北京에서 개최된 1차 韓中科學技術長官會談에서 제안한 중국측 과제와 主觀機關은 다음과 같다.

중국측이 제안한 협력과제와 주관기관

과 제 명	주 관 기 관
•가스센서 감지기술	기계전자공업부
•CFC 대체물질 개발	浙江화학(연)
•합성수지 제조기술	北京화학산업(연)
•유리성형 재료연구	산동야금(연)
•정밀전자 세라믹재료	吉林大
•기계부품의 이온처리 응용기술	북동산업(연)
•전기전자기기 생산 응용기술	北京야금(연)
•가솔린 자동엔진 점화시스템 개발	자동화산업공사(연)
•시멘트 제조시 대기오염 방지기술	Jinan과기위
•식용 야생식물 이용 식품 개발	연변특산품(연)
•저용량 디지털 전파 교환장치	산동라디오공장
•Quartz-Crystal Device 개발	기계전자공업부
•비단 가공	浙江비단(연)

3) 韓國이 필요한 기술을 中國이 보유한 경우

중국은 일단 수입된 플랜트와 기술의 흡수·개량을 통해 중국적 노하우를 축적한 다음, 개량된 설비와 기술을 다시 低開發國家에 수출하고 있다(저개발국에 대한 기술수출비중이 89.7%). 技術輸出政策이 본궤도에 오르기 시작한 1987년부터 기술수출은 급증하고 있는데, 1991년 중국의 기술수출은 462건에 12억 7천 7백만 달러를 기록하고 있다. 기술수출은 전체 계약의 91%가 플랜트 수출이 차지하였는데, 예를 들면 파키스탄의 수력발전소 발전설비와 섬유설비공장, 인도네시아의 시멘트 생산설비 등이다. 최근 기술수출분야가 전자, 기계, 통신, 화공 등 16개 분야로 크게 확대되고 있는데, 외국과의 합작투자, 중국 국방기술의 적극적인 民需轉換(conversion) 때문으로 해석된다.

1991년도 중국의 기술수출국가 현황

	파키스탄	시리아	인도네시아	구소련	이 란	홍콩	독일	기타	총 계
계약건수	20	2	37	40	10	49	15	289	461
금액(억달러)	1.82	1.81	1.53	0.76	0.75	0.7	0.5	4.9	12.77

韓中科學技術協力에서 특히 우리가 관심을 갖는 부분은 ① 大學, 研究所 등에서 보유하고 있는 상용화 가능성의 첨단기술분야, ② 資金不足으로 상용화되지 못하고 있는 중국의 特化技術分野, ③ 세계 수준에 육박하고 있는 항공우주 등 국방관련 민수화 기술분야 등이다. 중국정부가 수출품의 하이테크화를 추진하기 위한 시책으로 전국 8천여개의 연구기관중 1백개를 선정, 이들이 생산하는 제품을 직접 수출할 수 있도록 輸出經營權을 부여한데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대학 및 연구기관들은 상당 부분 높은 수준의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또한 세계적 수준의 항공우주나 물리학 등의 분야 이외에도 특정분야에 대한 인력과 투자를 집중한 그동안의 科學技術政策으로 특화된 분야의 기술수준이 우리를 능가하는

부문도 많다. 貴州省의 省都인 貴陽市는 전반적인 경제수준은 한국의 1960년대 수준인데도 불구하고, 高度技術部가 운영하는 렌즈공장의 렌즈작는 기술은 한국보다 앞서 있는 경우가 한 사례이다. 또한 중국의 현역 및 퇴직과학자들이 설립한 長春實用技術研究所(소장 : 徐鳳春)가 개발, 한국과의 상품화 합작을 모색하고 있는 4가지 기술도 世界技術市場에 충격을 줄만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4가지기술은 ① 자동차 매연처리 촉매로 白金 등 귀금속을 사용하지 않고 화학처리하는 방법, ② 대형차량 연료인 경유가 영하 25도 이상에서 凝固하지 않도록 하는 방법, ③ 내용물이 밖에서 보이는 투명도자기 ④ 일곱 가지 무지개색 불꽃이 이는 양초제조법 등이다. 그러나 국가차원의 체계적인 정보수집능력 부족과 政策不在 등으로 필요기술을 파악하고 접근할 수 있는 네트워크가 매우 미흡한 실정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

최근들어 중국의 선진기술을 도입하려는 노력들이 추진되고 있지만, 아직은 시작단계에 불과한 실정이다. 중소기업진흥공단은 中國政府 및 中國中小企業國際合作協會(CICASME)와 협력관계를 맺고, 국방관련 기술을 비롯, 소재개발(형상 기억합금 등), 레이저, 화공기술, 발전기술 등 첨단기술을 적극도입할 계획을 보이고 있다. 특히 소재부문은 사업자금 부족으로 사장된 기술들이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고, 항공우주분야는 선진국에 비해 로열티가 값싼 이점이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삼성그룹도 항공, 의약, 생명공학 등 중국의 첨단기술을 적극 도입(34개), 상용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추진중에 있는 등 기업차원의 필요기술 발굴 및 활용은 점차 증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편, 1992년 3월 “韓中科學技術長官會談”에서 제기된 38개의 공동연구 프로젝트 중에서 한국측이 제안한 내용을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4) 韓國과 中國이 모두 보유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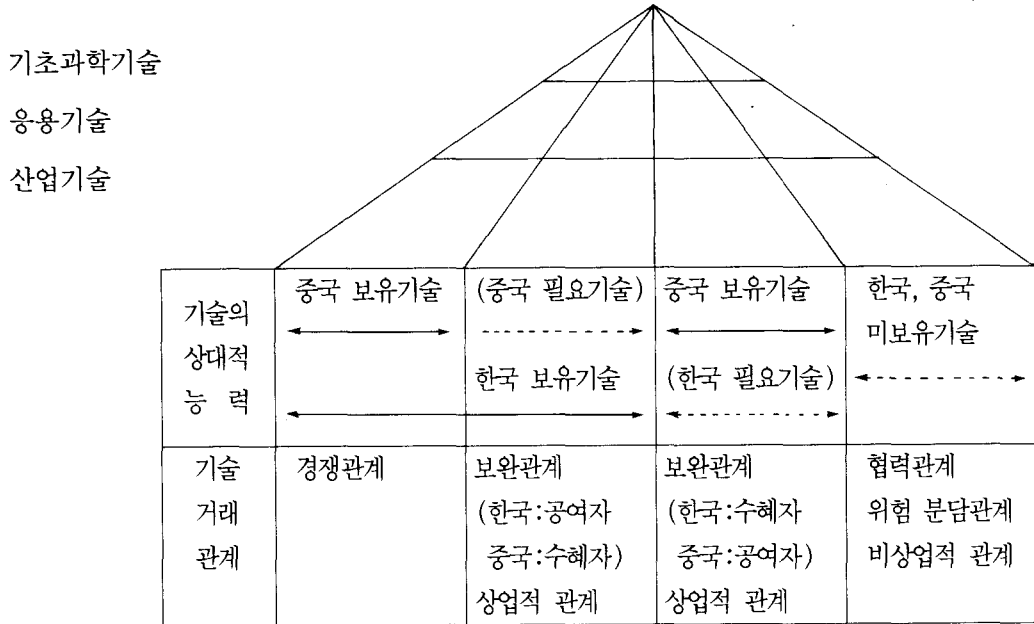
이 경우는 企業次元보다는 政府次元에서의 의지와 노력이 필요하다. 대부분 산

韓中과학기술장관 회담시 合意한 주요 연구과제

과 제 명	연 구 기 관	
	한 국 측	중 국 측
• 저수분 영역의 측정도 향상연구	표준과학(연)	국가표준물질센터
• 오차보상형 Cross Capacitor 개발	"	계량과학(연)
• 고압가스 유량측정 기술개발	"	上海공정자동화(연)
• 극저온 구조용재료의 역학특성평가	"	금속(연)
• X선 리소그래피용 파장개선 코헤런트 XUV-연 X선 광원기술	"	上海광학정밀기계(연)
• 고출력 펄스 레이저 응용기술	"	"
• 광음파 응용기술개발	과기(연)	"
• 소형집약형 Nd:YAG 레이저 개발	"	"
• 선형가속기관련 고주파발생장치 개발	포항공대	고능물리(연)
• 고주파 유도형밸브 개발	"	"
• 고주파위상 및 진폭조절시스템개발	"	"
• 고성능 전자발생장치 개발	"	"
• 넓은 이력을 갖는 형상기억합금 개발	과기(연)	北京유색금속
• 천연 약용 화합물 개발	인삼연초(연)	上海약물(연)
• 무연탄의 유도층 연수발전기술개발	에너지(연)	남동대
• 자원공동개발을 위한 선풍 및 선탄분야	자원(연)	北京선풍제련(연)
• 제어발파에 의한 구조물 해체기술	"	역학(연)

업기술보다는 기초과학기술이나 응용기술분야로 연구기관 및 대학의 공동연구 과제이기도 하다. 漢方의 科學化, 농업기술협력이나 서해의 공동탐사, 기상 및 환경연구, 生態研究 등을 예로 들 수 있으며, 특히 환경기술분야의 협력은 중국의 공업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이 한반도에 영향을 주게 됨에 따라 이에 대한 특별한 과학기술프로그램이 조속히 추진되고 구체화되어야 할 것이다.

科學技術協力對象의 전략적 선택틀



3. 對應戰略

1) 협력주체의 多元化와 役割定立

韓中 양국은 먼저 정부, 연구기관, 대학, 기업간의 체계적인 역할 정립이 요구된다. 즉, 정부는 巨視的 戰略樹立, 관련정보의 신속한 수집·분석·배포, 제도적 지원을 차질없이 수행하고, 연구기관 및 대학은 공동연구나 활발한 인적교류를 통해 기술혁신의 초기 단계부터 기술협력을 강화하며, 연구의 결과를 효율적으로 기업에 이전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하며, 기업은 성장잠재력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장기적인 전략과 수요지향적인 네트워크를 형성해 나가야 한다. 특히 중국은 지방정부, 기업집단, 鄉鎮기업 등 협력주체를 多元化하고 중국의 정책

환경요인을 면밀히 분석, 탄력적으로 대응해 나가야 한다.

구체적으로 ① 국제정치경제환경의 변화에 따른 양국 정부차원의 범부처적 거시전략 수립이 시급하다. 韓中科學技術協力は 투자이익의 실현이나 필요기술의 이전 등 단순한 기업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동북아 질서의 재편이라는 국제환경의 변화와 긴밀하게 맞물려 있기 때문이다. 특히 多者間 협력프로젝트로 구체화되고 있는 UNDP의 “豆滿江開發計劃”도 한국과 북한보다는 중국과 일본에게 주도권이 넘어가고 있는 현실이 되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 아래에서 양국의 産業構造調整問題, 중국시장내에서의 경쟁, 중국의 급속한 공업화로 인한 환경문제 등 凡部處的인 綜合對策의 樹立이 요구되고 있다.

② 한국은 중국에 대한 정밀한 각론적 분석과 신속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중국에 대한 情報不在 現像은 공식적인 양국 외교관계 수립이 늦게 이루어졌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체계적인 정보수집능력의 미비와 전문연구인력의 부족에서 찾을 수 있다. 특히 전환기의 중국은 각종 제도, 정책들이 수시로 변화하는 역동성을 내재하고 있어 다양한 정보의 신속한 분석이 요구된다. 韓中 科學技術協力の 기본전략은 중국의 강점기술인 첨단분야를 한국쪽에 접목시키면서 중간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한국은 생산기술을 중국에 이전하는 상호 호혜적 기술교류이다. 특히 중국에 대한 분야별, 지역별 기술수요와 人的 事項을 광범위하게 조사하여 구체적인 기술협력분야 및 과제를 우선 도출해야 한다. 또한 중국 현지에서는 駐中大使館, KOTRA, 政府投資機關 기업 등의 지점을 긴밀하게 연계시킨 情報收集共有體制를 시급히 구축하고, 한국에서는 이를 종합·분석할 수 있는 기관의 체계화가 필요하다. 아울러 양국간 기술정보교류 채널을 확충하고, 특히 중국의 기술시장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와 연계도 활성화시켜야 할 것이다.

③ 한국정부의 제도적 지원메카니즘의 실질적 운영과 효율성 제고를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 韓中修交 이후 중국과의 교류에 대한 허가조건이 크게 완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심의절차 등 실질적인 운영에서 나타나고 있는 문제점 등이 개선되지 않고 있는 형편이다. 또한 중국과의 체제, 법, 제도, 관행 등의 차이에

서 오는 기술협력의 불리한 점도 한국에서는 적극 대처해야 하며, 정부차원의 기술협력에서 실현성없는 형식적인 合意導出이 실질적인 기업차원의 기술협력과 연계되고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치밀한 사전 준비가 특히 필요하다.

④ 지방정부차원에서 중국의 협력주체에 대한 다원적인 접근방법이 요구된다. 중국은 실질적으로 22개 省과 5개 자치구, 省급 도시인 北京, 天津, 上海 등 30개의 小國으로 구성되어 있다. 최근의 경기과열과 경쟁의 심화로 중앙정부의 통제가 다시 강화되는 조짐이 보이고 있지만, 지방정부는 자체 經濟計劃을 강화하는 등 오히려 地方活性化는 더욱 증대되고 있는 실정이다. 예를 들어, 투자의 認許可도 3천만 달러 이하는 省차원에서, 3백만 달러 이하는 市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자체 경제개발계획에 따라 집중 육성산업도 다양하게 전개되고 있다. 제8기 全人大에서 副總理 겸 國家計劃委 主任인 鄒家華는 경제보고를 통해 향후 중국의 外資投資誘致 기본방향으로 지역별 업종특화를 통한 개방지역의 全國化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중국 전역을 10대 地域經濟圈으로 나누고 업종별로 특화하는 계획인 것이다.

이와 같은 상황에 따라 上海에서는 섬유기계 수입허가증을 받기 어렵지만, 湖北省, 四川省에서는 최우선적으로 허가해 주고 있다. 投資誘致産業도 지역에 따라 달라 廣東省은 봉제분야는 허가를 내주지 않는 반면, 내륙지방에서는 적극적으로 유치한다. 결국 지역마다 投資優先順位와 投資環境이 천차만별로 달라 지방정부별 협력주체에 대한 새로운 접근방법과 시각이 필요하게 되었다.

⑤ 중국의 기업환경 변화에 따른 기업집단이나 鄉鎮企業, 그리고 產學協力體에 대한 다양한 접근 경로를 개발해 나가야 한다. 중국은 ㉑ 자본축적과 기술개발능력의 향상을 통한 産業構造의 高度化, ㉒ 소수 기업집단을 통한 巨視經濟 統制의 강화, ㉓ 공업부문의 효율향상을 통한 중앙정부 재정부담의 완화, ㉔ 중국 기업 해외진출의 강화 등 4가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100개 대형 기업집단의 육성조치를 취한 바 있다. 1차로 1991년 9월부터 55개 대형 기업집단을 실험적으로 육성하고 있는데, 대부분이 철강, 자동차, 항공우주, 전기전자, 컴퓨터, 정밀

10대 지역경제권 업종별 특화내용

지역구분	해당지역	주요특화업종
동북경제권	黑龍江省, 吉林省, 遼寧省, 내몽고	중공업(특히 군수산업), 농림 목축업, 농임산물가공업
발해(華北)경제권	河北省, 山東省, 北京, 天津	지식·기술집약산업, 수출주도형 경공업, 수산업
양자강삼각주경제권	江蘇省, 浙江省, 上海	고도정밀산업(전자, 반도체), 금융·부동산, 정보·통신산업
화남경제권	광둥성, 복건성, 광서장족자치구, 해남성	수출주도형 경공업, 금융·보험
황하중류경제권	산서성, 섬서성, 하남성	에너지벨트 및 중화학공업기지 우주·항공, 임산물가공업
양자강중류경제권	湖南省, 湖北省, 江西省, 安徽省	수상교통의 중심지, 농임산물 가공경공업
황하상류경제권	감숙성, 청해성, 영하회족자치구	지하자원, 수력발전개발
양자강상류경제권	四川省, 貴州省, 雲南省	에너지집약산업, 농림산업
신장경제개발구	신강위그루자치구	석유 및 석유화학, 농림목축업
티베트특별경제구	티베트자치주	국가지원사업, 농림목축업

기계, 석유화학 등 資本集約的인 基幹産業과 未來指向的인 尖端産業에 집중되고 있어, 이들 핵심기업과 한국의 대기업간의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중국정부는 산업체, 대학, 연구소가 「産學研聯合體」를 설립, 1995년까지 5만건의 신기술과 신제품을 공동개발하는 한편, 연 10億元 상당의 첨단 제품을 판매할 첨단기술기업의 육성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또한 星火計劃의 핵심 주체인 지방의 鄉鎮企業들도 비약적으로 성장해 나가면서 중국경제의 새로운 발전 추진체로 등장하고 있어, 한국의 中小企業들도 효율적인 중간기술이전 전략을 연구해야 한다. 기업집단이나 産學研聯合體, 鄉鎮企業 등 중국의 다양한 협력주체에 적합한 다원적인 기술협력전략의 개발이 요구되고 있다.

2) 政策要因의 分析을 통한 對應力 提高

科學技術協力 과정은 확보되어야 할 기술분야 파악, 국내기술능력 및 국제협력 현황조사, 협력대상국의 기술협력 가능분야 분석, 기술협력전략의 구체적 수립 등의 과정을 갖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에서 중요한 사실은 협력대상국의 향후 정책기조와 구체적인 정책내용들이 협력대상분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이다. 이것은 상대국의 기술협력 수요를 파악하는 중요한 변수가 되기 때문이다.

- ① 중국의 주요 정책이슈와 정책변화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분석을 통해 대응력을 높여야 한다. 예를 들어, 2000년까지 1억회선의 통신망을 확보하기 위한 중국의 通信網 現代化計劃은 세계시장의 20%에 해당하는 엄청난 파급효과를 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최근 중국의 주요 정책이슈들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 ② 全方位 開放戰略의 추진에 따른 技術協力패턴의 多元化가 고려되어야 한다. 沿海, 沿邊, 沿江, 沿線의 이른바 '4沿 開放戰略'은 全方位 개방을 통해 지금까지 연안항구도시에 집중된 外國人投資를 내륙 및 변경까지 끌어 들여 외자 및 기술의 충격효과를 내륙까지 확산시키려는 전략이다. 따라서 대부분 동북부지방에 편중되어 있는 한국의 협력패턴을 다원화시켜야 할 것으로 보인다.
- ③ 8차 5개년계획은 1995년까지 중국의 발전방향을 담고 있어 협력대상분야의 선정시 중요한 지침이 될 수 있다. 특히 1992년 9월 28일 韓中通商長官會談時 李嵐靑 中國 對外經濟貿易部長은 8차 5개년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에너지·전자·화학분야 등 23개 프로젝트에 한국이 참여할 경우, 稅制支援 등 이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밝힌 바 있다. 8차 5개년계획의 주요 내용을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韓中 科學技術협력에 고려되어야 할 中國의 政策이슈

주 관 부 서	주 요 정 책 이 슈
전자공업부	전자집적회로(IC), 컴퓨터, 소프트웨어, 전자식교환기 등 4개 분야를 전략산업으로 지정, 특별우대정책 실시('91.5)
能源部	석탄산업의 현대화를 위해 첨단기술 및 장비 도입('92.6)
당중앙위	상업, 금융, 수송, 관광, 서비스 등 3차산업의 신속한 발전추구('92.7)
대외경제무역부	외국인 참여 금지분야(에너지, 운송, 광산, 농업, 산림업, 목축업) 및 제3차산업(관광, 금융, 상업 등)에 대한 개방('92.7)
방직공업부	섬유산업을 주력 업종으로 육성하기 위한 관련설비 및 기술 도입('92.7)
교통부	철도와 항공을 제외한 수송분야 개방('92.7)
국가물가국	국가가 독점해온 593개 품목의 생산재에 대한 가격자유화('92.9)
국가계획위	2000년까지 첨단상품 수출비중을 현재 1.8% 수준에서 30% 수준으로 높이기 위해 생명공학, 신소재, 기계 및 전자, 전자통신, 에너지 및 환경 등 첨단분야의 집중 육성('92.11)
교통부, 철도부	도로, 철도, 항만시설, 운수시설 경영 등에 대한 대폭적인 개방으로 선진기술장비 및 과학적 경영관리기법 도입('93.1)
교통부	대형건설프로젝트의(1만 3천km의 고속도로, 8개 항구의 15개 심해 정박시설, 揚子江 및 황강의 교량 건설 등) 외국자본, 기술 적극 유치('93.1)
郵電部	전기통신시설 건설 및 장비 제조, 고용량 디지털 전화교환기, 광섬유시스템, 이동통신 및 위성장비 분야에 대한 기술향상 및 생산설비 확충('93.2)
중국석유천연 가스총공사	신강 타림분지를 비롯 10개 성·시·자치구의 12개 지구 석유개발을 외국기업에 개방('93.2)
핵공업총공사	원자력발전소 건설에 외국투자 집중 유치('93.3)
대외경제무역부	향후 4년 동안 강재, 석유, 펄프, 컴퓨터, 냉장고, IC, 복사기, 농약 자동차 새시 등 46개 품목의 수입자유화계획('93.3)
기계전자공업부	외국에 전액출자 방식의 발전소 건설 개방('93.3)
상업부	식품산업을 개방, 첨단식품 가공기술 도입 및 전문인력 유치('93.3)
국가과기위	생물공학분야의 적극 육성, 외국과의 공동연구 강화('93.4)

'4沿 開放戰略'의 내용

沿海開放	경제특구(5개), 삼각지대(珠江, 長江, 閩南), 2개 開放區(山東, 遼東), 14개 연안도시 개방
沿江開放	揚子江 상하류의 28개 도시(重慶, 武漢, 寧波, 杭州 등)를 개방, 자원 개발 산업, 수출가공산업, 하이테크산업을 유치·육성
沿邊開放	동북변경(黑龍江, 內蒙古, 吉林, 遼寧), 서부변경(新疆), 남부변경(雲南, 廣西)등 국경지대에 변경무역에 적합한 경공업형 산업단지 육성
沿線開放	連雲港-蘭州-우루무치에 이르는 중국의 동서내륙횡단철로(TCR : Trans-China-Railway) 주변에 농산물가공, 경공업, 자원개발업종 유치·육성

중국의 8차 5개년계획

분야	주요 계획
•수리·관개 등 농업기반 정비	南水北調(長江의 물을 黃河에 끌어 들임), 引黃入晉(黃河의 물을 山西省에 끌어 들임)
•조림사업	6백70만ha의 식수 조림
•석탄개발	대형 노천탄광 개발, 광구 확장·신설
•전력개발	수력, 화력, 제2원자력 발전
•석유·천연가스 개발	8개 중점프로젝트에 대해 자원탐사, 개발
•철도건설	주요 간선의 디젤화·전기화
•도로건설	고속도로 건설
•항만건설	전용부두 건설, 접안능력 증강
•공항건설	각 공항의 개축 및 확장 공사
•통신건설	전화보급, 대용량 디지털통신 간선망, 통신위성 지상지국
•원재료공업	1백개의 대중형 프로젝트 진행(제철, 알미늄, 화학플랜트)
•전자·기계·경공업·방직 등	각 분야에서 일련의 국가중점계획 진행

④ 중국이 추진하고 있는 產業構造調整政策이다. 투자유치업종이 기존의 단순 가공업 중심에서 社會間接施設, 流通, 觀光 등 3次産業 중심으로 옮겨 가고 있다. 현재 중국의 3次産業이 GNP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27.3%, 1, 2차산업 대 3차산업의 인구증가 비율은 1:0.3을 보이고 있는데, 중국정부는 앞으로

금융, 정보통신, 교통, 과학기술자문 등 社會化 및 都市化 서비스부문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消費市場 物價安定을 위해 기초산업 생산력 증대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예상되며, 생필품의 원활한 공급을 위한 유통시장 육성도 중점적인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 ⑤ 중국의 경제성장률 및 소비패턴의 변화이다. 1993년 중국경제는 약 13.4%의 성장을 이룩하였다. 景氣過熱로 인한 소폭적인 緊縮調整 가능성을 감안하더라도 평균 8-9% 이상의 고도성장을 구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은 高度成長과 관련된 資本材, 原資材의 수입수요가 크게 증가할 수 밖에 없고, 국민의 소득수준이 1990년의 350-400달러 수준에서 1995년 650-700달러 수준으로 향상될 것으로 보아 내구 및 일반소비재의 수입이 증가할 것이라는 점에서 향후 협력의 주요 요인이 되고 있다. 지난 70년대 자전거, 재봉틀 및 시계로 대표되던 중국소비자들의 3대 소비품이 80년대 들어서 TV, 냉장고, 세탁기 등의 가전제품으로 바뀐 「제1차 消費革命」이 일어났고, 최근에는 VTR, 에어컨, 전자레인지 등 이른바 ‘新3神器’로 소비패턴이 고급화, 다양화, 개성화되면서 「제2차 消費革命」이 대두되고 있다.
- ⑥ 1997년으로 예정되어 있는 홍콩과의 合併은 당사국인 중국이나 홍콩 뿐만 아니라 東北亞 國際政治經濟的 環境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본다. “The Wall Street Journal”지는 10년 후인 2003년의 세계경제지도의 재편을 전망하면서, 홍콩, 대만을 포함하는 中國經濟圈이 창출될 경우, 1990년 세계무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4.2%였으나, 2000년까지는 6.5%, 2003년까지는 20%를 차지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이것은 1990년 세계무역에서 차지했던 미국(11.3%)과 일본(8.3%)의 비중을 능가하는 결과가 되며, 또한 중국은 1997년 홍콩을 편입하면 금융중심지를 획득함으로써 이를 통해 빠른 속도로 자본을 도입하는 資本輸入國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실질적으로 5년 후의 중국은 GNP, 수출, 외환보유고, 기술력, 자원개발 등 거의 모든

면에서 지금의 중국과는 비교가 안될 만큼 국력이 신장될 것으로 전망한다.

3) 교섭력(bargaining power)의 강화

외국과의 기술협력은 자국의 희망만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며, 기술협력을 하고자 하는 상대방의 이해관계, 기술능력에 따라 협의 결정하게 된다. 이 협의과정에서 협력관계가 어떻게 결정되느냐 하는 것은 쌍방의 交渉力에 따라 영향을 받는다. 교섭력은 ① 상대방을 보는 시각에서부터 비롯된다. 중국을 만만한 장미빛 시장으로 보는 시각이나 가공할 경쟁상대자의 측면만 지나치게 강조하는 양극단은 지양해야 한다. 실질적으로 최근 서구 언론들이 경계의 시각을 늦추지 않은 것처럼 中國의 潛在力은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중국이 가지고 있는 구조적 한계, 內在的 矛盾 등 개혁의 걸림돌이 곳곳에 돌출되어 있는 현실도 냉철하게 직시해야 할 것이다. 객관적이고 장기적인 안목으로 中國의 科學技術資產을 최대한 공유할 수 있는 理性的인 視覺이 필요하다. ② 상대방의 전략과 정책에 대한 정확한 판단이다. 韓中修交 이후 많은 中國人士들이 방한한 바 있다. 韓中關係는 “競爭關係보다는 相互補完關係가 강하다”와 “투자를 동반한 기술협력을 원한다”의 두 가지로 요약된다. 지금 중국에 필요한 것은 야심찬 발전계획을 추진할 수 있는 外國資本과 先進技術이다. 經濟特區, 經濟技術發展區, 高新技術產業開發區를 설치하고 각종 제도적 특혜를 주면서 외국기업들을 유치하는 것도 바로 이 두 가지를 획득하기 위한 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실제로 중국과 합작한 대부분의 기업들은 고급기술이전에 대한 중국의 강한 요구에 직면하고 있는 실정이다. 중국은 중앙정부나 지방정부나 ‘尖端技術 缺乏症’에 걸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자국이 보유하고 있는 항공우주, 레이저 등 고급기술의 대외이전에 대해서는 철저한 원칙과 경계심으로 쉽게 내주지 않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인식한 일본은 기술을 줄듯 줄듯 하면서 철저히 실속을 챙긴 후에

주는 전략을 구사했고, 미국이나 EC 등이 중간기술 위주로 중국에 대한 技術移轉을 하고 있는 것도 이와 같은 맥락이라고 하겠다. 중국은 이미 세계 각국의 치열한 기술전쟁터가 되어 가고 있으며, 그 와중에서 발빠르게 외국의 기술을 소화 흡수하여 잠재력을 키워 나가는 중국을 생각해 본다면, 한국의 對應戰略은 전면 재검토되어야 한다. 機會와 危險이 병존한다면 위험회피 수단을 찾아 적극 대처하는 길밖에는 별다른 처방이 없다고 하겠다.

VI. 새로운 시도와 결단

중국과 한국은 매우 가까운 地理的 條件을 갖고 있는 이웃 나라다. 한편, 文化的 同質性을 갖고있는 兄弟國家로서 역사적으로 보더라도 일본과는 달리 매우 친근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경제적으로도 중국은 한국이 필요로 하는 資源과 勞動力을 갖고 있고, 자본과 기술 그리고 개발 및 경영관리능력은 한국이 갖고 있다. 현재 중국이 비록 산업 기술면에서 취약점을 갖고 있고 商業化에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항공, 우주, 기초과학 등 여러 분야에서 한국을 능가하고 있는 저력있는 大國임에 틀림없다. 이제 韓中 양국이 新國際秩序가 형성되고 있는 세계의 흐름 가운데에서 과학기술 협력을 통한 경제개발계획을 성공적으로 앞당기기 위해서는 ① 상호 공동연구개발(HDTV, 光通信, 이동통신, 항공기, 자동차부품 등), ② 시범협력과제(합의된 38개 과제중) 선정 및 추진, ③ 인력 유치 및 파견, ④ 기술조사단 교류, ⑤ 研修實施, ⑥ 각종 전시회개최 등의 실질적인 계획이 심도있게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韓中 양국은 信賴性을 전제로 한 새로운 시각 아래에서 다음과 같은 도전과 시도가 적극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1. 中國은 천연자원, 풍부한 노동력, 넓은 시장, 軍事力과 같은 유일한 재산을

잘 유지 발전시켜야 한다.

2. 兩國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이 老朽化되어 세계시장에서 낙후되지 않도록 각자 노력하고 유지 확보하여야 한다. (제품의 差別化戰略, 生産費 저하 추진, 특정제품의 특정시장 집중공략 등)
3. 跳躍을 위한 양국의 과학기술정책(투자, 인력, 행정체제, 정보화 등)이 꾸준히 추진되어야 한다.
4. 양국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은 상호분야별로 신속히 이전하여야 한다.
5. 특히 한국은 生産技術 및 産業安全技術 등을 분야별로 중국에게 이전하는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하여야 한다.
6. 중국도 자원개발과 시장을 한국에게 많이 할애하여야 한다.
7. 세계 과학기술 정보를 전문분야별로 입수, 분석, 이용할 수 있는 양국의 공동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
8. 양국은 연구주체인 연구소, 대학, 기업체의 교류를 더욱 활성화하고, 中國의 門戶(특히 VISA)를 이 분야에 우선 개방해야 한다.
9. 韓國은 중국 현지에 분야별로 공동연구소를 많이 설립하고, 신기술개발에 대처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중국의 취약점이라고 할 수 있는 R&D문제를 해결하는 방책으로는 우선 한국을 통한 借款導入이나 企業體의 投資 등을 추진해야 하나, 무엇보다도 먼저 중국자체의 國防費('94 = '93대비 22% 증가)와 R&D투자는 물론, 북한의 核開發과 軍縮問題의 직접 개입도 검토해야 할 것이다.

물론, 지금까지 한국의 平和統一 遂行에 중국의 남다른 노력이 다각도로 있어 왔다는 점도 잘 알고 있다. 이렇게 되면 한국도 군축문제를 검토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중국을 직접 지원할 수 있는 R&D를 확보하는 방안을 여기서 찾게 된다는 점을 중국은 깊이 유의해야 할 것이다. 이 기회에 본인은 한국과 중국 그리고 북한 3국이 참가하는 「東北亞 3國 科學技術共同開發機構의 構築」을

정식으로 제안하고자 한다. 이와 같은 마지막 결단과 시도가 조속히 그리고 명쾌하게 이루어질 때, 양국은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진정하고 실효성있는 韓中 科學技術協력과 世界平和 그리고 人類福祉 向上을 위한 새로운 場이 열릴 것으로 확신한다.

參 考 文 獻

金炳穆, 洪性範, 황용수, 「중국의 과학기술정책」, 정책연구 89-14, 과학기술정책 연구평가센터, 1989.

과학기술정책연구평가센터, 「선진기술의 국제적 협력전략에 관한연구」, 1987.

과학기술정책연구평가센터, 「기술이전의 환경과 전략에 관한 한일 비교연구」, 정책연구 89-22, 1990.

KIST한중과학기술협력센터, 「한중과학기술협력전략」, 한중과학기술협력세미나, 1993. 2. 12.

과학기술처, 국제기술협력통계, 1992.

과학기술처, 「과학기술연감」, 1992.

과학기술처, 「과학기술연감」, 1993.

權五寬, “한중과학기술협력현황과 전망”, 「기술관리 3월호」, 1993.

金炳穆, “중국의 과학기술수준”, 「신동아 - 부록 1월호」, 1993.

洪性範, “중국과학기술정책의 기초변화”, 「과학기술정책동향」 Vol.2, No.25 KIST 정책기획본부, 1992.

金炳穆, 洪性範, 鄭仁和, “한중과학기술협력방안에 관한 연구”, KIST과학기술정책관리연구소, 1993.

中國國家統計局, 國家科學技術委員會, 「國家科技統計年鑑」, 1991.

中國國家科學技術委員會,「中國科學技術政策指南」1992.

中國國家科學技術委員會,「主要科學技術研究發展計劃」1992.

中韓 科學技術協力 展望¹⁾

孔 德 涌 主任
(中國科技發展促進中心)

1. 中韓 科技協力の 必要性和 可能性

- 中韓 양국간의 科學技術協力は 현재 시작단계에 있지만, 앞으로 量的·質的으로 크게 확대될 잠재성이 있음. 양국간 科技協力の 必要性和 可能性을 동시에 보여주는 요인들로서 다음과 같은 것들을 들 수 있음.
- 미래의 世界 科學技術 및 經濟 方面의 뚜렷한 추세로서 地域主義와 集團化 현상이 강화되고 있음.
- 中韓 양국간에는 아래와 같은 여러 측면의 相互補完性이 존재함.
 - 풍부한 자원, 넓은 영토, 풍부한 노동력을 보유한 中國과 자원이 부족하고 高賃金인 韓國과의 相互補完性
 - 中國의 基礎研究 역량과 韓國의 技術開發能力의 결합 가능성
 - 中國의 尖端基礎技術과 韓國의 一流 生産技術간의 결합 가능성
 - 中國이 보유한 상대적 低賃의 科學技術人力の 韓國의 활용 가능성

1) 편집자註 : 이 논문은 原著者가 제출한 요약문과 세미나 발표에 기초하여 편집자가 再編譯한 것임.

- 中韓 양국간 産業構造上的 補完性
- 中國의 거대한 國內市場과 韓國企業의 현대적 企業經營 및 市場進出能力간의 결합 가능성
- 中國의 沿海開發戰略과 韓國의 西海岸 開發計劃간의 보완성

— 中韓 양국이 상당 부분 공유하고 있는 文化背景上的 類似性도 지적할 수 있음.
— 위와 같은 요소들을 고려할 때, 양국간의 科學技術協력이 적절히 추진될 경우, 化學的 反應을 통한 폭발적인 성과를 낼 가능성도 있으며, 이는 양국 발전에 모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임.

2. 中韓 科學技術協力の 方法 및 經路

- 양국간 科學技術協력을 추진하는 方法 내지는 經路로서 다음과 같은 구상을 제시하고자 함.
- 여러 영역에 있어서 工程技術研究센타를 공동설립
 - 高級技術 製品을 共同開發
 - 尖端技術을 활용하기 위한 創業支援센타(incubater)를 공동설립
 - 中韓 科學協力基金을 설치하여 양국이 공통으로 관심을 두는 분야의 基礎研究를 지원
 - 豆滿江開發計劃, 黃海圈開發 등 地域經濟開發과 연계하여 科學技術協력을 추진
 - 科學技術人力的 輸出을 포함하는 科技分野 人士交流의 확대

3. 具體的인 協力 프로젝트 構想

— 구체적인 協力 프로젝트를 모색하기 위해서 먼저 양국의 科學技術 發展計劃을

이해할 필요가 있음.

—中國은 최근 ‘90年代 經濟發展의 關鍵技術’과 ‘2000年 國防科學技術 擴散計劃’을 발표한 바 있으며, 이는 韓國의 G-7 계획과 비교될 만한 것임.

—國家計劃委員會, 國家科學技術委員會, 國家經濟貿易委員會가 공동으로 1994년 3월1일 ‘90年代 經濟發展을 위한 關鍵技術’을 공표하였음.

· 이 관건기술은 아래와 같이 7개 영역, 35항목을 포함하고 있음.

(1) 농업

- 농업생산이 낙후된 지역의 종합적인 정비
- 농작물 육종기술

(2) 에너지 및 환경

- 저온핵 활용 열 공급
- 3차 採油기술
- 석탄의 청정 이용기술

(3) 교통운수

- 고속철도
- 고속도로 및 고속화 도로
- 內陸河運관련 기술

(4) 원재료 및 자원

- 미완성 철강 박판 연속주조기술
- 산소제강기술
- 정밀화공기술
- 플라스틱 및 플라스틱 합금 공정기술

(5) 정보·통신분야

- 집적회로(IC)
- 컴퓨터
- 소프트웨어
- 전력전자
- 자동화
- 광섬유통신

(6) 제조기술

- 수치제어기술
- 레이저기술
- 대형화력발전설비 제조기술

(7) 생물기술

- 동식물 유전자 공학
- 交雜이용 암치료기술

- 미생물 공학
- 단백질 공정

-이와는 별도로 '2000년 國防科學技術 擴散計劃'도 1994년 3월2일 발표되었음.

- 이 계획의 목표는 ① 武器·裝備技術의 수준의 제고와 믿을 수 있는 高·新技術의 개발, ② 가공능력·수준이 높은 加工新技術의 開發, ③기술의 확산과 효율제고, ④ 에너지 소모의 절약, 환경의 개선 및 노동강도의 완화 등에 있음.
- 구체적인 항목으로는 ① 通信技術(신호처리 및 레이다), ② micro electronics (선진기술의 공작·절삭기계, 컴퓨터 수치제어), ③ 新素材(복합재료, 희토 재료, 기억소자), ④ 環境技術(전기도금용수배출, 인쇄전기회로판 폐액 회수, 크롬함유 폐수 자동처리), ⑤ 에너지 節約技術(컴퓨터 제어 등)을 포함함.

-위와 같은 中國의 科學技術 發展計劃은 韓國의 G-7 계획 등 科學技術 發展計劃과 상호 협력할 수 있는 영역을 다수 갖고 있음.

-한편 이와는 별도로 다수의 분야에 걸쳐 양국간 科學技術協力 프로젝트가 제안·추진되고 있음.

- 우주항공분야 : 中國의 長征계열 衛星發射體는 衛星統制 및 回收技術에 있어서 國際競爭力을 갖고 있음. 따라서 각종 衛星發射計劃을 갖고 있는 韓國과 協력이 가능함
- 핵에너지분야 : 中國이 보유한 低溫核 활용 열공급 기술방면의 협력도 추진 가능함.
- 항공기 설계·생산기술 분야 : 中國은 이미 1980년 9월부터 자체설계한 항공기를(150人乘) 운항하고 있음. 中國은 이 방면에 풍부한 技術人力과 技術資料를 보유하고 있으며, 中國 國內市場에 있어서 150人 乘정도의 中型航空

機 수요가 市場需要의 90%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므로, 이 방면의 협력전망이 밝음.

통신기술 : 中國이 현재 낙후된 분야로서 방대한 市場 잠재력이 있으므로, 韓國 기술과의 협력전망이 있음.

정보기술 : VLSI, 신세대 컴퓨터 방면에서 협력의 가능성이 있음.

이외에도 HDTV, 에너지節約 및 環境關聯 技術, 自動車 生産, 新藥開發 등의 분야에서 양국간 技術協力の 可能性이 있음.



綜合討論 要旨¹⁾

朴贊奕 (KOTRA 北京貿易館長) :

오늘의 세미나에서는 韓中經濟協力에 있어서 肯定的인 面이 부각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실제에 있어서는 否定的인 側面 또한 적지 않기 때문에 저는 몇 가지 측면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싶습니다.

첫째로, 韓國을 포함한 外國人 또는 外國企業이 中國에서 經濟活動을 하면서 각종 문제나 분쟁이 발생했을 때, 그 처리·해결 방법이 매우 취약·불투명하며, 또한 객관적이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둘째로, 外國人에 대한 二重價格의 적용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 즉, 通信, 交通관련 費用은 물론, 觀光地 入場料까지 內國人과 外國人間에 다른 가격이 적용되어 큰 문제가 됩니다. 또한 외국인 대상의 아파트·사무실 등의 경우 가격이 급등함에도 불구하고 供給增大 등 적절한 대책을 취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셋째로, 孔德涌 主任께서는 한중 양국이 儒敎文化를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양국간 協力の 가능성이 크다고 발표하셨습니다.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韓國에 비하여 오늘날에 中國에는 유교문화의 영향이 그리 뚜렷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孔主任께서는 오늘날의 中國社會에 있어서 어떤 방면에 어느 정도 儒敎文化가 작용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 편집자 註 : 현지 사정상 세미나의 녹음이 안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편집자의 메모에 기초하여 재구성한 것임.

孔德涌 主任 :

外國人에 대한 二重價格의 문제는 中國의 外換體制 改革, 특히 換率單一化 과정에서 발생하는 일시적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는 이미 일부 해결되어 가고 있으며, 앞으로 더욱 나아지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外國인이 中國內에서 지불하는 가격도 유사한 대상에 대한 外國에서의 價格과 비교할 때 오히려 더 낮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中國內에서의 유교문화의 영향이나 韓中間의 文化的 類似性에 관해서는 간단하게 대답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별도의 국제세미나가 개최되어 심층적인 토의를 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朝鮮族 企業家)

저는 琿春과 瀋陽에 있는 企業體의 總經理이며, 朝鮮族 中國人입니다. 저는 韓國企業의 投資가 왜 山東省에 집중되고, 상대적으로 東北地方 특히 延邊朝鮮族自治州에는 그리 많지 않은지 질문하고 싶습니다.

千辰煥 社長 :

韓國企業에 投資가 山東省에 집중하는 것은 1980年代末에 中國 中央政府가 이 지역을 특별히 指定·開放하여 韓國企業의 投資를 집중적으로 誘致한 것에 기인했다고 봅니다. 그러나 韓中修交 이후에는 中國의 개방 폭이 확대되면서 東北地方에 대한 投資도 늘어나고 있다고 봅니다.

金泰弘 教授 :

같은 질문에 대해서 또 다른 측면의 답변을 해 보면, 東北地方의 경우 외부와의 交通이 불편한 것도 投資가 부진한 요인이 됩니다. 그러나 앞으로 延邊地方에 대한 항공편 증설이나 琿春·자루비노간 철도와 연변지역과 北韓 청진·나진간의 운송로가 개설될 것이 전망됨에 따라 이 지역에 대한 韓國企業의 投資가 增大되리라고 생각합니다.

(中國 工商時報 記者)

제가 취재한 경험에 비추어 볼 때, 韓國企業이 投資한 中國內 企業은 勞動條件이 열악하고 勞使關係도 좋지 않아 罷業이 발생하는 등 문제가 많습니다. 왜 이러한 문제가 발생한다고 보십니까?

朴贊奕 (KOTRA 北京貿易館長) :

제기하신 문제에 대하여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러한 문제에 대한 中國의 當局이나 言論이 보다 客觀적으로 접근해 달라는 부탁입니다. 많은 경우 中國 從業員측의 일방적인 주장만을 듣고, 이를 記事化하거나 公적으로 발표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문제발생의 주요 원인중의 하나로는 相互間의 文化差異에 기인한 理解不足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측면에서 相互理解를 증진시키는 공동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童大林 所長 (中國 世界觀察研究所 所長) :

현재 中國이 改革過程에 있고, 또한 中國에 대한 外國人投資가 급속히 증대하

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다소의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문제를 客觀적으로 理解하고, 이를 改善하기 위하여 努力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工商時報 記者가 제기하신 문제에 있어서도 이러한 문제가 韓國人 投資企業에서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香港이나 臺灣 혹은 日本 投資企業에서도 발생한다는 것은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는 韓國이라는 국가보다는 오히려 勞動集約業種의 投資企業이라는 업종상의 특징에서 그 원인을 찾아야 할 것으로 봅니다.

柳莊熙 院長 :

오늘 세미나를 통해 발표된 論文이나 討論을 통하여 韓中 兩國間 經濟協力에 관한 광범한 의견교환이 이루어졌습니다. 이 중에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었고, 문제점도 일부 지적되었습니다. 지적된 문제에 대해서는 양국간 經濟協力에 급속하게 增大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나타나는 副作用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研究院에서는 세계 여러 國家 經濟의 國際化 過程에 대하여 연구하고 있는데, 國際化에 가장 성공한 나라로서는 유럽의 스위스같은 나라를 꼽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나라의 國際化 過程을 분석해 보더라도 初期段階에는 지적된 것과 유사한 문제가 나타났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는 韓中 兩國이 相互信賴를 바탕으로 經濟協力を 擴大해 나가는 과정에서 여러 문제들도 크게 개선되어 갈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KIEP 發刊資料 案內

■ 政策研究

- | | | |
|-------|--|-----|
| 90-01 | GATT 11條國 移行에 따른 政策課題와 對應方案 ('90.03) | 金學洙 |
| 90-02 | EC 經濟統合과 對外貿易政策의 變化 ('90.03) | 閔充基 |
| 90-03 | 換率制度和 外換危險管理 ('90.05) | 金宗萬 |
| 90-04 | 우루과이라운드 知的的所有權 協商課題와 우리의 對應方案 ('90.05) | 孫讚鉉 |
| 90-05 | 韓國經濟의 自由化 現況과 OECD 加入戰略 ('90.06) | 金泰俊 |
| 90-06 | ASEAN 主要國의 貿易·産業政策과 投資環境變化 ('90.09) | 柳在元 |
| 90-07 | 우리나라의 對開途國 中長期 經濟協力 方案 ('90.10) | 金學洙 |
| 90-08 | 美國通商政策의 中長期方向 ('90.10) | 金南斗 |
| 90-09 | 多者間서비스 協商과 우리나라 建設産業의 國際化 ('90.10) | 張義泰 |
| 90-10 | 日本企業의 海外直接投資와 國際化戰略 ('90.12) | 徐相祿 |
| 91-01 | 美日經濟摩擦과 우리의 政策課題 ('91.01) | 姜興求 |
| 91-02 | 主要換率變動의 特性和 政策示唆點 ('91.03) | 金宗萬 |
| 91-03 | EC 貿易構造의 變化 ('91.04) | 金廷洙 |
| 91-04 | 美國金融市場의 構造와 規制制度 ('91.03) | 李長榮 |
| 91-05 | 中國 經濟特區戰略의 評價와 韓國企業의 對應 ('91.04) | 吳勇錫 |
| 91-06 | 蘇聯의 對外貿易 및 金融制度의 改革 ('91.04) | 朴濟勳 |
| 91-07 | 中國의 外國人 直接投資 誘致와 韓國의 進出展望 ('91.04) | 金時中 |
| 91-08 | 우리나라 서비스交易의 構造와 推移 ('91.04) | 李相學 |
| 91-09 | 韓國·臺灣·日本의 換率變動과 輸出競爭 關係分析 ('91.05) | 曹琮和 |
| 91-10 | EC의 直接投資 環境變化와 對應方案 ('91.05) | 閔充基 |
| 91-11 | 韓國의 對外經濟協力에 관한 政策課題와 方向 ('91.07) | 金學洙 |
| 91-12 | 우리나라 세이프가드制度의 改善과 活用方案 ('91.08) | 蔡 旭 |
| 91-13 | 우리나라 서비스産業의 生産性變化和 生産性的 國際比較 ('91.08) | 俞鎮守 |
| 91-14 | 舊東獨의 價格體系와 市場經濟體制로의 轉換 ('91.08) | 裴眞永 |
| 91-15 | 우루과이라운드 金融서비스協商과 證券産業의 競爭力 제고방안 ('91.08) | 金泰俊 |
| 91-16 | 폴란드 企業制度 改革과 直接投資與件 ('91.09) | 洪裕洙 |
| 91-17 | 韓·美間 直接投資의 구조와 投資環境의 變化 ('91.09) | 金南斗 |
| 91-18 | 한국·臺灣·日本의 産業政策과 産業構造調整 ('91.09) | 柳在元 |
| 91-19 | 우리나라 株式市場 開放의 效果分析 ('91.10) | 金宗萬 |
| 91-20 | 東北亞 經濟協力の 與件과 展望 ('91.12) | 共同 |
| 92-01 | 東北亞 地域 貿易構造와 域內 輸出競爭力 比較 ('92.01) | 鄭永祿 |

92-02	貿易관련 政策 및 制度의 현황과 改善方向 ('92.02)	共 同
92-03	統獨 1年の 경제적 評價와 展望 ('92.03)	裴眞永
92-04	先進國의 交易障壁 研究 ① 日本의 貿易障壁 ('92.03)	俞鎮守
92-05	서비스産業의 國際化 戰略研究 ① 保險産業의 國際化戰略 ('92.03)	蔡 旭
92-06	先進國의 交易障壁 研究 ② 原產地規程 ('92.03)	韓弘烈
92-07	先進國의 交易障壁 研究 ③ 日本의 輸入品流通과 流通障壁 ('92.03)	趙炳澤 李永俊
92-08	서비스産業의 國際化 戰略研究 ② 會計서비스産業 國際化 推進方案 ('92.04)	金宗萬
92-09	서비스産業의 國際化 戰略研究 ③ 우리나라 海運産業의 國際化 戰略 ('92.06)	張義泰
92-10	러시아에서의 사유화 進展과 外國人 投資 與件 ('92.06)	朴濟勳
92-11	先進國의 對中 經濟交流 分析 ('92.06)	鄭永祿
92-12	中國의 企業集團 育成現況과 展望 ('92.06)	金益洙
92-13	先進國의 交易障壁 研究 ④ 標準 및 檢査制度 ('92.07)	成克濟
92-14	先進國의 交易障壁 研究 ⑤ EC의 貿易障壁 ('92.07)	閔充基
92-15	汎유럽經濟圈 形成의 展望과 影響 ('92.07)	金博洙
92-16	OECD 經常貿易外去來 및 資本移動 自由化規約과 韓國의 自由化 現況 ('92.07)	金泰俊
92-17	先進國의 交易障壁 研究 ⑥ 金融서비스 關聯 障壁 ('92.07)	李長榮
92-18	유럽金融統合과 EC金融市場 進出方案 ('92.07)	李在雄
92-19	東歐 經濟改革의 類型과 成果 ('92.07)	洪裕洙
92-20	서비스産業의 國際化 戰略研究 ④ 流通産業의 開放效果와 對應戰略 ('92.07)	申世敦
92-21	서비스産業의 國際化 戰略研究 ⑤ 廣告産業의 國際競爭力 提高方案 ('92.07)	李相學
92-22	先進國의 交易障壁 研究 ⑦ 政府調達 關聯 障壁 ('92.08)	崔仁範
92-23	先進國의 交易障壁 研究 ⑧ 美國의 貿易障壁 ('92.08)	金南斗
92-24	輸入先多邊化制度의 經濟的 效果 ('92.09)	共 同

92-25	東北亞經濟協力圈 形成을 위한 線形自由貿易地帶 構想과 그 期待效果 ('92.09)	孫炳海
92-26	UR 총점검 ('92.10)	共 同
92-27	換率, 金利 및 賃金變動이 우리나라 輸出에 미치는 영향 ('92.10)	金宗萬
92-28	國內先物去來所 設立·運營에 관한 研究('92.10)	共 同
92-29	日本の 産業 및 貿易構造의 變化와 展望 ('92.10)	金昌男
92-30	Korea's Recent Foreign Exchange Rate Systems: ('92.12)	김진천
93-01	GATT 및 主要先進國의 反덤핑制度和 우리나라 制度의 改善方案 ('93.01)	蔡 旭
93-02	우리나라 市場開放政策의 特徵과 效果 ('93.01)	韓弘烈
93-03	中國 國營企業 改革의 展開와 展望 ('93.02)	金時中
93-04	日本の 技術貿易 ('93.02)	俞鎮守
93-05	豆滿江地域 開發構想에 대한 論議와 展望	金學洙
93-06	블럭化時代의 亞·太經濟協力	共 同
93-07	中國의 技術導入 政策과 中日技術協力	吳勇錫
93-08	러시아의 軍需産業 民需轉換에 관한 研究 ('93.03)	朴濟勳
93-09	日本市場에서 韓國의 競爭力 分析 ('93.03)	康仁洙
93-10	日本 換率政策의 方向과 우리나라 輸出入에 미치는 影響 ('93.03)	金宗萬
93-11	日本 自動車産業의 競爭力 強化와 下請分業生産의 役割('93.04)	任千錫
93-12	先物去來 上場品目 選定에 관한 研究 ('93.04)	曹正錄
93-13	우리의 對舊蘇聯 經濟協力 基本戰略 ('93.04)	李昌在
93-14	外換市場介入政策의 效果分析과 換率政策에 대한 政策示唆點 ('93.05)	金泰俊
93-15	中國의 工業發展戰略과 産業政策 ('93.05)	金益洙
93-16	中國 輸入構造變化와 우리의 對應方向 ('93.05)	鄭永祿
93-17	EC 經濟統合과 우리나라의 輸出構造 變化 ('93.05)	閔充基
93-18	韓美間 産業構造의 特性이 輸出入에 미치는 影響 ('93.08)	成克濟
93-19	NAFTA의 出帆과 美國 輸入市場에서와 韓國과 멕시코의 競爭力 比較 ('93.08)	金尙謙
93-20	EC市場에서의 韓國의 競爭力 分析 ('93.08)	金博洙
93-21	韓·中 環境協力에 관한 研究('93.09)	共 同
93-22	知的財産權 國際化의 方向과 課題('93.11)	王允鍾
93-23	日本の 對아시아 技術移轉 戰略과 韓國의 對應 ('93.11)	洪裕洙
93-24	러시아 極東地域의 經濟와 우리의 經濟協力方案('93.11)	李昌在
93-25	UR 총점검(增補版) ('93.12)	共 同

93-26	서비스産業의 國際化 戰略研究 [6] 엔지니어링서비스 産業의 現況과 國際化 方向 ('93.12)	孫讚鉉
93-27	南·北韓의 統一에 비추어 본 獨逸 信託管理公社의 役割과 意義 ('93.12)	朴成勳
93-28	臺灣企業 中國投資의 現況과 波及效果 ('93.12)	金時中
93-29	CIS 域內 交易 및 金融關係 分析 ('93.12)	朴濟勳
93-30	日本企業의 對中直接投資의 動向과 戰略 ('93.12)	金益洙
93-31	最近 우리나라의 日本技術 導入現況과 政策方向 ('93.12)	任千錫
93-32	環境關聯 經濟的 手段의 運用 現況 및 展望 ('93.12)	李鎬生
93-33	亞·太經濟協力の 새 方向 ('93.12)	共 同
93-34	交易條件變化와 資本自由化의 效果分析 ('93.12)	表鶴吉 權皓寧
93-35	21世紀를 향한 韓·日間 技術分業과 技術協力の 基本方向 ('93.12)	朴宇熙 森谷正規
93-36	中國의 對外貿易과 韓·中 輸出競爭 ('93.12)	吳勇錫
93-37	資本自由化와 換率政策方向 ('93.12)	孫正植 朴大權
93-38	東歐改革의 進展과 經濟協力 擴大戰略 ('93.12)	鄭甲泳
93-39	資本自由化에 관한 事例分析: 開途國과 先進國의 경험 ('93.12)	金仁竣
93-40	亞·太經濟協力の 深化方案 ('93.12)	共 同
93-41	東歐 主要國의 民營化 研究 ('93.12)	尹健秀
93-42	우리나라의 對東歐 交易現況과 展望 ('93.12)	權寧堧
94-01	戰略的 提携와 技術革新의 國際化 ('94.01)	洪裕洙
94-02	NAFTA 原產地規程의 意義와 政策示唆點 ('94.01)	韓弘烈
94-03	統一이 東西獨의 産業立地와 産業構造에 미친 影響 ('94.02)	裴眞永
94-04	議題 21과 우리나라의 持續可能開發 戰略 ('94.02)	韓宅煥

■ 政策資料

90-01	蘇聯·中國 및 東歐의 變化와 對應 ('90.01)	共 同
90-02	1990年代 國際經濟 環境 變化와 對應戰略 ('90.06)	共 同
90-03	우루과이라운드 서비스協商의 進展狀況과 우리의 對應方案 ('90.08)	朴泰鎬
90-04	中國의 經濟改革에 있어서 分權化 및 市場經濟化의 展開 ('90.10)	蘇侷燮
90-05	美國·日本의 金融自由化와 政策示唆點 ('90.11)	李長榮
91-01	北韓의 에너지 需要와 供給 ('91.03)	張榮植
91-02	北韓의 貿易 및 對外經濟 ('91.03)	姜正模
91-03	蘇聯 經濟改革政策과 우리의 對應 ('91.05)	李善煥 方燦榮

91-04	臺灣·日本の金融自由化와 政策示唆點 ('91.09)	李長榮
91-05	外國人 直接投資의 生産性 效果分析 ('91.10)	崔仁範
		玄定澤
91-06	韓國의 對베트남 經濟協力 基本戰略 ('91.11)	金學洙
91-07	蘇聯建設市場과 韓國建設業體의 進出 可能性 分析 ('91.12)	朴康植
91-08	技術障壁에 대한 國際的 論議와 對應方案 ('92.12)	孫讚鉉
92-01	中國工業經濟效率과 工業體制改革에 관한 研究 ('92.01)	共同
92-02	獨立國家聯合의 出帆과 韓·蘇 經濟協力 ('92.01)	朴濟勳
92-03	外國人直接投資의 不振要因과 活性化方案 ('92.03)	金南斗
		柳在元
92-04	EEA 創設의 問題點과 域外國들에 대한 影響 ('92.04)	閔充基
92-05	아시아 主要 開發途上國의 非關稅障壁 ('92.07)	魯在峯
92-06	EC 海運産業의 變化와 示唆點 ('92.08)	閔充基
92-07	海外直接投資의 現況과 政策課題 ('92.09)	共同
92-08	클린턴 次期 美國大統領의 經濟政策 ('92.11)	共同
92-09	對內外與件 變化와 韓中經濟協力の 新構圖 ('92.12)	金益洙
92-10	1993年度 國際經濟環境變化展望과 對應戰略 ('92.12)	共同
93-01	南北韓 物資交流와 原產地規程 ('93.05)	韓弘烈
93-02	GATT 最惠國待遇 原則과 南北韓 物資交流 ('93.07)	韓弘烈
93-03	韓國의 無償援助와 有償援助의 連繫方案 ('93.07)	金學洙
93-04	EC 競爭政策 變化와 우리의 對應方案 ('93.08)	閔充基
93-05	최근 世界經濟의 沈滯와 우리經濟에의 示唆點 ('93.09)	共同
93-06	西方의 對러시아 經協전략과 示唆點 ('93.10)	朴濟勳
93-07	主要國의 先物市場 規制定策 ('93.10)	曹正錄
93-08	國際貿易紛爭의 現況과 GATT의 役割 ('93. 11)	蔡 旭
93-09	主要國의 輸出支援制度 現況과 우리制度의 改善方案 ('93. 12)	金準東
93-10	貿易과 競爭政策: OECD의 論議 ('93.12)	金廷洙
93-11	러시아 經濟改革의 進行 狀況과 評價 ('93.12)	李昌在
93-12	地域主義 深化와 韓國의 選擇 ('93.12)	魯在峯
93-13	國內 製造業分野 外國人投資企業의 現況 및 特性 ('93.12)	金寬滿
93-14	日本の 金融自由化와 貨의 國際化 ('93.12)	權才重
93-15	競爭政策에 관한 國際的 論議와 獨占禁止法의 域外適用 ('93.12)	俞鎮守
93-16	通貨先物市場 導入에 관한 研究 ('93.12)	金哲三
93-17	OECD 主要國의 科學技術政策 ('93.12)	洪裕洙

94-01	1994年度 世界經濟 展望과 對外經濟政策課題 ('94.01)	
94-02	EC通貨統合의 進展과 波及影響 ('94.01)	曹琮和
94-03	國際金融 環境變化와 企業의 國際金融市場 活用戰略 ('94.01)	曹正錄
94-04	技術導入과 테크노마트의 活用 ('94.03)	王允鍾
94-05	戰換期の 臺灣經濟 ('94.02)	柳在元
94-06	우리經濟의 國際化 ('94.04)	金博洙 金廷洙
94-07	新三低—舊三低의 比較分析과 政策對應('94.5)	共 同

■ 세미나資料

- EC 統合과 政策對應 ('90.1) 共 同
- 우루과이라운드 協商과 우리의 對應方案 ('90.4) 朴泰鎬 編
- 韓國과 社會主義圈의 關係發展 및 南北韓 關係變化의 展望 ('90.6) 吳勇錫 編
- Jang-Won Suh and Jae-Bong Ro (eds.), Asia-Pacific Economic Cooperation: The Way Ahead ('90.11)
- EC統合과 우리의 대응방안 ('91.2) 閔充基 編
- Taeho Bark and Wook Chae (eds.), Uruguay Round: Unresolved Issues and Prospects ('91.9)
- Jang-Won Suh (ed.), Northeast Asian Economic Cooperation: Perspectives and Challenges('91.12)
- Chung Ki Min (ed.), The Economic Cooperation between EC and Korea: Problems and Prospects ('92.6)
- Jehoon Park, Russia's Reform and Economic Cooperation Between Korea and Russia ('92.9)
- Jin Young Bae (ed.), Two Years Since German Unification ('93.2)
- Chang-Jae Lee, Regional Context for Korea's Dynamism: Certainties vs. Uncertainties ('93.12)
- Bak-Soo Kim, The Asian Dimension of EC Integration ('93.12)
- 94-01 韓日經濟協力の 新構想 ('94.6) 任千錫 編

■ Working Paper

- Chungsoo Kim, Regional Economic Cooperation Bodies in the Asia-Pacific: Working Mechanism and Linkages ('90.8)
- Lynn Krieger Mytelka, Strategic Partnering Activity by European Firms through the ESPRIT Program ('90.8)
- Sung Yeung Kwack, Models of Exchange Rate Behavior: Application to the Yen and the Mark ('91.1)

- Taeho Bark, Anti-dumping Restrictions against Korean Exports: Major Focus on Consumer Electronic Products ('91.5)
- Yoo Soo Hong, Implications of Economic Reforms in CEECs for DAEs: with Emphasis on the Korean Case ('91.7)
- Jang Hee Yoo, The ANIEs-an Intermediate Absorber of Intraregional Exports? ('91.7)
- Taeho Bark, The Uruguay Round Negotiations and the Korean Economy ('91.10)
- Janghee Yoo, Changing World Trade Environment and New Political Economics ('92.9)
- In-Soo Kang, Economic Effects of Import Source Diversification Policy(ISDP) ('93.1)
- Jai-Won Ryou and Byung-Nak Song, Korea's Foreign Direct Investment in Southeast Asia ('93.3)
- Sung-Hoon Park, German Economy after Unification-Facts, Prospects and Implications for Korea ('93.6)
- Wook Chae, A Note on Korea's Anti-dumping System and Practices ('93.6)
- Chung-Ki Min, Structural Changes in Korea's Exports and the Role of the EC Market ('93.10)
- Joo-Sung Jun, Tax Implications of International Capital Mobility ('93.12)
- Yoo-Soo Hong, Leveraging Technology for Strategic Advantage in the Global Market : Case of the Korean Electronics Industry ('93.12)
- Jin-Soo Yoo, Changing Patterns of Korea's Trade in Goods and Services ('93.12)

세미나 資料 94-02
韓中經濟協力の 新構圖

1994年 6月 23日 印刷

1994年 6月 25日 發行

發行人 柳 莊 熙
發行處 對 外 經 濟 政 策 研 究 院
서울市江南區大峙3洞 942-1番地君子빌딩 14層-18層
電話：528-5555 FAX：528-5511, 5522
登錄：1990年 11月 7日 第 16-375號
印 刷 오름시스템(주) 전화：273-7011

* 本 報 告 書 內 容 的 無 斷 轉 載 · 譯 載 · 複 寫 等 禁 止

값 5,000원

ISBN 89-322-3002-5